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인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안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8월 10일(음력 7월 6일) 수요일 (주간) 제 538 호

친일파 땅찾기에 민법의 '소유권' 적용은

"헌법 위반"

봉선사, 내원암 토지소송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성명서도 발표

"민법의 소유권 관련 조항을 친일파 후손의 재산찾기 논리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말사인 수락산 내원암(주지 재문)의 경내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민족 친일행위자 이해창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이 고도의 법리논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본지 530호 1면 참조)

내원암의 위임을 받은 봉선사(주지 철안)는 민법의 소유권 관련 조항(제211~214조)을 친일활동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8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는 한편 그 취지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봉선사측의 주장은 이해창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내원암 경내지 14만7천967㎡는 이해창이 한일합방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총독부로부터 무상대여 받은 토지로서, 이에 대해 민법 조항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전문(前文)에서 3·1정신 계승을 표방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추구한 자주독립, 민족자결주의적 성격과 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전문의 내용은 모든 법령 해석의 지침이며 헌법기관이 지켜야 할 가치규범인 만큼, 반민족행위 대가로 받은 재산에 민법의 소유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논리대로라면 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제한돼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며, 그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법원측이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할 경우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는 것만으로도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찾기 소송은 전면 중단되고,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 만약 헌재가 위헌을 결정할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 찾기 소송은 근절될 수 있다. 또 마냥 신성시 돼 불가침적인 권리로 간주돼 온 재산권을 제한하는 판례로서, 역사적으로 부당하게 취득된 재산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번 제청신청은 법리적 관점에서도 큰 관심거리다. 이를 계기로 헌법 전문의 효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법학계에서 오래된 논쟁이 재점화 될 수 있다. 헌법전문에 대해 "국민의 근본적인 정치적 결단의 표현(결단주의 헌법관)" 또는 "사회적 통합의 당위적 목표와 방향을 나타낸 것(통합주의 헌법관)"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헌법제정의 유래와 목적을 기술한 것에 불과해 규범력을 갖지 않는다(법실증주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헌법학자 사이에서는 헌법전문을 헌법본문과 기타법령의 해석기준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해, 친일 대가에 대한 재산 환수라고 하는 해방 이후 정리하지 못한 미결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준비해 온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친일파 후손의 재산찾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입법·사법·행정의 국가 기능 또한 적극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

"제청신청 기각되면 헌법소원 제출할 것"



▲심판제청신청 이유는

-1997년 법원이 이완용 후손의 재산찾기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이래 송병준 이재극 이해창 등 한일합방 공로자들 후손의 재산찾기 소송이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축적한 재산일지라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고, 정작 최용규 노회찬 의원 등이 발의한 '반민족친일행위자재산환수에 관한특별법'은 오히려 위헌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시대 교종본산이었던 봉선사는 허응당 보우 스님과 함께 불교중흥에 앞장섰던 사찰이며, 운암 김성숙, 운허 스님 등 항일운동가를 배출한 사찰이기도 하다. 특히 운허 스님은 봉선사 전 조실로 대한광복단 일원으로 싸웠고, 해방 후에는 불경의 한글화를 주도하던 대강백이다. 이처럼 항일 전통 속에 있는 봉선사 대중은 반민족친일행위자의 준동을 묵과할 수 없어 대응책을 모색하게 됐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리라 보는가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기능이 헌법질서 수호이므로, 3·1정신을 계승하고 상해임시정부법통을 계승했다고 하는 헌법전문의 선언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법원 또한 법리만 따지는 보수적인 견해를 버리고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줄 것으로 기대한다.

▲법원이 기각한다면

-헌법의 진실한 수호자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아니라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다. 법원이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읽어낸다면 기각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에 포함된 내용에 더하여, 제헌헌법 부칙에 명시된 친일파재산몰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입법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포함될 것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됐다가 귀국하지 못한 채 숨진 동포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재가 광복 60년 만에 처음으로 7월 28일 샥조르스크 29일 우글레고르스크에서 각각 열렸다.

사할린 교포 2세에 템플스테이

조계종, 광복후 첫 현지 위령재도 봉행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내년부터라도 사할린 교포 2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제공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사할린 현지에 사찰을 건립해 한인 영가들의 위령재를 봉행하겠다"고 8월 2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광복 60돌 사할린 피징용 한인을 위한 위령재' 참석차 사할린을 방문한 법장 스님은 이 외에도 △정부와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명확한 진상규명 △사할린 현지에 영사부 설치 △(가칭) '사할린 강제이주 진상규명과 사할린 동포 지원법' 제정 △일본 정부의 사죄와 일본 정부차원의 배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광복 60주년 특집
■ 광복 60년 불교 60년 화보 5면
■ 청산 못한 일제잔재 어떻게 할 것인가 6·7면
■ 애국 2代: 탄허 스님과 아버지 김홍규 8면
■ 日 유출 '도갑사 관세음보살 32응신도' 복원 현장 9면



'현대불교 미디어센터(HBMC)' 부다피아는 사찰이나 단체, 개인이 무료로 웹페이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버 사용료나 관리비 등 홈페이지 운영비가 전혀 들지 않으며 회원관리 등에 편이성을 갖춰 신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찰 및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홈페이지', 불교동호회가 사용하기 편한 '커뮤니티', 개인 홈페이지인 '블로그'를 이용하려면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 접속, 제작 매뉴얼을 참조하면 됩니다. 문의 (02)2004-8285

■온라인에서 내집마련이 공짜 '무료 홈페이지'

● 부다피아 홈페이지는

사찰이나 단체가 제작 및 관리 비용 없이 무료 구축이 가능한 '홈페이지 빌더(builder)' 서비스. 홈페이지에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를 올리면 부다피아 내 검색뿐만 아니라 '구글'과 같은 검색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접근이 용이한 웹페이지다.

● 주요 기능

개별 단체들이 올린 행사안내나 회원모집 등 공지사항이 부다피아 통합게시판에서 공지되며 단체들이 올린 자료들은 부다피아 인물/단체/행사 메뉴와 검색 페이지에서도 서비스된다.

특히 배너 관리, 설문조사, 클릭통계, 디자인변경, 인물/단체/행사 등의 콘텐츠의 경우 부다피아 DB와 연동돼 따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도 최신 데이터가 유지된다.

■우리 친구할까? 일단 모여봐… '커뮤니티'

● 부다피아 커뮤니티란

부다피아 커뮤니티는 불자들만의 공동체(community)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한 지대방이다. 각종 불교동호회 회원들은 지대방에 가입해 살아가는 이야기, 가슴 따뜻한 사연, 나날이 마음 닦아 가는 수행일기 등을 올릴 수 있다.

● 주요 기능

-웹진형, 블로그형, 게시판형, 앨범형 등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거의 무제한 업로드 가능.
-통합검색, 지대방명, 방장ID, 게시글 등 커뮤니티 검색기능
-선우끼리의 쪽지/초대 기능
-인기 지대방, 새내기 지대방, 주제별 지대방으로 홍보 기능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블로그'

● 부다피아 블로그란

블로그란 Web(웹) + log(항해일지)의 합성어로 웹의 b와 log가 합쳐진 말. 블로그는 쓰임에 따라 일기장, 메모장, 스케치북, 스크랩북이 되기도 하며 수필집이나 자서전, 사진첩이나 신문이 될 수도 있다.

● 주요 기능

-직접 찍은 사진과 동양상 파일 등을 쉽게 올릴 수 있다.
-원하는 테마를 자유롭게 정할수 있다.
-다른 블로그에 있는 글, 사진을 쉽게 내 블로그로 복사해 올수 있다.
-부다피아 블로그 가운데 주제별/베스트/인기/새내기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할'



그림·조태호

성수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최고 30% 파격적인 할인에 무료배송까지 !!
여름휴가를 여시아문 도서와 함께!!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여시아문에서 발행된 도서를 파격적인 할인과 함께 무료배송서비스 혜택(30,000원 이상 구매시)까지 드리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올 여름휴가는 여시아문도서와 함께 불서 탐독의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 www.yosiamun.com을 참조하세요.

행사기간 : 2005년 7월 20일 - 8월 20일

여시아문 http://www.yosiamun.com
yosiamun@buddhapia.com
전화주문 : 02_2004_8220 팩스주문 : 02_737_0696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정가 12,000원 특별가 9,600원(20%)
정말 봄은 오는가 정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
왜 사 정가 25,000원 특별가 17,500원(30%)
선방일기 정가 5,000원 특별가 4,250원(15%)
삶은 고가 아니다 정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강좌 정가 6,500원 특별가 5,200원(20%)
스님이야기 정가 12,000원 특별가 9,600원(20%)
원각경 정가 9,500원 특별가 7,600원(20%)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정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
부처님께 재를 털면 정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

“후보복수추천…원로회의서 결정”

조계종 원로회의의장단, 총무원장 선거 제도개선 의견제시

종회의장과 간담회…수행풍토진작 당부

“총무원장 선거의 경우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원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단이 7월 31일 청주 보살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에게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청취한 뒤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조계종 종헌 제52조 2항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선출하며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원로회의의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선 중앙종회에서 관련 종헌 종법이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종단의 상징이자 어른격인 원로회의가 총무원장 선거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종헌종법이 개정될 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법등 스님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일은 종단에서 매우 비중 있는 일인데 원로회의에서 큰 짐을 지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다”며 “원로의원 스님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인 만큼 중앙종회의원들과 충분히 숙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원로회의 의장 종산, 수석부의장 지혜, 차석부의장 보성 스님은 “종단의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선거제도 개선”이라며 “무너져 버린 위계질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로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로회의 의장단은 “아무리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종단이 수행 풍토를 더욱더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의장단은 △‘원로회의 내규’를 종법으로 반영하는 등 원로회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노스님들을 위한 승려노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사무처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회의 사무처장 일문, 중앙종회 사무처장 법진 스님이 배석했다.

한편 법등 스님은 지난 6월부터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종정기관 소속 스님 등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성관 스님과 롱 비슬로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이 현지 NGO 설립 조인서를 교환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NGO 설립

실천승가회, 교육시설 건립 등 추진 활기

캄보디아에 고아원과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 · 효림, 이하 실천승가회)가 현지 국제 NGO ‘Shilcheon Bulgyo(실천불교)’를 설립했다.

실천승가회는 7월 27일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공동의장 성관 스님과 캄보디아 외교부 롱 비슬로(Long Vislo)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NGO 설립 조인식을 개최하고 ‘Shilcheon Bulgyo’를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 등록했다.

실천승가회는 또 같은 날 캄보디아 사회복지부에서 현지 관계자 등과 함께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 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천승가회는 캄보디아 정부에 교육시설에 대한 전력공급과 BWC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실천승가회와 캄보디아 정부는 양측 BWC 공동위원 숫자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실천승가회 공동의장 성관 스님은 “내년 6월까지 남녀 각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과 학년당 30명 규모의 초등학교 등을 건설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중등교육시설까지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조계사서 남북 합동법회

14~17일, 8 · 15 민족대축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불교도 합동법회가 8월 16일 오전 9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8월 14~17일 서울에서 열리는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 · 15 민족대축전’(이하 8 · 15대축전)의 부문행사로 진행되는 합동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8 · 15대축전 남측 명예대표)을 비롯한 남측 인사와 북측 조불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8 · 15대축전은 통일대행진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 · 15민족대회 △남북통일축구경기 △겨레말 큰사전 편찬 보고대회 △체육 및 유희경기 △합동연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유철주 기자

근대문화유산 등록대상 확대

문화재청, 관련제도 대폭 개선

근대문화유산 등록대상이 확대되고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등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7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 · 발효된데 따른 것.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그동안 부동산 위주였던 근대문화유산 등록대상을 건조물 및 시설물에서 동산적 성격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사건에 관련된 역사유적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생활 · 산업 · 기술 · 문화 · 예술 등 인문적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이 모두 등록대상에 포함된 것.

또 그간 등록문화재 소유자에게 제공된 세제혜택과 보수 · 정비비 지원 외에도 상속세 유예, 재산세 감면, 부지내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주어진다. 이에 따라 소유재산이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자들의 문화재 등록 기피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대신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건축기준 완화 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를 현상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전 등록문화재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보존의지가 없을 경우 원형 훼손 가능성이 높았었다.

박봉영 기자

‘통리원 신축 추진위원회’ 발족키로

진각종, 원의회 결의

진각종은 7월 29일 제239회 원의회를 개최하고 새 통리원으로 이용될 (가칭)한국불교문화센터 건립 추진위원회와 (가칭)문두루비법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문두루비법은 국난이나 위기때 시행하는 밀교의식으로써 이 두 추진위원회는 9월 진각종 종의회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센터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통리원 신축과 함께 다도 서예 조각 만다라 제작과 시연 전시를 통한 센터의 다목적 이용방안 등을 모색한다.

문두루비법 복원 추진위원회는 문두루비법을 재현해 북핵과 독도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따른 종단 불사를 봉행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총지종 ‘불상봉안’ 내부진통

“종단 근간 흔들리는 사안”
“환경 변화따른 교화방편”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이 불상봉안 문제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창종 이래 사원에 육자진언만을 봉안하는 전통을 가진 총지종이 현실적인 변화 요구를 수용, 불상봉안을 추진했다가 최근 내부 반발로 이를 보류했다.

불상봉안은 2004년 7월 효강종령 취임 이후 본격화됐다. 2004년 10월 추계강공에서 불단장엄 및 의식 변화 방안이 공론화됐으며 올 1월 승단총회에서는 사원 1곳을 정해 불단 변화를 시도하자는 안건이 결의되기도 했다.

통리원장 우승 정사도 올초 인터뷰에서 “불단장엄 변화 연구 및 검토부터 시작해 불상봉안 문제를 다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상봉안은 ‘심인진리’를 강조해온 총지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불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창종 당시에 비해 변화한 교화환경에 맞는 적절한 교화방편을 내놓겠다는 총지종 집행부의 의견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올 7월에는 사원 두 곳에 불상을 모시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종단에서 활동해온 원로정사와 보살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불상봉안 계획은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는 형국이다.

총지종 관계자는 “종단을 개혁하겠다는 종령님 이하의 뜻의 워낙 강하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뭐라 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강유신 기자

불국사 석가탑 균열 상시 계측

국보 제21호 불국사삼층석탑(석가탑)의 균열과 위치변화가 첨단 과학시설의 도움으로 상시계측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은 기단부 구조불안으로 균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석가탑 탑부재에 광섬유센서를 설치해 균열을 파악하는 한편 상층부에는 데이터센서를 달아 변위(變位)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8월 2일 밝혔다.

사업단은 또 ‘3차원 스캐너’를 설치해 탑의 기울기와 중심축의 이동을 관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보존처리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박익순 기자

천태종 하안거 결제 250여 사암…한달간

천태종이 8월 11일부터 불기 2549년 하안거 결제에 들어간다. 89회째 맞는 천태종 하안거는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250여 사암에서 9월 10일까지 한달여에 걸쳐 진행된다.

하안거 결제식은 8월 11일 오후 10시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운덕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다.

여름과 겨울 두차례 진행되는 천태종 안거는 전통적인 안거와 달리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함께 정진하며, 1개월 동안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문선명씨 막내아들 법장 스님 예방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막내아들 문형진(27)씨가 8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했다. 지난 5월 법장 스님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소에서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자리에서 문형진씨는 “종교학을 공부해 보니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개한 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나 폭탄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종교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됐다. 종교인들이 함께 해 세계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법장 스님은 “테러나 전쟁은 남의 것을 빼앗아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물질은 채워도 끝이 없지만 생각은 한번만 바꾸면 된다.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성인이고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범부다”라고 설명했다.

문형진씨는 현재 하버드 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불교에 심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고침 본지 537호 6면 ‘中 칭따오 금강선원 활안스님 초청 수계법회’ 기사 중 활안 스님은 ‘천자암 조실’이 아닌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이므로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2005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후기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4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초급과정	예경의식 및 조 · 석 예불	20명	3개월
중급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3개월
전통의식과정	49재의식 및 전통교육	20명	6개월
요잡 · 작법과정	바라춤, 나비춤, 사물 다루는 법	10명	3개월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5年 8月 16日 ~ 9月 12日
▶ 입 학 일 : 2005年 9月 13日

찾아오시는 길
청량 □ 전화국
미주 아파트 ↓
← 청량리
■ 교육대학
↑ 제기동
□ 청량리 전철역
□ 롯 데 백화점

6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농촌 노인복지 모델 찾았다

북한 동포 돕기, 인도 돕기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땅을 찾아 정토(淨土) 만들기에 주력해온 정토회(지도법사 법륜)가 농촌 지역 노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정토회는 울주군 두서면 두북마을의 폐교를 인수, 두북 정토마을을 개원하고 이곳을 본부로 하는 농촌 지역 노인 복지 활동을 올 사찰들이 인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탈피, 정토회 차원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농촌 노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 부산 동래와 해운대, 마산, 울산 등의 도심 법당 자원봉사자들을 투입, 농촌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봉사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전국의 정토법당은 물론 각 사찰에 까지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다.

정토회, 울주군 폐교 인수…복지본부 운영

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전국 확대 부푼꿈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고 있다. 젊은 층 인구가 썰물처럼 급속도로 빠져나간 농촌 지역에 남겨진 노인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시작한 일이다.

자식이 있어도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떠날 수 없어 노동을 감내하며 농촌에 남아있는 노인들은 지자체의 복지 대상에서도 제외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현실에 착안했다.

특히 정토회의 두북노인복지활동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지역



정토회는 두북노인복지관과 함께 농촌지역 노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사진은 정토회 자원봉사자들의 회의모습.

이를 위해 정토회는 2004년 9월 울주군의 폐교를 인수해 대중목욕시설, 게이트볼 경기장, 원두막 등을 갖추고 인근의 거동 불편 노인 세대를 찾아 나섰다. 상반기 동안 정토회가 찾은 가구 수는 10가구, 참여한 봉사자수는 100여 명에 달한다. 그리 많지 않은 가구 수지만 월 1, 2회 꾸준히 방문, 집안 청소를 대신하거나 말벗이 되어주며 자식 노릇을 대신하고 있다. 정토회는 각 지역 법당별로 자원봉사자를 꾸리고 봉사 활동 이후 마음 나누기 활동을 통해 봉사가 곧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촌 봉사의 모델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대구 법당에서 꾸준히 봉사 활동에 참여해 온 김현자(44) 씨는 "거동이 불편하시니 식생활, 위생 등 열악해서 마음이 아프다"며 "그러나 막상 봉사를 하다보면 도움을 주러 오는 것 같지만 오히려 친정에 온 듯 정신적 위안을 받고 간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 해운대 법당의 최문숙(53), 염윤희(43) 씨는 "냉장고, 집안 등을 말끔하게 청소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봉사의 즐거움을 털어놨다.

정토회는 7월 31일 두북 정토마을에서 그동안의 봉사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한 평가회의를 열었다. 특히 이날은 186평 규모의 '한국 JTS 구호물품 창고' 준공식이 함께 열렸으며 법륜 스님은 '두북노인복지활동의 의미와 방향'이라는 법문으로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정토회는 그동안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미용 봉사, 의료 기관 연계 봉사 등 보다 실질적인 봉사 시스템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임종 직전까지 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두북 정토 마을에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법륜 스님은 "농촌에 살고 있는 어른들은 도심에 살고 있는 자식들 모두가 책임지고 모셔야 할 바로 내 부모"라며 "농촌 어르신들에게 잃어버리는 자식을 찾아주고, 도심의 봉사자들은 부모님의 고마움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농촌 봉사의 의미를 정리했다. 천미희기자

부평 미얀마선원 확장

부평 미얀마선원(주지 만달라)이 선원 확장 기념법회를 8월 14일 개최한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큰스님 초청 법문 및 문화 행사도 마련된다.

15평 남짓의 작은 다세대주택에서 출발한 부평 미얀마 선원은 부평역 부근의 건물 두 개층을 전용공간으로 확보하게 됐다.

미얀마선원은 현재 서울 미얀마선원(주지 산디마)과 인천 부평지역 미얀마 근로자들이 활동하는 부평 미얀마선원 두 곳이 있다. (032)507-3507 강지연 기자

행궁터 지명복원 건의

법주사(주지 도공)가 540년전 조선 세조가 지병치료를 위해 법수사로 가던 중 머물렀던 외속리면 장재리의 지명을 행궁리 혹은 대궐터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은군에



화마를 잡아라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주지 현응)가 8월 2일 구광루앞에서 가상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해인사와 거창소방서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합동소방훈련에는 거창소방서, 합천군보건소, 해인사 의용 여성 소방대, 강원과 율원 스님과 종무 직원 등 100여명이 동원됐다. 훈련참가자들은 30여 분만에 중요문화재를 대피시키고, 각종 소방장비를 동원해 가상화재 진압 시범을 보였다. 해인사=배지선 기자

8월16일 불교진흥원 30돌 기념법회

장경호거사 30주기 추모도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 설립 30주년 기념법회가 8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린다.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인 故 장경호(1889~1975 · 법명 대원(大圓)) 거사 30주기 추모법회를 겸해 열리는 이날 법회는 <장경호 거사 평전> 봉헌을 비롯해 홍승희 이사장의 봉행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법어 등으로 진행된다.

대한불교진흥원은 동국제강 창업주인 故 장경호 거사가 박정희 前 대통령에게 한국불교의 중흥을 염원하는 서한과 함께 사재 30억 6천 3백만원을 헌납해 1975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이후 불교방송 설립, 다보수련원 건립, 불교문화센터 운영, 격월간 <불교와문화> 간행 등 불교 대중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02)719-1855 박봉영 기자

천성산 환경조사 이달 착수

시추허가후 즉시 시행키로

환경조사 실시 합의 이후 논란을 겪어왔던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8월 15일 전후로 시작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 대책위는 최근 실무협의를 갖고 양산시와 울주군의 시추허가가 나오는 대로 환경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4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100여일 만에 지질, 지하수, 생태계 등 5개분야에 대한 환경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남기명 토목처장은 "천성산이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시추허가가 나와야 조사가 가능하다"며 "조사 기간에는 일체의 고속철도 건설공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성산 대책위 서재철 간사도 "철도시설공단이 천상산 문제를 왜곡한 자료집에 대해 일체의 사과를 거부하고 있지만 조사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노 대통령 월정사 방문

노무현 대통령이 8월 1일 월정사를 방문해 경내를 둘러보고 적광전과 성보박물관을 참배했다. 노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씨 내외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3박4일간 강원도에서 휴가를 보내던 도중 월정사를 방문해 주지 정념 스님과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했다. 남동우 기자

中 영화배우 리롄제 불교 다큐멘터리 찍는다

영화배우 리롄제(이연걸)가 앞으로 10년 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불교 다큐멘터리를 찍는다.

8월 1일 리롄제는 홍콩 언론들과 기자 회견에서 "앞으로는 쿵후 영화를 찍지 않고, 많은 힘과 시간을 들여 불교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롄제는 불자들과 함께 향후 10년간 매년 3~4개월의 시간을 들여 세계 각지의 불교지도자부터 불법 가르침을 받는 구도의 길을 다큐멘터리로 찍는다. 조용수 기자

"대광고 교육 문제없다" 서울시교육청 답신보내

서울시 교육청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 등 시민단체들이 7월 19일 대광고에 대한 종교교육 시정명령권을 청원한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7월 26일자로 종자연에 공문을 보내 "대광고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종교' 과목을 편성하였으며, 예배는 자율적 의사에 따라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자연과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대광고 문제에 대한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5분 예배와 수요 학년예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했다. 유철주 기자

금강대 학부조직 개편 불교학-사회복지학 접목

천태종 종립 금강대는 8월 1일부터 대학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행정학부 신설을 비롯한 학부조직 변경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우선 불교문화학부의 불교학 전공과 사회과학부의 사회복지학 전공은 불교 · 복지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역학부는 통상 · 행정학부로 조정해 통상통역학(영어 · 일어 · 중어) 전공과 행정학 전공을 신설했다.

이번조치는 불교학과 사회복지학의 접목으로 천태종 종립대학의 정체성 강화, 어학을 기초로 한 통상영역 확대, 고위공무원 및 외교관 양성 기반 조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다.

금강대 김유혁 총장은 "타 대학과의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로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용수 기자

현대인 위한 참선수행

'현대인들을 위한 참선수행' 주제법회가 8월 21일부터 서울 공생선원(주지 무각)에서 열린다. 이번 법회에는 각화사 태백선원장 고우스님(재가자의 참선수행법),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경전은 수행의 본바탕),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현대인들의 참선수행법) 등이 8월 21 · 28일, 9월 4일에 걸쳐 각각 법문을 들려줄 예정이다.(02)900-2448 강유신 기자

경 봉 문 도 회 성 명 서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스님 및 종무소 담당자 스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월하방장큰스님의 열반으로 초유의 방장유고사태가 발생한지도 1년 7개월째인데도 방장추천문제가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을 총림대중구성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방장추천의 안으로 두 번이나 산중총회가 소집되었으나 성원미달로 유회되었고, 이번 05년 8월 22일 세 번째 산중총회가 소집공고 되었는 바 통도사 주지스님 및 종무소측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총림의 원로중진스님들과 모여서 방장추천문제 등 산중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와 대화의 장을 한 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원로 중진스님들과 어떠한 논의와 어떠한 대안도 없이 공고된 이번 3차 산중총회도 또 유회될까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통도사 주지스님 및 종무소 측은 지금이라도 즉각 방장추천문제 등 총림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총림원로 중진스님들간의 대화와 논의의 장을 만들길 강력히 촉구한다.

경봉문도회의 기본입장을 밝힌다.

경봉문도는 영축총림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을 해오고 있는 바, 1998년 종단사태로 인하여 1999년 7월에 제14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림이 해제되었을 때, 양대 문중이 화합하여 2000년 3월에 총림을 복원시켰고, 2001년 8월 20일 산중총회에서 월하큰스님을 방장으로 재추천, 재추대하여서 총림을 안정시켰고,
그 때 현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을 2001년 8월 14일 양대 문중의 합의서 약속에 따라서 주지소임을 맡도록 전폭 협조하여 총림을 화합 · 안정시켜왔다.

2001년 8월 14일 당시에 양대 문중을 대표하는 8인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 의 서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은 원융화합하는 모습을 내외에 천명코저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1. 차기 주지는 양측 문도들의 공의를 바탕으로 경봉문도 적임자를 추천하며 방장이 지명토록 한다.
2. 부방장으로 청하스님을 추천하여 방장스님이 지명한다.
3. 종무행정 소임자는 양측이 협의구성하여 주지가 임명한다.
4. 위의 합의와 동시에 총무원의 합의는 소멸한다.

이상과 같이 합의하고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고 산중총회에서 주인한다.

2545(2001)년 8월 14일

양측 합의자

곽현문 스님 석명정 스님
성 파 스님 문무애 스님
정 우 스님 영 배 스님
김지은 스님 법 선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2549년(2005) 8월 10일

경봉문도회 일동 합 장

이 합의서 약속에 따라 경봉문도들은 당시 청하스님을 부방장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여 총림을 화합케 하였고

주지스님이 종무행정의 모든 부분도 주지스님의 권한을 완전하게 행사토록 무조건 협조하여 왔다.

현 주지 현문스님은 2001년 8월 20일 소집된 당시 산중총회에서 산중총회구성원 320명이 넘는 대중이 모인 앞에서 본인이 직접 말하기를 "차기 주지는 양측 문도들의 공의를 바탕으로 경봉문도 적임자를 추천하며 방장이 지명토록 한다" 는 등의 합의서를 낭독 공언하였다. (그 당시 산중총회와 관련된 관련 보도 : 2001년 8월 28일 불교신문 게재 참조)

산중총회 참석 구성원 320명이 넘는 대중앞에서 합의서를 낭독, 공언하여 결의하여 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총림대중들은 어떠한 산중총회의 결의된 사항도 실천되리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현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측은 지금까지도 이 합의서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일체의 어떠한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현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당시 합의서에 의해서 주지가 되었던 바 지금이라도 합의서 약속을 완전히 실천하여 총림을 화합 · 안정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연예인. 언제까지 그들을 포교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연예인들에 대한 포교는 ‘효과’의 측면에서 어느 계층보다 폭발력을 갖는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전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고 그 영향력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N세대 스타들이 손목에 착용한 단주는 포교사 이상의 포교효과를 내기도 한다. 불교계는 연예인들을 어떻게 포교하고 있으며 불자 연예인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대중문화 포교의 현주소다.

‘스타’를 포교사로 발굴·지원 시급

● 글 싣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방담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확산됨에 따라 스타들을 활용한 포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등 대중문화 스타들에 대한 포교와 불자스타를 활용한 포교는 포교인프라의 부재로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 스타들도 포교의 큰 자산이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대표적인 불자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 왼쪽부터 김민종 박세리 서민정 홍경민 박지성.

▥ ‘인기’는 포교의 자산

현재 불교계에서 연예인을 활용해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는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흥국),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회장 장미화)가 대표적이다. 불자가수를 활용한 포교집단의 모체인 대한불자가수회는 ‘음성포교를 통한 부처님 정법 전달’이란 목표로 1991년 창단됐다. 현 회원수는 200명. 월 2회 군부대, 복지관 등을 순회하며 음성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포교성과는 그리 크지 못하다. 불자가수, 탤런트, 연극인, 체육인 등 비교적 전방위적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단체들의 포교성과가 부진한 까닭은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회원들의 회비와 얼마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돼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어 질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4050세대의 인적 구성도 걸림돌이다. 대한불자가수회 김흥국 회장은 “N세대 불자가수들이 불교단체에 가입하고 싶어도 방송가에 포진한 70% 정도의 개신교 신자인 PD들의 눈밖에 날까봐 선뜻 불자라고 밝히기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종단 측의 무관심과 체계적 관리의 부재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조계종을 비롯한 27개 종단 모두 이들 포교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는 사이니까’ ‘불자 연예인이니까 좀 싸게 섭외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스님들의 마인드 부족도 문제다. 실제로 인기 가수 K씨는 “친분 있는 스님들이 싼 값에 산사음악회 같은 행사에 공연해 줄 것을 부탁하면 거절하기도 난감해 전화번호를 바꾼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개신교의 경우, ‘크리스챤연예인공동체’가 연예인 선교의 대표적 단체다. 이 단체의 경우 매월 2회 서울 대학로 및 지하철역 등을 무대로 콘서트를 연다. 공연 후 가수, 탤런트들의 간증을 통해 교회가 아닌 열린 공간에서 선교해 일반인들의 심리적 거부반응을 최소화한다.

무관심·재정난으로 관련단체 활동 부진
직장·직능단체와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

▥ 뜻만 모으면 할일은 많다

전문가들은 연예인 스타를 활용한 포교 활성화 방안으로 △N세대 불자스타 발굴 △직장·직능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불자 연예인과 종립학교와의 팬클럽 형식의 자매결연 △종단의 예산지원 정례화 △DMB활용 등을 제안한다.

4050세대에 편중된 불자 연예인들의 바통을 이을 간판 N세대 불자 연예인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 가수 김민종처럼 만자(卍) 목걸이를 착용하고 자신 있게 방송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층 연예인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대형연예기획사처럼 영향력있는 불교계 연예포교단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 장미화 회장은 “대형연예기획사같이 영향력 있고 제대로 된 연예포교단체가 있다면 N세대 연예인을 쉽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며 “각 연예단체간의 이권을 놓고 분산된 힘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많은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직장·직능 단체와 함께 법회를 열어 음성포교를 펼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전국에 분포한 직장·직능 단체는 450여 곳. 공무원, 철도인, 의료인, 교정인, 교사, 경찰, 운전기사, 산악인, 금융인 등 분야별 연합단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그 어느 영역 보다 큰 포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다.

‘불교는 특별한 사람만 믿는 종교’라는 생각을 가진 요즘 청소년들. 이들을 자연스럽게 불교에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서울 명성여중 권진영 교법사는 “인기스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공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팬클럽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다”고 피력한다.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익숙한 요즘 청소년들을 학교차원에서 불자 연예인과 팬클럽 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거부감 없이 포교를 하자는 전략이다. 이동전화와 ‘손 안의 TV’라 불리는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바로 수험생 등에게 인기 스타가 “열심히 공부하세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등등의 문자메시지나 동영상을 띄우는 식으로 포교에 응용하는 것이다. 파라미타연합캠프 또는 요즘 일반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템플스테이 등 불교관련 단체들의 행사 때 인기 불자 연예인들이 함께 참석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종단의 정책 및 예산안 법제화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활동 중인 불교연예단체들의 월 회비는 1인당 약 5만원. 이 정도의 재정상태로는 질 높은 포교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불자가수회 김흥국 회장은 “유명 불자가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불자가수들은 생계유지도 힘들다”며 “밤무대, 회갑연 등지를 돌며 어렵게 생활하는 이들에게 일선포교사 역할과 무료공연 등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종단의 재정적인 도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포교사 출신 불자연예인들을 육성해 포교의 첨병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3개 종파가 포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군부대에 인기 스타를 활용하자는 제안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거 군포교가 초코파이 등 부식지원이 주였다면 현대는 휴식과 정신적 만족 그리고 오락의 보장이다. N세대 장병들의 입맛도 비교적 값싼 초코파이에서 이제는 햄버거, 통닭 등으로 변해 약간의 물량 포교로는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 전창응 법사는 “좀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젊은 장병들이 호감을 갖는 인예인들로 무장해 군포교에 나선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수령·노병철 기자

스포츠 포교는 0점 수준

개신교, 전세계 태권도 선교 ‘호응’
선수 지원·운동교실 활용 고려를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포교도 전무한 상태다. 2003년부터 불자 체육인들이 뭉쳐 스포츠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체육인연합회(가칭)를 만들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창설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불자 스포츠인들의 유명세를 빌어 불교를 알리려고 하는 편승적인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불교계가 지금까지 스포츠 포교영역에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개신교는 1977년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스포츠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개신교 종립학교인 나사렛대학교 태권도선교학부는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개신교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포교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태권도선교협회 문대성 이사는 “유럽, 동남아, 미주 등을 비롯한 세계 40여 나라에 100여명의 태권도 선교사들이 활동 중이며 10년 간 태권도 선교로 전도된 외국인은 약 5만에 이른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에게 태권도 선교는 엄한 정신교육을 통해 제자훈련이 용이하다는 점과 일반인은 물론 왕실, 공공기관 등 상류층과의 접촉도 용이하므로 큰 전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스포츠 선교 전문가들의 말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우리나라의 태권도는 현재 167개국에 보급돼 있어 태권도를 통한 포교시장은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계가 스포츠 포교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해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종단이나 대불련에 스포츠 서포터스 개설 △건강강좌 및 체조교실 운영 △재능 있는 무명 불자 선수 발굴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포터란 대불련 학생들이 선수단 환영행사, 경기장 응원, 통역, 전화안내 등 자원봉사 활동으로 민간외교사절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례로 개신교의 ‘JESUS LOVES YOU’처럼 불교도 ‘WE LOVE 붓다’를 주제로 대형 카드 섹션을 연출해 관중의 주목을 끄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일반인들도 종교적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포교할 수 있는 건강강좌 및 체조교실 생활무용 등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교실을 여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에 대해 일부 포교사들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교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잠재 불자들을 위한 포교 전략으로 대중적인 스포츠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병철 기자

“연예인 포교사 육성·관리해야”

인터뷰 가수 겸 포교사 남강수씨



“불자연예인도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본격적으로 포교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대한불자가수회에서 가수 겸 포교사로 활동 중인 원로가수 남강수씨. 남씨처럼 포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음성공양을 펼치고 있는 대한불자가수회 회원은 김활선, 송춘희씨를 포함해 20여명. 남강수씨는 현재 수요일마다 경찰청 불자회에 나가 법문도 하고 찬불가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는 모범사례. 하지만 ‘연예인 포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로 재능과 끼를 겸비한 포교인력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남씨는 “연예인들 스스로 포교 역량을 기르고 자체적인 조직운영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연예인은 곧 포교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적절한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 재약산 表忠寺 건강 템플스테이

신라 진덕여왕 8년 원효대사께서 산문을 연 전통사찰 밀양 **재약산 표충사**에서 **건강 템플스테이**를 **상설** 운영합니다.
조상의 지혜가 담긴 장작불을 지피는 **전통 온돌방과** 음이온이 충만한 10여미터 **폭포아래 계곡 참선 체험**,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께서 직접 승병을 훈련하던 **사자평 답보**, 1000미터 고지에 위치한 12만평의 광활한 **고산 습지대 생태계 탐방** 등의 표충사만이 가지는 **자연과 불교**의 색다른 체험이 세파에 찌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연 속에서 **건강한 참 나를 찾아**, 스스로의 삶을 진실 되게 가꾸어 가고 싶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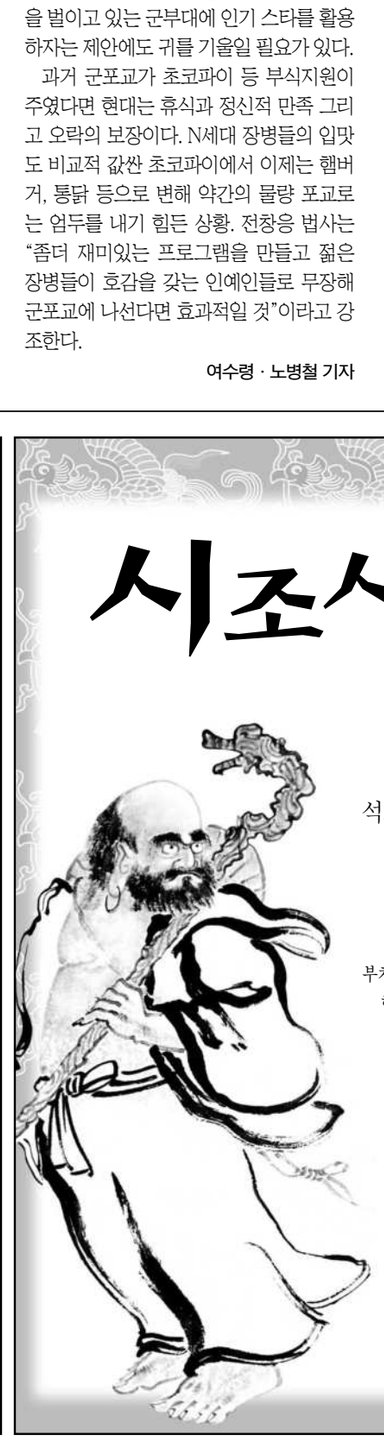
일 정	※ 둘째,넷째 주말 상시 운영(1박2일) ※ 첫째,셋째 주말 10명 이상 신청시 운영 ※ 10명이상 단체는 상시 운영 가능	
참가대상	일반, 청소년, 어린이 누구나 가능	
참가비용	일 반	3만원
	청소년	2만원
	어린이	1만원
준 비 물	세면도구, 필기도구, 모자, 등산화(운동화) ※ 수련복은 지급됩니다.	
접수방법	표충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pyochungsa.or.kr)	
참 가 비 송금계좌	농협 811079-51-011960 예금주 : 표충사	
연 락 처	055)352-1070, 1150, 4115	

주요 체험 프로그램

1박 2일	2박 3일
– 사찰예절 – 참선 – 108배 – 포행(탑돌이) – 선체조 – 발우공양 – 폭포 아래 계곡 참선 – 승병훈련지답보 – 고산습지탐방 – 주지스님 환담	– 사찰예절 – 참선 – 108배 – 포행(탑돌이) – 선체조 – 불무도 – 발우공양 – 약초농장체험 – 폭포 아래 계곡 참선 – 승병훈련지답보 – 고산습지탐방 – 주지스님 환담

대한불교 조계종 15교구 재약산 표충사 주지 야산 청운 합장
주소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23번지 전화 : 055)352-1070 / 팩스 : 055)352-1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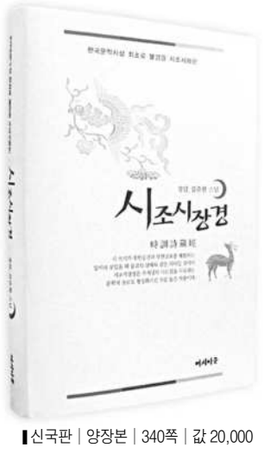
한국문학사상 최초로 불경을 시조시화한
시조시장경 時調詩藏經
경암_김준현 스님



시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는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수행과정, 가르침 등을 함축적이면서도 운율이 살아 있는 시조시로 되살려내 누구나 쉽게 읽고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했다.

부처님이 떠나시고 계시지 아니해도 보살이 간생(間生)해서 불법을 새롭게 홍포한다는 말씀이 경전에 있다. 이것은 보살의 시대적인 원력을 말씀하신 것이다. 경암스님은 이 시대의 한 인간, 한 사문(沙門)으로서 보살의 원력으로 『시조시장경』을 집필한 것이다.
– 이두스님(관음사조실 ·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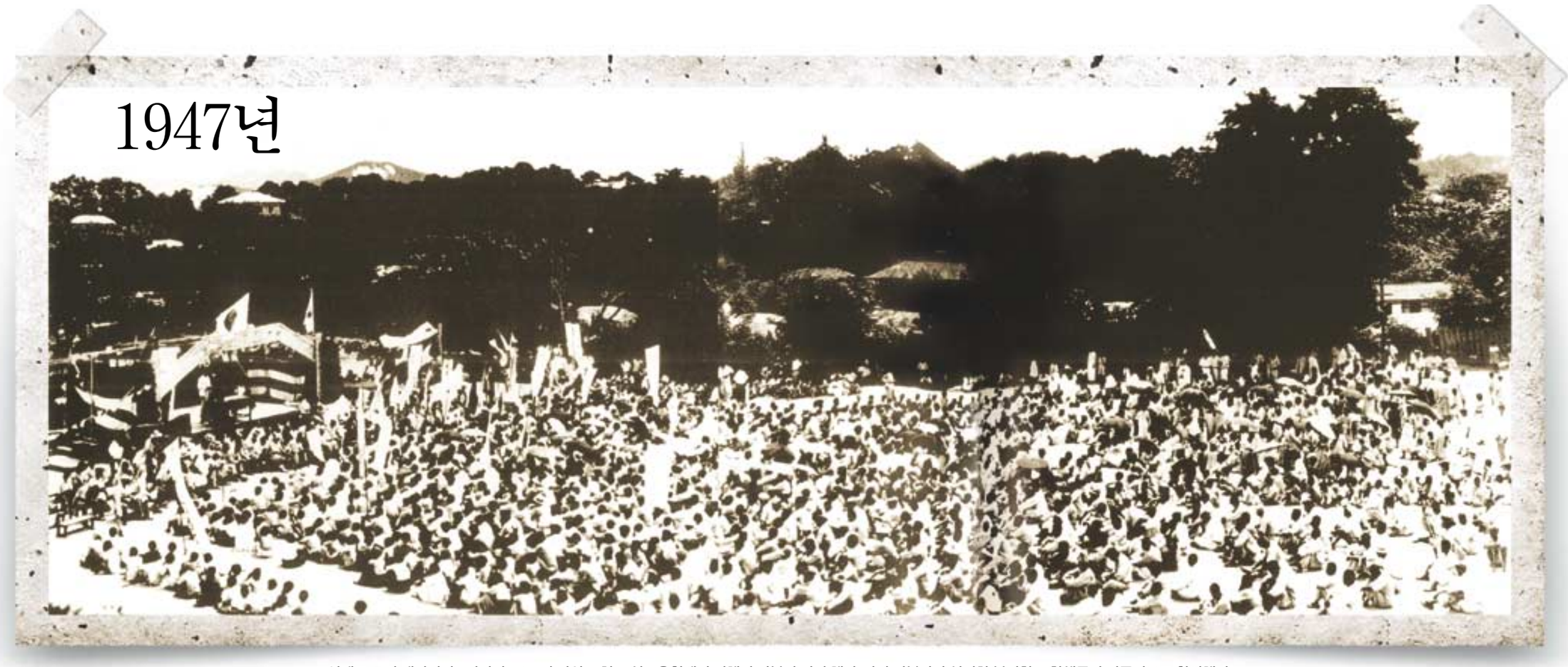


※ 전국 유명서점 판매 중

경암스님
월하(月河)스님을 은사로, 태허(太虛)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후 고산사 금강암 보덕사 묘각사 등에서 수행, 정진했다.
1977년 법화유치원을 설립했으며 현재까지 17년간 불입종 총무원장으로 종무에 임하고 있다.

신국판 | 양장본 | 340쪽 | 값 20,000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 구입문의 : 02)2004-8220



일제로 부터 해방된지 2년뒤인 1947년 강원도 현 고성교육청에서 거행된 광복절 기념 행사. 당시 건봉사가 설립한 봉명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54년 8월 25일 선학원에서 정화를 위한 제1차 비구승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통일의 시금석이 될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 낙성식이 2004년 11월 20일 현지에서 봉행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수많은 내외국인들의 호평을 받으며 활성화됐다.



1998년 조계종 사태는 폭력으로 점철돼 수많은 불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1964년 7월 21일 동국대 안에 동국역경원이 개원됐다. 동국역경원은 66년부터 정부 보조를 받아 한글대장경을 간행하기 시작했다.



1966년 2월 26일 열린 동국대 제1회 종비생 졸업사진. 두 번째 줄 중앙이 월탄, 왼쪽이 현해, 오른쪽 혜성 스님. 세스님 모두 1회 종비생이다.



1969년 불교문화의 상징인 경주 불국사 복원 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베트남 불자들이 베트남 불광사에서 열린 평화기원법회에 참여하고 있다. 불상 위로 '월한평화기원'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보인다.

'광복 60년' 사진으로 본 불교 60년

일제강점을 거친 한국불교는 비구 대처 간의 갈등과 10 · 27 법난, 1998년 조계종 사태 등 아픈 기억들도 있었지만 부처님오신날 국가공휴일 제정, 종단개혁, 인터넷 시대 개막, 한글대장경 완간 및 대장경 전산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광복 이후 한국불교 변천사를 사진으로 본다.

※사진은 사찰문화연구원 · 국정홍보처 · 김한근(부산불교역사연구소 설립준비위원)씨 등의 협조와 〈사진으로 본 통합종단 40년사〉(조계종 刊),〈한국불교 100년〉(민족사 刊),〈아 아 청담조사〉(청담조사성적사진첩편찬위원회 刊), 〈Pictorial Korea 1970〉(국제보도연맹 刊) 등의 자료를 참고했다.



1973년 10월 31일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소송 공판을 마치고 조계사를 참배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태고종이 1970년 종단 등록을 한 뒤 그해 12월 14일 첫 중앙종회 개원식 및 전국사찰 대표자 대회를 열었다.



1981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거행된 제1회 단일계단 사미계 수계식. 이때부터 조계종 승려가 단일계단으로 배출됐다.



1995년 8월 불교계 인터넷 시대를 연 부다피아가 오픈했다. 이후 불교계는 불교정보화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1994년 4월 13일 조계종 94년 개혁의 산실인 개혁회의 현판식이 거행되고 있다.



부처님의 법음을 온 누리에 전해줄 불교방송 개국식이 1990년 5월 1일 개최됐다.



1988년 12월 당시 강영훈 국무총리 사과 이후, 1990년 1월 30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10 · 27 법난 설명회가 열렸다.

청산 못한 일제잔재 어떻게 할것인가

일제치하 36년간 한국불교는 수많은 문화재들과 사찰재산을 침탈당하고 각종 제도와 형식이 '일본화'되는 치욕을 당했으며, 적지 않은 불교 인사들이 친일행위를 함으로써 극도의 내우외환을 겪었다.

8월 15일은 그 압제와 혼란으로부터 벗어난 지 꼭 60년이 되는 날이다. 광복 60주년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진정으로 독립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인식 부재 속 정체성 못 찾아

종단체제는 아직도 94년전

#교구본사 중심 체제 구축

'교구본사 중심 본말사 체제'는 일제가 한국불교에 남긴 가장 큰 흔적 중 하나다. 일제는 1911년 사찰령을 시행하면서 '본말사 체제'를 갖춰 나갔다. 이전까지 특별한 조직을 갖추지 않고 자율적으로 관리됐던 사찰들이 30개 본사와 예하 말사로 구성된 '본말사 체제'에 편입된 것이다.

조계종의 현 25개 교구본사 중심 본말사 체계도 바로 1911년 일제가 공포한 사찰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제는 여기에다 사찰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사찰 운영의 내규인 사법(寺法)을 제정해 사찰 운영의 틀을 구축했다.

사찰령 등의 제정 이유는 본사 주지를 통한 한국불교 통제권 장악이다. 일제는 주지에 대한 인사권과 사찰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해 한국불교를 식민 통치에 이용하려 했다. 한국불교는 일제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상처도 받았다.

본말사 체제를 종교적 차원이 아닌 행정편의적으로 개편한 것은 한국불교를 관료화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이 과정에서 본사 주지에게 인사권과 재산권이 집중됐으며 승가의 지계정신과 개혁의지는 크게 쇠퇴했다. 대중에게 봉사하는 직책인 주지가 대중 위에 군림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산중공의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도 큰 손실이다. 대중의 의견에 따라 사찰의 일을 결정하던 산중공의제도는 주지가 일본 관리의 임명을 받으면서 근간부터 흔들리게 됐다. 게다가 사찰령은 대처(帶妻) 제도를 합법화해 훗날 비구 대처 분쟁의 원인이 됐다.

불학연구소 박희승 연구차장은 "산중총회법, 총림법이 만들어지면서 산중공의제도는 어느 정도 복원됐다고 하지만 과도한 주지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국가 행정체계의 변화에 맞도록 교구본사 체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타진해야 할 부분이다.

#불교 재산 대거 망실

임야 농지 등 불교 정재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사찰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사찰령이 규정한 재산제도는 주지의 통제에 초점을 맞춘 기형적인 것이다. 일제가 친일적인 주지에게 재산 관리권을 부여하고 1926년 대처식육(帶妻食肉)을 허용하도록 사법(寺法)이 개정되면서, 처첩을 거느린 주지가 불교재산을 개인 소유로 넘기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완벽하지 않은 재산권 제도는 해방 이후 정화 사태와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겪으면서 결국 불교 정재의 대대적인 망실로 이어졌다.

조종래 前 조계종 총무국장은 "정화 때 사라진 불교재산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교육과 육영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찰 재산을 사사로이 팔아버리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또한 100여 곳에 달한 일본사찰들의 재산이 온전히 한국불교로 이전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일제시대 등 혼란기에 사라진 사찰 정재에 대한 연구가 종단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정교분리 원칙 훼손

조선왕조의 탄압을 받아 산으로 쫓겨난 한국불교는 일제시대에도 자주적 종단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은 일제가 한국불교를 어용화해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불교계 스스로가 자주적 종단건립에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수많은 스님들이 쉽게 친일에 빠지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해방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불교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에 박수를 쳐주고 이른바 '기도법회'를 열어주었다. 비구승에 의한 '정화'가 이승만 정권의 유착 속에서 진행됐으며, 5·16 이후 통합종단의 출현과 분쟁, 10·27법난 등도 정치권 변화에 따라 한국불교가 어려움에 빠진 모습들이다. 1980년대 한국불교는 민중의 아픔을 외면하고 각종 호국법회를 통해 군사정부에게 정당성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도 어렵다.

김광식 부천대 교수는 "불교계가 사법부 등 외부에 의존해 불교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립공원 입장료, 정부보조금 등 정부에 의존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한국불교의 자립성도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종단 난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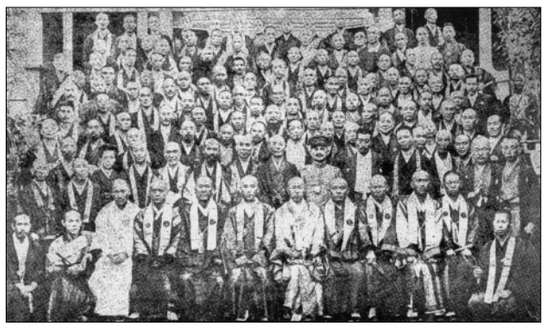
수많은 종단들의 난립 현상도 일제가 한국불교에 남긴 상처다. 일본불교의 영향인 대처승 제도가 해방 이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한국불교는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맛보게 됐다.

이후 종단은 분열과 창종을 거듭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종단처럼 종지 종풍 종조 소의경전 수행법 등의 차이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종단 창립은 '정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일제 시대부터 활동하던 불교단체들이 종단등록을 하면서, 종단 숫자는 18개로 불어났다. 불교적 종단관이 뚜렷지 않은데서 탄생한 종단은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 폐지이후 자율이라는 이름아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현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만도 26개에 달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종단까지 합한다면 무려 200여개의 종단이 활동하고 있다. 오늘날 정체불명의 종단들이 불교 이미지를 흐리는 일은 이런 데서 연유한다.

한국불교종단협 김석오 총무차장은 "불교계가 자율적으로 비불교적인 종단 등을 걸러내는 '필터링' 작용을 할 협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종지 종풍을 가진 종단들 간의 통합을 위한 노력 역시 요구된다.

강유신 기자



30본산 연합사무소 위원장 구하 스님 등 본사주지들의 1917년 일본시찰 기념사진. 30본사체제는 일제가 한국불교를 식민통치에 이용하기 위해 만든 체제로 알려졌다.



조선불교 조계종이 1942년 헌금을 모아 일제에 기증한 전투기 '조선불교호'.

식민통치위해 사찰령 공포…관료화 심화
혼란기에 사라진 사찰토지 되찾기 나서야

日에 있는 우리 문화재

10만여점 추정, 대부분 소재 파악조차 안돼
"연구라도 하자" 국제적 관심 유도해야

지난 6월 18일 동악미술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는 고려불화 한 점이 소개됐다.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7천여 위의 작은 불상을 배치한 독특한 형식을 갖춘 이 불화는 고려불화 분야의 권위자인 정우택 동국대교수(불교미술)가 일본 고베시립박물관에서 찾아냄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번 발견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한국의 불교문화재가 일본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줌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야말로 불교계의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줬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장처가 확인된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는 20개국에 7만5천여 점. 이 중 3만5천여 점이 현재 일본에 있다.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따져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0만여 점이 일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많은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다.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약탈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논리와 주장만으로 약탈문화재를 되찾아오기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고 보면, 반환을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한국불교문화재 실태조사 및 학술적 연구가 절실하다.



일본 도쿄 대창집고관(大倉集古館)에 소장돼 있는 고려후기 건칠불좌상. 사진제공=임석규

일본에 있는 한국불교문화재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 소장 문화재가 사라져버려도 알 방법이 없다.

정병모 경주대 교수(문화재학)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 못지않게, 멸실될 우려가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라며 "활발한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한국불교미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간의 협력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주축으로 해외문화재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조사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7만5천여 점 가운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2년부터 지금까지 현지조사한 수량은 7천여 점에 불과하다.

또 소장처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불교문화재에 집중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도 만족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현지조사 가운데 불교문화재를 집중 조사한 것은 1995년 일본 나라 및 교토 지역 박물관과 사찰 10개소를 대상으로 한국불화 41점을 조

7면으로 이어짐

불기 2549년 불교성지순례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상품

중국 오대산(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수험생 합격기원 및 소원성취 대법회 봉행

요금 ~~₩860,000~~ ₩699,000 (3박4일) ~~₩960,000~~ ₩749,000 (4박5일)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운항 - 양국 정부 운항허가 조건 - ✲문화탐방 ₩699,000(3박4일)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오대산 중대(자장율사 수행처)
✲응현목탑-1056건립(중국 최고의 목탑)
✲운강석굴(중국3대석굴)

■ 출발일(2005년)
1차 : 8월 20일 ~ 8월 24일(4박5일)
2차 : 8월 24일 ~ 8월 27일(3박4일)
3차 : 8월 27일 ~ 8월 31일(4박5일)
4차 : 8월 31일 ~ 9월 03일(3박4일)

■ 신청마감 : 출발 10일전
■ 신 청 금 : ₩100,000
■ 입금구좌 : 우리은행 006-173407-13-048 예금주 한진관광
■ VISA요금 : ₩24,000 별도
■ 담 당 자 :
한진관광 본사 이기범 차장 TEL. 02-726-5799
한진관광 부산지점 김문철 과장 TEL. 051-463-2115
한진관광 마포대리점 차명철 팀장 TEL. 02-717-8085
불교방송 성지순례 담당 최효상 TEL. 02-705-5302

특전
수험생 학부모에게 문수보살호신불 증정
세계적인 명상 음악가 나왕케촉과 명상캠프(3차)





공동 판매여행사 / 대승항공 730-0202 실크로드 720-9600 혜초여행 733-3900 아제여행사 730-4008

주관 여행의 명문 한진관광 후원 대한항공 BBS 불교방송 중국 산서성 여유국 / 중국 오대산 불교협회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4박 5일

일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태원 오대산	KE9853 전세기	08:00 10:10 11:35 19:00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후 점심공양후 남대 청량사 (문수보살 화현한곳) 오대산 도착후 저녁공양 호텔 투숙	조 중 석	현지식 현지식
				HOTEL 은도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2일	오대산	전용버스	전일	수상사 법회후 아침공양 동대 망해사 순례후 점심공양 중대(지장율사 수행처) 연교사 순례 저녁공양 및 호텔 휴식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은도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3일	오대산 대동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현통사, 탑원사, 대라정(케블카) 점심공양후 대동으로 이동 저녁공양 및 호텔 투숙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홍안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4일	대동 태원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운강석굴, 응현목탑 견학 태원으로 이동 발마사지후 저녁공양 및 호텔 투숙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한 식
				HOTEL 이경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5일	태원 인천	KE9854 전세기	07:00 08:00 12:50 15:55	아침공양후 진사 순례 태원출발 인천공항 도착후 해산 ✲성 불 하 십 시 요✲	조 중 석	호텔식
				HOTEL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3박 4일

일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태원 오대산	KE9853 전세기	08:00 10:10 11:35 19:00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후 점심공양후 남대 청량사 (문수보살 화현한곳) 오대산 도착후 저녁공양 호텔 투숙	조 중 석	현지식 현지식
				HOTEL 은도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2일	오대산 대동	전용버스	전일	수상사 법회후 아침공양 중대(자장율사 수행처) 연교사 순례 현통사, 대라정(케블카) 순례 대동으로 이동 저녁공양 및 호텔 휴식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홍안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3일	대동 태원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운강석굴, 응현목탑 견학 태원으로 이동 발마사지후 저녁공양 및 호텔 투숙	조 중 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HOTEL 이경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4일	태원 인천	KE9854 전세기	07:00 08:00 12:50 15:55	아침공양후 진사 순례 태원출발 인천공항 도착후 해산 ✲성 불 하 십 시 요✲	조 중 석	호텔식
				HOTEL		

※상기 일정은 출발 당시 항공스케쥴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는 여전히 우리 불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진정한 독립은 그 잔재를 벗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은 단죄를 통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내면화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찾자는 의미다. 따라서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종단, 문화재, 사찰 조경, 불교학 등 네 분야를 통해 짚어본다.

청산 못한 일제잔재 어떻게 할것인가

정신적 '잔재' 부터 뿌리 뽑아야

6면에서 계속

사한 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불교미술사를 전공하는 국내 개별 연구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직접 해당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연구자료를 축적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그리 여의치 않다. 특히 일본 사찰에 소장된 문화재의 경우 접근이 쉽지 않다.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미술사)는 "한 · 일 양국의 국립박물관이나 공공기관 사이에 협력은 원만한 편이나 일본 사찰은 폐쇄적이어서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양국 불교계가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면 그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1997년 한 · 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도 일본사찰에 있는 한국문화재 실태조사에 관해 협의한 바 있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 · 일 불교문화교류대회 등을 활용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 일 불교계가 불교미술을 공동연구한다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고 다양하다.

일본에 있는 한국불교문화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 미술사 연구를 위한 자료가 증가하는 셈이다. 신대현 사찰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술사 연구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료의 수량"이라며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증가하면 불교미술 이론 정립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한 · 일 불교미술교류관계 확인함으로써 한국불교미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동아시아불교미술사 정립하며 나아가 한 · 일 불교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도 공동연구는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익순 기자

늘어나는 일본풍 사찰조경

전통사찰의 미학 '자연과의 조화'에서 찾아
정원 · 연꽃 · 분수 · 자갈마당 등 日서 수입

일본식으로 관상수 다듬어놓은 신라시대 대표적인 명찰 경북의 B사, 탑 둘레로 잔디를 심어 '예쁘게' 화단을 가꿔놓은 경북의 W사, 절 입구 길목 양편을 왜식으로 꾸며놓은 B사와 W사, 최근 일본식으로 연못을 조성하고 분수까지 만들어놓은 경기도 B사….

사찰관계자들의 무관심 속에 일본식 조경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의 전통 사찰 조경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웅전 앞마당 정원 조성 △가이스카향나무, 갸라목, 노무라단풍 등의 일본품종 식재 및 가위로 다듬기(剪定) △일본식 연못 및 자갈마당 조성 등 대표적인 일본식 조경의 예로 꼽히는 풍경들은 이제 전국 어느 사찰에 가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친숙한 광경이 돼버렸다. 그야말로 어느 것이 우리 것이고, 일본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한국사찰은 건축지향적이고 일본사찰은 조경지향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 영향으로 일본사찰은 오밀조밀하게 정원을 가꾸고 인공미를 가미하는 데 반해, 한국사찰에는 대웅전 마당에 꽃과 나무를 도입하지 않을 정도로 정원이 강조되지 않는다.

정원보다는 자연과의 조화가 한국 사찰 조경에서는 화두인 셈이다. 이는 왕궁도 마찬가지여서,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에는 정원이 없다.

대웅전 주변에서 식물이 도입되는 유일한 곳은 화계(花階)다. 화계란 건물 터를 고를 때 옹벽과 화단을 겸한 기능을 갖는 구조물로, 건물과 건물, 건물과 자연을 연결하는 전이(轉移)공간으로서 나타난다. 화계에 주로 심은 것은 매화 산수유 목단 작약 등 유실수나 약초류로서, 관상수를 심지는 않았다.

하물며 가위로 나무를 다듬은 경우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사찰은 예로부터 순수한 자연을 부처님의 세계로 이해하고, 자연과의 동화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나무 하나 없이 탁 트인 정갈한 대웅전 마당은 대중이 예불을 올리는 공간으로 활용됐다.

반면 일본의 경우 상징적인 조형물을 통해 자연이나 정토를 사찰 안에 압축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상징주의적이고 인공적인 조경이 발전함으로써 한국사찰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가장 극단적인 것이 고산수(枯山水)정원이다. 네모난 정원에 흰 모래를 깔고, 크고 작은 돌을 배치해 산수를 표현하고 우주를 상징한 고산수정원을 통해 선적(禪的) 경지까지도 드러내고자 했을 정도다.

연못의 경우에도 일본식은 한국 전통양식과 상이하다. 한국의 전통 연못이 원형이나 장방형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 연못은 부정형(不定形)의 곡선을 이루고 있어 확연히 구별된다. 또 일본식 연못 수면이 지면에 가까운 반면, 한국 연못의 수면은 지면과 깊이에 차이를 보인다. 연못에 분수를 두는 것도 전통적인 방식과 거리가 멀다.

마당에 자갈을 까는 것도 일본의 영향이다. 자갈마당은 일본 막부시대 쇼군의 집에 닌자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깔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는 일본식 조경은 한국의 고유한 자연과 건축,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자연스레 형성된 미적 가치를 해치고, 한국사찰조경의 전통을 왜곡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반적으로 전통조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사찰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전통미가 남아있어서 경주 불국사 · 영주 부석사 · 남양주 봉선사 · 화성 용주사의 석단과 남양주 봉선사의 화계가 옛 멋을 간직하고 있다.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전통조경학과)는 "우리 조경 방식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보니, 사찰 조경이 예쁜 일본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요즘 추세"라며 "자연의 순리를 따른 아름다움, 부처님의 가르침, 실용성이 담겨 있는 전통조경은 사라져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법으로 정 교수는 △조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찰관계자의 인식 제고 △주변정비사업시에 조경 개선 △조경시 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리 절차 의무화 △조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제안했다.

홍광표 동국대 교수(조경학과 · 사찰조경연구소장)는 "우리 전통 조경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개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우리 사찰 특성에 맞는 정갈한 아름다움을 속히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남양주 봉선사 화계. 한국 전통사찰의 화계 형태가 가장 잘 남아 있다. 사진제공=사찰조경연구소



일본 교토 료우이지(龍安寺) 방장선원의 후원. 전형적인 인공 조경의 예다.



경북 W사의 법당 앞뜰. 석탑 주위에 정원을 꾸민것은 한국불교 전통방식에서 크게 벗어난다.

역수입되는 불교학

연구인력 저변 확대, 문헌학적 기초 세워야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있던 시기, 240년(1011~1251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제작된 <고려대장경>은 현존 대장경 가운데 내용이 가장 완벽한 것으로 꼽힌다. 한 마디로 한국불교 1천700년의 자존심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이 같은 자존심도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1925년 제작된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불교학자들이 <고려대장경>보다 <대정신수대장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불교학자들이 <대정신수대장경>을 선호하는 것은 표점이 찍혀 있어 읽기 편한데다, 학자들 사이에서 <대정신수대장경>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 <대정신수대장경>의 위상은 이미 세계적이다. 뒷전으로 밀려난 <고려대장경>의 오늘은 일본불교학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한국불교학의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불교학이 일본불교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일본의 불교학 연구자가 2천500여명(인도학불교학회원 기준)인데 반해 한국의 불교학 연구자는 500여명(한국불교학회원 기준)에 불과해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일본이 서구에서 배워온 것은 불교의 문헌을 발굴, 수집, 분류, 교감(校勘), 고증 주석하는 문헌학과 언어학적 방법론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치밀하게 인문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불교학 관련 자료집성 · 색인 · 목록 · 사전류 편찬에 몰두했다.

그 결과 일본은 <대정신수대장경> 외에도 <나카무라 불교어대사전(1974)> <망월불교대사전(1936)> 등을 간행했고, 대장경류만 해도 <일본대장경(1921)> <대일본불교전서(1922)> <국역대장경(1932)> <국역일체경(1933)> <남전대장경(1941)> 등의 엄청난 결과물을 쏟아냈다.

이런 참고자료들은 오늘날 국내의 불교학 연구자에게 효율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불교학계의 눈에 띄는 성과로는 36년 걸려 완간된 <한글대장경(2004)>를 비롯해 지난해 7권이 나온 <가산불교대사림>과 14권째 발간된 <한국불교전서>, 그리고 전산화된 <고려대장경> 등을 꼽을 수 있는 정도다. 일본에 비해 상당히 뒤늦은 셈인데, 큰 원력을 세운 몇몇 선각자들이 힘겹게 이끌어가고 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불교학)는 "딱히 내놓을 만한 한국불교통사 하나가 없는 현실이 우리 불교학계의 허약함을 보여 준다"며 "통사를 내지 못하는 것은 각론 연구가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래 들어 지식의 원천이 서구 여러 나라로 다양화되고, 동국대 등에서 박사가 배출되는 등 자체적인 학문역량이 강화되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오랜 동안 일본불교학 편향성이 학계를 지배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안양규 동국대 교수(불교학)는 "일본의 불교학이 훈고학적으로 흐르다보니 대중을 위한 용어 개선을 소홀히 하게 되고, 창조적인 새로운 시각이 나오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며 "일본불교학을 답습했던 한국불교학도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방 60년을 맞으면서 한국불교학계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불교생태철학을 비롯해 생명윤리 · 낙태 · 사형 등 사회현안에 대한 답을 불교전통 안에서 찾아내기 위한 연구라든가, 또 인문학으로 연구되는 불교를 "불교 없는 불교학"이라고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범 스님의 승가학이나 신앙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하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불교학)의 체계불학 등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실험이라 할 수 있다.

김성철 교수는 "한국 불교학의 활로는 전통불학의 부활이 아닌, 신앙 · 수행과의 결합에서 모색돼야 한다"며 "신앙과 수행이 종합된 진정한 불교학을 정립하는 것은 종파적 이해가 엇갈리는 일본불교학이 할 수 없는, 한국의 불교학만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불경,금책,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호신용 소장용 영가천도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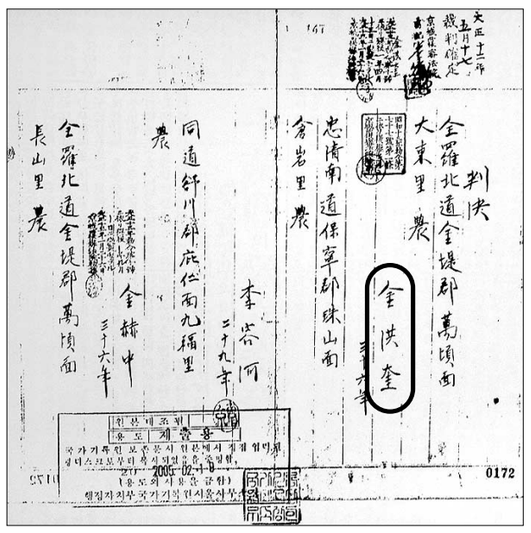
발굴 화제 애국 2代 : 탄허 스님과 아버지 김홍규

父 한평생 독립운동 子 국민정신 계몽에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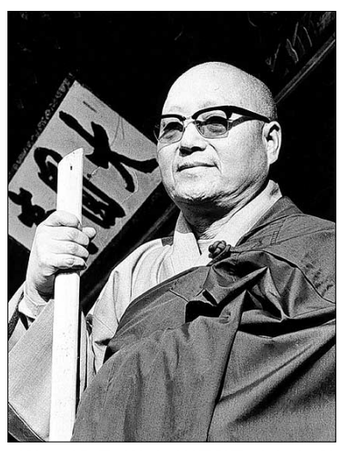
광복 60주년을 맞아 탄허 스님의 부친 김홍규 선생(1888~1950)의 독립운동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1983년 입적한 해 종교인으로는 처음으로 은관문화훈장을 추서받았던 탄허(呑虛) 스님. 화엄학의 대가로 수많은 선지식과 학자들을 길러냈던 탄허 스님의 부친이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민족정기를 바로세우지 못했던 뼈아픈 현대사 탓에 탄허 스님의 아버지 김홍규 선생의 지난 행적이 후손과 세인들의 무관심속에 철저히 외면당했다.

늦었지만 김홍규 선생은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광복 60년을 맞는 올해 8·15 기념식에서 건국포장이 서훈된다. 불교계에서 부자가 나란히 국가로부터 훈장을 추서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건국포장 서훈을 계기로 탄허 스님의 부친 김홍규 선생의 독립운동사를 발굴해 소개한다.





십만원의 독립자금을 모금했다 발각됐다는 당시 동아일보 기사(왼쪽)와 경성복심법원의 재판 결과를 담은 문서를 통해 김홍규 선생의 독립운동 행적을 발견할 수 있다.



탄허 스님은 동서양의 정신문화를 넘나드는 최고의 대강백으로 불교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았다. 입적한 해인 1983년, 한국정신문화에 끼친 공적을 인정받아 종교인으로는 처음으로 은관문화훈장을 추서받았다.

독립자금 모금하다가 왜경에 검거·투옥·고문

십수년 증거자료 찾아…올 광복절에 건국포장

탄허 스님 애국심은 독립운동가 부친 영향 커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

"전라북도 정읍군에 큰 교당을 짓고 백만 명의 신도가 있다하는 태을교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두 경찰부에서 늘 주의하여 오던 중인데 지난 음역 9월 십육인 모처에서 그 교의 간부가 비밀회의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전기 두 경찰부에서는 미리 변복한 경관을 다수히 파견하야 비밀히 수탐한 결과 과연 그들은 태을교라는 명목아래 두려운 큰 음모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그 간부되는 전북 김제군 만경면 김홍규 등을 체포…(중략)

김홍규의 집 마루 밑에서는 지화와 은화를 합하야 107,750원을 넣은 항아리 한 개를 압수하였다는데…(중략)

재작년 독립운동이 일어난 후로는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하여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達)코자 교도에게서 모집한 돈을 군자금으로 쓰기로 결의…(후략)

(동아일보 1921년 10월 29일자)

율제(栗齊) 김홍규(金洪奎) 선생은 1888년 5월 2일 '징게맹게 외배미들(넓디넓은 김제·만경 들판을 일컫는 사투리)'이라 불리는 김제평야 제일가는 부자집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명은 용규(鏞奎), 자는 민석(敏錫), 율제는 호다.

한일 합방으로 국운이 암울했던 1905년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종교에 입문했다. 그때가 17살 되던 해였다. 이듬해 증산교에 입교, 1908년 다시 보천교에 입교했다.

1913년에 태을교에 입교했고 곧 태을교 재무주임이 됐다. 증산교는 강증산을 교조로 차경석을 교주로 하는 민족종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들은 지도부의 지속적인 반일운동으로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교명을 보천교, 태을교 등으로 수차례 바꿔 명맥을 유지했다.

만세운동이 크게 일었던 1919년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그해 10월 경북지역 독립자금 10만원을 모금했다. 11월에는 태을교 60방주 가운데 최고급 간부인 목주에 올라 교단의 2인자가 됐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를 목주도인이라 불렀다. 세간에는 유학자로 출발해 불법과 술법을 익혀 도술을 부린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봤다.

1920년 9월에는 교도들과 10만1500원을 독립자금으로 마련했다. 1921년 2월 이렇게 모은 돈 10만 3070원을 임시정부에 예치했다. 당시 백미 상등품 한가마니의 값이 3원 50전임을 감안하면 이 돈의 오늘날 가치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던 1921년 독립자금 모금차 평안도로 가다 일본경찰에 체포됐다. 이 해 공주지법에서 1심과 2심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1923년 5월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상고가 기각됐다.

1924년 12월 출옥했지만 사실상 연금상태로 왜경의 삼엄한 감시를 받았다. 이무렵 보천교 시대일보 복간에도 참여했지만 감시가 심해 오래 관여하지는 못했다. 25년부터 다시 '영사(수은을 고아 만든 한방약재)'를 제조하는 독특한 기술로 매약상을 차려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나마도 고스란히 김구 선생의 독립자금으로 헌납했고 가족들에게는 한푼도 내놓지 않았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의 세력에 밀린 김구 계열의 몰락으로 치병에만 전념하다 50년 9월 28일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했다.

#잊혀진 기억…13년동안 추적

숨겨져 있던 김홍규 선생의 행적을 발굴한 주인공은, 오랫동안 탄허 스님을 곁에서 모셨던 서우담 거사(도서출판 교림 대표)다. 탄허 스님은 부친의 이름이 김홍규라는 것과 김구 선생 계열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단 두 마디만 남겼을 뿐이었다.

우담 거사는 이를 실마리로, 십수 년간 관련기록을 찾아 헤맸다. 때문에 이번 김홍규 선생의 독립유공자 추서를 바라보는 우담 거사의 감회는 새롭다.

김홍규 선생에 대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무렵이었다. 우담 거사는 "탄허 스님의 유훈에 따라 부친에 대한 정확한 기록만이라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담거사 혼자의 힘으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역사를 되짚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한국전쟁으로 각종 정부문서가 소실된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독립운동사에서 정당성이 취약했던 이승만 정권이 중국내 임정과 국내파 독립운동가들의 관련 기록을 소홀히 취급하면서 김홍규 선생과 같은 이들의 자료는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록을 찾기 위해 국사편찬위 도서관, 국립기록보존소, 법원도서관, 국회도서관, 정독도서관, 고려대도서관 등 안다녀 본 곳이 없다. 이 과정에서 1920년대 동아일보(1921.10.29자) 신한민보(1923.5.3자) 중외일보(1929.7.3자)등에 실린 신문기록으로 김홍규 선생이 독립자금을 모금하던 중 왜경에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냈다. 얼마뒤 어렵게 충남 공주에 사는 어느 개인 소장자에게서 법원의 재판기록을 찾아냈다. 하지만 김홍규 선생의 얼굴사진은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고문당한 아버지 옥바라지 해

일제의 모진 고문에 만신창이가 된 김홍규 선생을 탄허 스님은 1924년까지 옥바라지 했다. 부친은 출소 후 농사를 지으며 아들에게 한학(漢學)의 전 과정을 가르쳤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탄허 스님 성품도 이 시절 부친의 영향이다.

어려운 살림에도 자식을 가르치려는 부친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1929년 부친은 김제 제일의 천재라는 말을 듣던 아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지함의 16대 종가인 이극종가의 데릴사위로 보냈다. 그때 탄허 스님의 나이 겨우 17살이었다.

당대 기호학파의 거두 이극종 선생으로부터 <시경>을 비롯한 삼경(三經)과 <예기><춘추좌전> 등 경서를 배워 금세 통달했다. 탄허 스님은 22살이 되던 1934년 한암 스님이 계신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하면서 속가 가족·친지와 모두 연을 끊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은 탄허 스님의 속가에도 예외일 수 없었다. 독립운동에만 매달렸던 부친 탓에 끼니조차 잇기 힘들었던 시절 자식들을 가르치는 일은 사치였다.

아들 다섯에 딸 셋. 8남매 중에 그나마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이는 탄허 스님이 유일했다.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그렇듯 탄허 스님의 형제들도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속에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야만 했다.

더구나 해방이 된 후에는 자식들도 모르는 사이 부친의 독립운동경력이 이념의 색깔로 붉게 덧칠돼 있었다. 때문에 군사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 탄허 스님과 그의 속가에서는 오히려 부친에 관한 기억을 입에 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우담 거사는 "광복 60주년이 지나도록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우리사회의 수치다. 늦었지만 김홍규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삐뚤어지고 굴곡진 역사를 바로 잡는 구체적인 노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이번 건국포장 서훈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탄허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도 "매사에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이 앞섰던 탄허 스님의 평소 성품은 독립운동가였던 부친의 영향이 컸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가 사회적 화두가 된 요즘, 늦었지만 김홍규 선생의 숭고한 뜻이 역사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가족과 함께하는 서악사 음악회 대구 BBS 공개방송
●출연 : 정수라, 해바라기, 김범룡, 조항조, 박경진, 장태민
●특별출연 : 도일스님, 일봉스님, 코리안팝스오케스트라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일시 : 8월 24일 오후 7시
장소 : 예천 서악사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日 유출 '도갑사 32응신도' 김범수 교수 복원 현장

정유재란 때 강탈…원본 그대로 재현

몇 년 전, 일본에서 만난 한 · 일 정상은 수교 40년이 되는 2005년을 '한 · 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두 나라는 금년에도 영토문제(독도)를 필두로 사사건건 부딪쳐 여전히 '미운 친구'로 지내고 있다.

광복 60주년을 뜻깊게 맞는 교수 불화가가 있다. 익산 원광대학교 회화문화재보존수복연구실에서 450여년전 일본에 강탈당한 성보를 꼼꼼하게 재현해 내고 있는 김범수 교수(원광대 회화문화재보존수복학과 범해회화문화재연구소장)다.

원광대를 찾은 8월1일 날씨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한 · 일 관계처럼 후텁지근했다. 연구실에는 불화가 김범수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한창 불화작업 삼매에 빠져 있었다. 특이하다면 커다란 사진을 여러 장 놓고 사진속의 장면을 화면에 옮기는 것.

"지난 5월, 일본 현지에서 조사하며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림은 머릿속에 생생하지만 부분부분 확대사진을 보며 그리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밑그림을 마치고 채색을 준비 중인 김범수 교수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있는 우리 불화를 현상모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불화는 도갑사 대웅전에 모셔졌던 '관세음보살 32응신도'. 조선 명종 5년(1550)에 그려진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불화이다. 화기에 따르면 "인종(仁宗)비인공의(恭懿)대비가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자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으며, 영광 도갑사 금당에 영원히 봉안하도록 보낸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봉안된지 50년도 되지 않아 정유재란 때 일본에 유출되고 만다. 이후 450년간 도갑사가 아닌 일본 지은원(知恩院 · 일본 정토종 종무원)에 소장되었고, 앞으로도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 정토종 종무원에 보관돼 있는 도갑사 관세음보살 32응신도. 450여년전 정유재란 때 일본이 강탈해갔다.



원본 모습을 본뜬 밑그림에 가는 붓으로 모사를 해놓은 그림.

日 지은원 소장…국내선 처음 현상모사
현지서 사진촬영하고 색조견표도 제작

"고국의 품에 돌아오기 어렵다면 또 하나의 원본 만들어야죠"

불화를 전공한 김 교수는 세계 회화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고려불화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유출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 불화들이 소장처의 협조 없이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현상모사하여 '또 하나의 원본'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김 교수는 20여 년 전, 재료와 기법을 제대로 익히려 일본으로 건너가 석채(石彩)를 공부했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중인 '모나리자'도 모사되어 해외 전시에는 원본을 대신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일본 금릉사 벽화도 원본은 화재로 소실되고 모사된 것입니다"

국내 유일의 회화문화재보존수복학과 주임 교수로 후학들과 함께 문화재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김 교수는 '문화재를 모사하여 원본과 함께 대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모사기법이 발전하여 새로운 학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모사에는 현상모사와 복원모사가 있다. 현상모사는 원본의 현재상태를 그대로 재현해 내는 것이다. 복원모사는 원본이 제작될 당시 그대로 모사하는 것. 김 교수가 복원하는 '관세음 32응신도'는 현상모사이다. 밑그림이 끝난 화판을 자세히 살펴보니 원본의 비단천 실오라기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나타나있다. 향으로 그을린 윗부분은 약간 어둡게 채색되어 있고, 군데군데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박리된 곳의 가루분까지 사실적이다.



김범수 교수가 모사본에 엷게 채색을 하고 있다.

본격적인 채색을 위해 석채 병들을 점검하던 김 교수는 "어쩌면 이 불화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뻔 했다"며 불화에 얽힌 비화 하나를 들려준다.

1993년, 서울 호암갤러리에서 일본에 유출된 고려불화들이 전시되었다. 조선 초기 불화로 회화사적 가치가 높은 '도갑사 관세음 32응신도'도 함께 초대됐다. 전시가 끝나갈 무렵 '관세음 32응신도'를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말자는 여론이 일어났다. 일본이 강탈해 갔기 때문에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일본 지은원은 '화재로 소실됐다' '도난당했다'며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일본에 유출된 한국불화를 주목하고 있던 김 교수는 훼손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하고 '현상모사'를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하루빨리 복원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관세음 32응신도'를 영영 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연히 동료 양은용 교수(원광대)의 은사인 미즈타니 고쇼(水谷幸正) 박사가 일본 정토종의 종무원장인 것을 확인하고 양 교수와 함께 협조를 요청했다. 미즈타니 고쇼 박사도 흔쾌히 복원작업을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전남도와 영암군이 지원키로 하면서 복원작업은 본격화됐다.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분야별로 16명의 전문가가 일본 현지로 떠나 색분해, 색조견표 제작, 사진 촬영 등을 마쳤다.

"우리나라 불화나 단청은 구한말 이전까지도 석채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8세기부터 전해온 화학안료에 밀려 석채기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현상모사는 문화재 복원뿐 아니라 전통 석채기법을 찾고 계승한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복원 통해 전통 채색기법 계승 의미 커
11월 완성후 도갑사로… 학술회의도 예정

"20여년 석채로 작업을 하다보니 이제야 손끝에 감이 온다"는 김 교수는 그동안 백양사 각진국사, 선암사 조사전 7대조사를 비롯해 경봉, 탄성, 만암 스님 등 큰스님들의 진영을 석채기법으로 제작했다.

보석가루인 석채는 10여 층의 색이 산란하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희열과 환희, 신비함으로 종교적 신심을 돋우게 한다. 그러나 작업에 있어서는 채도 명도에 따라 입자의 굵기가 달라 마치 '맹인이 그림 그리듯' 힘들다. 화면이 말라야 제대로 된 색이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연륜이 쌓이지 않으면 붓을 긋는 순간까지도 '눈뜬 봉사'와 다름없다.

'관세음 32응신도'는 현상복원이 끝나는 오는 11월경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후 도갑사 대웅전에 봉안된다. <법화경 보문품>에 설해진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이 불화는 종교뿐 아니라 조선 초기 산수와 다양한 인물을 함께 엿볼 수 있어 열띤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소중한 성보가 해외로 유출돼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현상모사로라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또 하나의 원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은 어느 여름날, '관세음 32응신도' 현상모사가 한창인 연구실은 두 나라가 더불어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관세음 응신도를 연출하고 있었다.

익산/글=이준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대학원생들이 사진촬영한 원본을 본뜨고 있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 자연식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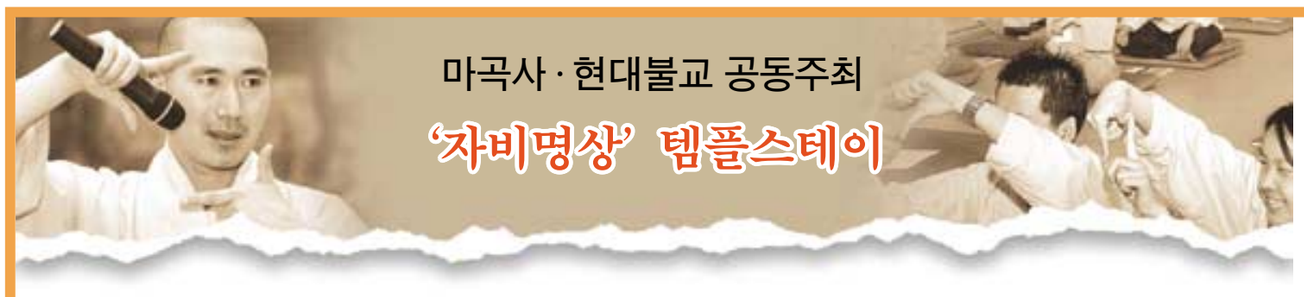
자연식 식이요법 암(癌) 성인병전문요양원 – 음식물과 생활을 바꾸지 않는 限 근원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달성 가창 우미산 황새골에 위치한 자연식의 집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공기 우미산과 삼성산 사이에서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따스한 햇볕 다양한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어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자연 쉼터이며, 요양원으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원은 자연치료원리에 의한 자연 식이요법과 원장님의 30가지 처방에 따라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성인병 및 질환에 일체의 약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생활환경과 습관을 개선하여 인체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며 조직의 향상성을 높여 질병의 증상을 예방하고 자연치유력에 의하여 병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맑고 향기로운 세상 전화 053)767-0036



마곡사 · 현대불교 공동주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6차

어린이 명상 템플스테이

개구쟁이 선재동자들이 마곡사 부처님 품안에 포옥 안겼습니다. 전국에서 100명의 어린이들이 동참한 마곡사 여섯번째 여름 템플스테이 '어린이 명상'이 7월 29~31일 열렸습니다.(5차 여름 템플스테이는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7월 27~29일 열렸습니다.) 마가 · 묘운 스님과 대천 · 충청지역 포교사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아이들은 2박 3일간 불교를 보다 깊이 체험했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네!"

내가 웃으니 연꽃이 활짝



"내가 웃으니 연꽃이 피네요". 마곡사 여름 어린이 명상을 통해 아이들은 소중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남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과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어린이 되기

7월 29일, 입제식에서 마가 스님(마곡사 포교국장)이 어린이들에게 당부합니다.

"다리가 아프고 새벽 예불때 졸려도 이 정도는 이겨내야 해요. 반찬도 풀밖에 없어요. 이번 기회에 뱃살도 한번 빼보세요. 나물만 먹으면 날씬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갈 겁니다. 선생님들과 멋진 여행 시작합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네~ㅅ!"

템플스테이 첫날입니다. 점심공양을 마친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떠나보내고 연화당 큰방에 모여 파란반 초록반 주황반 노란반 반도 나누고 담임선생님도 정했습니다. 아이들은 2박 3일 동안 펼쳐질 명상여행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 즐거워합니다.

창경이가 큰소리로 "내가 웃으니 연꽃이 활짝, 아자!! 연꽃!!"이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스스로 연꽃반이라 이름 짓고, 연꽃반의 구호까지 정한 모양입니다.

지도법사 묘운 스님은 아이들에게 가족들의 자랑거리 장점을 적어내랍니다. 아이들은 연화당 마루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아이들은 곰곰이 아빠 엄마의 장점, 나의 장점을 생각하고는 또박또박 적어 내려갑니다. 이 시간은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명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긍정을 심는 과정입니다. 묘운 스님은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이 자신을 긍정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사고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보고 칭찬할 수 있는 아이가 남을 칭찬하고 받아들이는데도 능숙하기 때문이랍니다.

6학년 현제는 아빠가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줘서 좋답니다. 라면도 잘 끓여주고 낚시를 좋아해서 회도 많이 만들어 준답니다. 결정적으로 돈을 벌어와서 좋답니다.

3학년 아정이는 누가 봐도 훌륭한 엄마 아빠를 가진 듯합니다. 이런 것도 자랑거리인가 싶습니다만, 자신은 '시력'이 좋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가 눈물을 흘리다 슬며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엄마 아빠 가족들을 자랑해보라는데도 그 아이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아파했습니다. 두 분 스님과 선생님들은 "2박 3일 동안 어린아이의 마음에 막혀있는 무언가를 어루만지기 위해 내내 마음을 써야 할 것 같다"며 입을 모읍니다.

백련암 참배하고 개울서 물장구

둘째 날 새벽 3시,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직 잠에 취해 정신 차리지 못한 듯 보이던 아이들은 이불을 개고 대광보전으로 향합니다. 도시에서만 자라온 아이들에게 새벽 3시는 무리인듯 보였지만 예불에 빠지는 아이는 없습니다. 기도스님의 목탁소리에 예불이 시작됩니다. "아금청정수 변위감로다 봉헌삼보전(반배)~" 대견하게도 아이들은 예불을 곧잘 따라 합니다.

예불이 끝나자 마가 스님은 "이제 108배를 시작할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하세요, 힘들다고 느끼는 내 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말하는지 느껴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죽비소리에 맞춰 가장 가까이 있어 고마운 주변의 분들을 위해 절을 합니다. 첫 번째 절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감사합니다"며 고사리 손을 모아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고두례(叩頭禮)'로 힘겨운 108배를 마칩니다. 곧바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마움을 고스란히 내 의식속에 담아내기 위해 눈을 감고 앉았습니다. 시원한 새벽바람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씻어 줍니다.

점심공양을 마치고 아이들은 마곡사 말사인 은적암, 백련암을 올랐습니다. 4학년 소현이는 막내동생 효상이의 손을 꼭 잡고 가파른 언덕을 천천히 잘도 오릅니다. '일현교(一玄橋)'를 건너 개망초가 흐드러진 오솔길을 따라 오르니 금세 백련암이 보입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가지고간 수박을 마음껏 먹고, 귀가 따갑도록 울어대는 매미소리를 들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연의 친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물놀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물관 건너 개울 징검다리에서 1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진을 치고 물을 첨벙입니다. 개울을 하얗게 메운 아이들은 그자체가 장관입니다. 아이들은 넉넉한 웃음의 묘운 스님과 함께 신나게 물장구를 칩니다.

지나던 어른들도 걸음을 멈추고 선재동자들이 노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쳐다봅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신나는 한여름 오후, 하루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천진불들입니다.

'어린이 5계' 받고 부처님 제자 다짐

셋째 날인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마가 스님을 계사로 대광보전에서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1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의 수계식은 그 자체가 멋진 광경입니다.

"이유없이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네, 죽이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습니까?"
"네, 훔치지 않겠습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네, 싸우지 않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까?"
"네, 효도하겠습니다!"



'어린이 5계' 수계식에서 아이들은 연비를 받으며 수계의 참의미를 새겼다.

아이들은 씩씩하게 '어린이 5계'를 모두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어, 수계식을 마친 아이들은 이날 수많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우며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인가를 확인했습니다.

5명씩 차례대로 상위에 올라가 묘운 스님, 여러 선생님들, 다른 아이들로부터 3배와 공경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상 위에 올라 앉아 합장한 채로 절을 받는 아이들은 어색한지 머쓱한 표정입니다. 연우도 이러한 상황이 어색한 듯 헤헤거리며 웃기만 합니다. 지금껏 자기가 진정으로 절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탓입니다.

템플스테이를 마친 아이들은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며 자비심 넘치는 부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이 얼굴 가득합니다.

2박3일간의 마곡사 여름 템플스테이가 끝나고 각자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범종루 옆 어슬렁거리던 백구야, 공양간 고양이야, 백련암 다람쥐야 내년에 다시보자!'라고. (041)841-6221

글 · 사진/마곡사=조용수 기자



마곡사 박물관 앞 개울에서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노는 아이들과 묘운 스님은 한데 어울려 한여름 무더위를 식혔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기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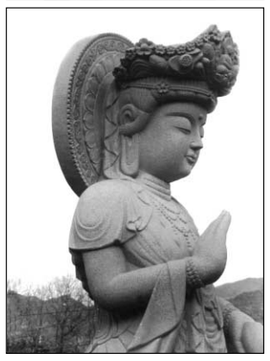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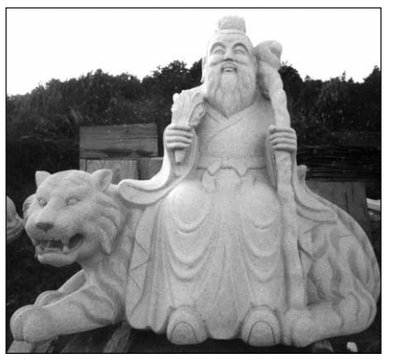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2004-8213~6 /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특유의 관정비법으로 전수합니다.

전화: 02)720-5719/720-5682

친환경 한지 영가옷
순수 한지로 제작
일반 영가옷과 치수동일
그을음 냄새 전혀 없습니다
한지는 질겨 잘 찢어지지않음
도심지사찰에 사용하기 좋음
실용실안 26799호 의장등록 22988호
054)972-9933
전호번호 메모하세요!

사찰운영(동업) 같이 하실분 모심 (스님 처사 보살)
1. 위치: 경주 2. 사찰규모 : (토지: 약3,500평, 건물: 330평)
3. 참여하실분(소자본 투자가능 한분 사찰부동산 같이 등기함)
4. 교통 환경 너무나 좋습니다
010-7228-4817

5천만원이내 수좌의 보임 토굴(터)를 구합니다
▷ 석보각
010-2379-2149

① 출가에 뜻이 있는 행자를 찾습니다.
→ 천일기도 후 수계함(40세 미만)
② 사찰에서 생활할 노부부를 모십니다(보시금 없음)
③ 총무 소임으로 사찰을 관리할 비구나 비구니를 찾습니다
011-9803-6301
041-566-0722
033)334-0730

조계종 고려고찰 내원암 산사에서 쉬면서 자기 기도하며 지낼 40-50대의 공양주를 구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거처하는 상좌인 연남스님을 찾고 있으니 속히 연락바람.
경북 054)653-1180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고량산 파주 보광사
천년고찰인 지장도량 영각전
법당안내하실 용모단정한
보살님 두분 모십니다
031)948-7700~1
031)948-4440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이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화주보살님 구함
▷ 40~50대 성실하신 분
019-280-0093

기도스님, 행자(남,녀) 스님되실분 모십니다
▷ 부산
016-9730-3003

기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경남 양산. 산중사찰
055)375-4111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미만)
▷ 부산다래사
051)261-257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나이 60세 이상 노부부를 모십니다)
▷ 강원도 평창
02)583-8609
02)581-860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5세 이하)
▷ 전북 고창군 선운사 동운암
063)562-1608
011-653-396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원군
043)260-676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절에서 상주하실 분(50대 전후)
▷ 구파발 시연사
011-261-0572
02)352-057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63)243-7657
016-623-765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
011-9723-096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746-8848

절에서 기도하시면서 계실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대. 신원확실한 분
054)654-4925

공양주보살님, 운전기사 (1종 대형) 모십니다
031)459-366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 경기 고양시
031)964-1252

조용한 산사에서 쉬면서 자기 기도하며 지낼 40~50대 총무보살 및 공양주를 구합니다
▷ 부산
051)781-3037
011-594-1526

종무소 직원 구함
신심있는 불자로서
홈피관리,
문서작성에 능한 30세 이하
부산 011-584-3535

사무직 겸 공양주 비구니 부전스님 모심
(30~50대)
▷ 조계종 사찰
011-828-3618

부전스님(수행) 모십니다
▷ 서울 송파구
019-9373-3535

행 자 모 집
천년고찰이며 전통수행도량인 본 사찰에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신심과 원력을 가진
수행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설악 백담사 033)462-6969

행 자 모 집
대한불교조계종 보선사에서는 참 진아를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원력보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맞는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수행
● 자격 : 고졸이상인 독신녀
043)294-4388,011-380-9292
대한불교 조계종 보선사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원.예술대학
사)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준 보유자 진하 큰스님
※ 재반의식교육 실시
각 사찰 모든 행사를 성심껏 사정에 따라 진행함
기초 불공의식 · 천도재 · 49재 · 바라무 · 작법무
051)556-1715 진하 문도회장 대명 합장

관음기도 성취도량
- 교통 사통팔달 산세수려 기도하는 분위기
- 최신식 실버타운 심신수련 기도처
- 독방사용, 숙식제공, 저렴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 편안하게 모셔드립니다 ● 선착순

010-9367-5982
주지 법사는 관음기도로 가피받은 사찰임



금강정사 행운 달마도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모아주는
해룡스님의 선필 달마도
서울 용산구 한강 3동 65 금강정사 해룡스님 합장
02)795-4840
010-6667-4843
서울지역상가 무료 염불 해 드립니다

자연 야생 운지 버섯
- 하곡환 - 당뇨 측정기
- 상곡환 - 혈압 측정기
- 생인환 - 간 검사 티켓

무료 제공
제품에 자신 있어야 측정기 무료 제공
생인당 011-9882-1526 / 051)206-556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안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행자 [예비스님, 남·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남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통증, 근육통 완화
"관절 · 허리통증 · 어깨결림 각종통증"

적외선조사기(통증 완화) 탄생

1.먹고 2.바르고 3.찜질하고
123시스템으로 통증에서 해방



공동개발
(주)일신코리아
(주)고려생약
대리점모집 문의전화
080-521-6666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난강학회(蘭江學會) 사주명리학 및 대 육임학 문하생 모집

문하생 모집 및 교육 목표
운명 학의 최고봉인 자평 명리 조후학과 인사 만단 점복의 제왕술 대육임의 자유로운 구사로 학,술의 상호보완을 통 하여 추명과 예단 능력을 완성 하는것을 목표로 하며 참된 공부를 체득 하기 위한 강호제현의 인들에게 길잡이가 되기 위함 입니다.

사주 명리학
격국의 기본 연해자평 부터 조후의 정수 난강망 까지의 체득과그 외에 실전응용 이론에 입각한 말문을 확실히 트는 학습과정을 수료 할 수 있습니다.

대 육임학
육임대전,대 육임심경.대 육임 비본. 육임 지남.육임 역지.육임신과 실전 감정법.육임 필법부.육임 정해등의 다수의 육임 교습서로 수업 합니다. 육임은 일명 삼전사과(三專四課)라고도 부르는 점술이다. 육임은 대단히 오래된 5천년의 검증된 역사를 지닌다. 주역과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점술의 황제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방법도 이론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도나 명상을 통해서 감지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실제 풍부한 임상과 이론을 겸비한 경륜자의 지도 아래에서 학습 하여야만 이론의 적절한 대입이 용이 해 진다. 단지 책을 펼쳐서 되는 그런 유형의 학문은 결코 아니다. 고로 수행자가 체득 하기에 누구 보다 용이한 학문 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난강학회 학회장 등명 서정길 님의 을유년 국운 예측을 통해 육임의 진수를 이해 할수 있다. 05년 1월3일자 주간조선1836호에 기고된 05년 을유세년의 국운 정세 예견은 점복의 제왕학 육임학에 의한 추론 임을 밝힙니다. [weekly.chosun.com]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가장 비중있게 취급된 내용은 7월북한 6자회담 복귀와 사상 유례가 없는 7월중 주가 1,100 P돌파의 여부가 세인의 관심을 끌던 사안 이었습니다.

[서정길 - 난강학회] "양력 7월, 주가 1100 포인트 돌파할 것" "북한 7월 6자 회담 복귀"

을유년의 기운은 퇴축退縮의 형세다. 마찰과 대립이 계속되지만 궁극적으로 기운이 쇠하면서 수그러드는 형국이다. 열린우리당은 4월 재 · 보선에서 패하겠지만 국회에선 절반의 세력을 유지하게 될 것 같다. 다른 당에서 의원들을 영입해 오거나 세력제휴를 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일의 힘은 약해지겠지만 정권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북핵' 관련 6자 회담에 북한은 억지로 끌려나오게 될 운세다. 시기는 양력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식적 태도를 여전히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가시적 결과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나려면 2009년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문제에 대해 북한은 4월부터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제도상 커다란 개혁이 있지 않을까 싶다. 파 破와 생 生이 함께 나와있다.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경제 개혁을 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형국대로라면 북한은 바닥난 원조를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난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 탈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올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외교관계, 특히 대미관계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파병은 연장되고, 그로 인해 국제적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며, 교역 · 무역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쌀 시장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도 더 이상 줄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위축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지,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니다. 올해의 화두는 경제다. 을유년에서 경제를 의미하는 글자인 유酉 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2005년의 국민 생활은 몹시 곤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민심이 급속하게 이반, 집권층과 괴리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혼선을 빚으면서 잇달아 무리수를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를 얻기 위해 열을 쓰는 형국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백약百藥을 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폐단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주가다. 증시는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다 양력 3월부터 상승, 7월경에 1100포인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육임학은 天,地,人 삼재의 중심인 人을 위주로 하는 학문 임으로 天氣, 地氣 역시 자연스럽게 밝혀 낼 수 있는 학문 입니다]

- 육임 명리기초반 수강료 : 월 30만원
- 육임 명리기초반 수강 기간 : 12개월
- 강의시간 : 매주 월,수 일일 3시간
- 강의장소 : 지하철 2호선 2번출구앞 4층 난강학회

※ 학습 자료는 사정에 의해 변경 될수 있습니다.
문의처: 02) 393-2471
011-9016-2471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 법당 : 15평
● 요사 : 50평
● 부지 : 35,000
● 가액 : 5억7천

● 위치 : 부산
● 법당 : 30평
● 요사 : 20평
● 부지 : 76평
● 가액 : 1억8500

● 위치 : 부산
● 법당 : 24평
● 요사 : 5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3억 6천
※ 일반 부동산 및 사찰 교환가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①분당목조사찰-9억5천
②강남포교당100평-월176만원
③판교근처사찰140평-11억
④판교근처나대지100평-6억5천
⑤여주사찰2000평-3억
⑥광명사찰350평-12억
◆ 1억~10억사찰많음.투자상담

※ 직원,공양주,기도스님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 천년고찰 아래 마을
● 건물 : 주택 30평, 불상 모심 대지 500여평, 1600여평
● 가액 : 2억

043)832-6144
043)832-2090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강서구 녹산동 부근 경내에 500년생 괴목 2그루 (부산시 보호수)있음. 420평
● 법당. 요사(큰방1, 각방3) 등기필
● 가액: 3억 2천만원

010-5655-1250
051)973-4562
051)941-8989

포교원(철학)안내

● 위치: 서울 강서구 화곡동 (2, 5호선 1분거리)
● 4층건물중 2층 평수 30평 유동인구 많은 시장입구위치 모든시설완비, 법당최상급 삼존불모셔있음,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시설금 합 5천2백만원 월 70만원

010-8527-8747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40평
● 법당 : 12평
● 요사 : 12평
● 가액 : 2억 3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 평수: 110평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시설비 별도)

※ 능력있는 분에게 좋은 조건으로 양도

011-436-0097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2층건물의 2층
● 법당 15평, 전체 32평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2백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6백만원

016-640-8133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읍내
● 대지: 192평
● 법당: 30평
● 요사채: 30평
● 산신각 각 10평(2층)
● 가액: 2억4천만원

011-879-7551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랜드지역
● 토지면적 2450평 건축허가면적 1000평 (팔각대웅전60평,팔각지장전 30평) 총공사비 소요 5억
● 가액: 3억

061)783-0408
018-312-0108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평수: 600평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 (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7층석탑 전망좋고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7억3천만원

011-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평창
● 부지 : 5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3억
※ 산세 및 계곡 좋음

● 위치 : 서울시내 지하철역 100m 내
● 부지 : 62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
● 가액 : 10억
※ 역사 깊은 도심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원주 미륵산 산세최고 명당터 사찰
● 원주 충주 10분거리 중간위치에 있음
● 평수 종교부지 포함 1239평
● 법당 요사 건물 2동 40평 등기 외 부속건물 3동
● 가액: 7억3천만원

011-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통영시
● 법당: 약 20평
● 건물: 3동(큰방2개 작은방7개 전부 심야보일러)
● 대지 등기필 250평
● 사용할 수 있는 터: 약500평
● 가액: 1억5천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840-8277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서부정류장 근처
● 2층건물에 2층 약 75평
● 시설완비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300만원 절충가능
● 주차장완비, 포교적지

011-308-4225

사찰안내

● 위치: 서울 강동구 길2동
● 평수: 40평
●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 30만원
또는 보증금 4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2)488-3141
018-237-0648

사찰터안내

(임야 / 준농림지, 이만평 / 일억천만원)

● 위치 :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거창에서 약20분, 마을에서 1.5Km)
● 해발 약600m, 황매산 동북방줄기의 양명한명터. 진입로(농로)포장됨, 약300m 전방까지 전기들어옴, 약수및 계곡물 있음
● 현지답사가능일: 화, 목, 토, 일에만가능

017-546-7010
(불통시는 문자메세지요함)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구미시 소재
● 부지 : 140평(3층 건물중 3층)
● 법당 : 100평 (방4개, 옥상 사용 100평)
● 가액 : 1억 9천만원
● 특징 : 도심 포교당으로 법당 시설비만 1억이 투자된 멋진 도량임

● 위치 : 부산광역시
● 법당 : 60평(방2개)
● 보증금 :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3000만원
● 특징: 지하철역세권으로 시설 A급 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포교원안내

● 위치: 마산시 부림동 부림시장 입구
● 평수: 60평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585-7521

포교당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신정동
● 지하 1층 60평, 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는 스님 불사관계로
● 능력있는 분에게 좋은조건으로 양도

011-9511-8656

사찰 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청주대학교 50m
● 평수 : 약 60평
● 집기 일체
● 보증금 포함 4천만원 월세 50만원

011-276-1714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부여, 대로변 100미터 인접
● 대지: 200평, 2층(80평) 정원양호
● 법당 1층(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2층 (방2, 거실 주방)
● 가액: 1억 5천

011-9805-6747
041)832-1747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서울에서 1시간30분)
● 화장터 장례예식장 300m사이
● 법당납골당 최고 명당자리
(민원없음)
(건축설계, 토목공사 완료)

● 위치: 경기도 광주 (서울에서 30분)
● 대지: 290평 건평: 110평
새통나무 기와집 2동
대웅전 요사채 방8개
● 경기도 광주사찰 투자하여 운영하실분 모심

011-9109-3660/031)767-0837
011-9004-3613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음성 읍내
● 대지: 100평 사용
대웅전: 목재 단청 10평
요사채: 2동(각각 15평, 25평)
● 가액: 1억7천만원
포교당으로 사용 적합

043)872-4270
010-3161-4293

사찰안내

● 위치 : 강릉 I · C 부근 천혜의 소나무 자연 조경
● 부지 500평, 노천 미륵 법당
● 법당 30평, 요사 30평, 산신각
● 가액 : 2억
(융자 6천만원 포함)

011-452-8374
033)644-3149

암자 터 안내

● 위치: 경주시 산내면 건천I.C에서 10분거리
● 평수 : 1,160평
● 건축허가면적- 주택 25.7평, 창고 14평
● 가액 : 평당 7만원
※ 조용하고 물이 좋음

055)337-7774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월천역에서 5분거리
● 평수 : 상가건물 53평,옥상 55평
● 시설 : 삼존불 외 집기일체 주방, 화장실, 응접실, 방 2개 시설A급, 시장입구 주차장완비
● 아파트 주택 밀접지역, 위치좋음
●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꼭 필요한 분 연락바람

017-508-2675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대로변, 역세권 유동인구 많고 위치 최고 좋음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배란다.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7324-5115

토굴안내

● 위치: 지리산
● 전기, 길없음
● 문의전화

055)884-5763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220평, 건평 60평 법당, 요사채 2동
● 전세 : 2억5천(절충가능)

02)762-2204
02)745-6939
011-244-2083

사찰 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 평수 : 33평, 시유지 20평
● 법당, 요사, 부엌별도 ● 가액 : 7천 7백만원

016-796-6216

● 위치 : 충북 청원군 낭성면
● 대지 : 466평, 2층 법당 26평
● 요사 : 26평, 창고 30평 ● 가액 : 1억 6천

016-467-5822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 울주군 최적지
● 대지 315평, 전 260평 임야 115평, 총 약 690평 대웅전 40평 요사채 2동(36평)
● 가액 : 4억 4천만원

010-3013-8150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3층건물중 3층 60평
● 큰방2, 거실, 공양간, 화장실2개
● 불단 A급. 옥상 독점 60평
● 가액: 보증금 1천 월 60만 또는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032)519-1108

사찰안내

● 위치: 부산광역시
● 전세: 1억 3천만원
양도: 4억
● 대지 2000평 건물 4동
● 절충가능함

016-591-3510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역 2분거리. 시장내 위치
● 3층 건물 중 2,3층
2층 법당 사무실 스님방
3층 요사채 방3개, 공양간 거실. 시설 일체 완비
● 시설비 1700만원(절충가능)
● 가액 : 2층만 사용시- 1천만원,월80만원
2,3층 사용시-1천만원 월 100만원

019-9264-7000

기치유사 수련생 모집

교육 기간

일반반 : 8월 11일(목) 오전 10:30~12:30(12주과정)
8월 12일(금) 오후 7:00~9:10
속성반 : 8월 20일(토) 오후 2:30~5:30(한달 4일과정)

참고 서적 기치유와 기공수련/기치유학(윤한흥 지음)

수련지도 : 윤한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윤·기치유 명상 수련원

12일이면 기치유사가 될 수 있다!

기치유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기를 이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요법으로서 마사지, 척추교정 등 물리적 요법과 심리치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요법 입니다

이 치유법은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상기병, 삼차신경통, 간경화, 통풍, 암, 류마티스, 당뇨등 난치, 불치병 외에도 수술 직후의 빠른 회복이나 유아, 애완 동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 gi-clinic.pe.kr 02)3482-5032

후원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 (주)명상신문

소원성취 기도도량

봉화 약수암

봉화에 위치한 **약수암은 부처님의 가피와, 산신각의 산신 할아버지의 영험함, 그리고 경내 석간수로 흐르는 약수의 치유력**으로 고통받아 오던 신도들이 건강을 되찾고, 소원하던 바를 이루어 가며 점차 기도도량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난치병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김순분 보살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지병으로 삶을 포기했던 박정희 보살님.... 약수암 부처님께 의지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한 결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님들 또한 약수암의 기도로 원하는 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약사암

삶의 끝에 서 있다고 절망하는 신도님들께 마음과 질병의 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약수암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돈보다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2리 약수암
(분천역 바로 뒤 /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 현동, 울진방향)
054)672-7932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영산범음집 한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패집 카세트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탈종공고

● 사찰명 : 신흥사
● 대표자 : 전진우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남천면 흥산 2리 43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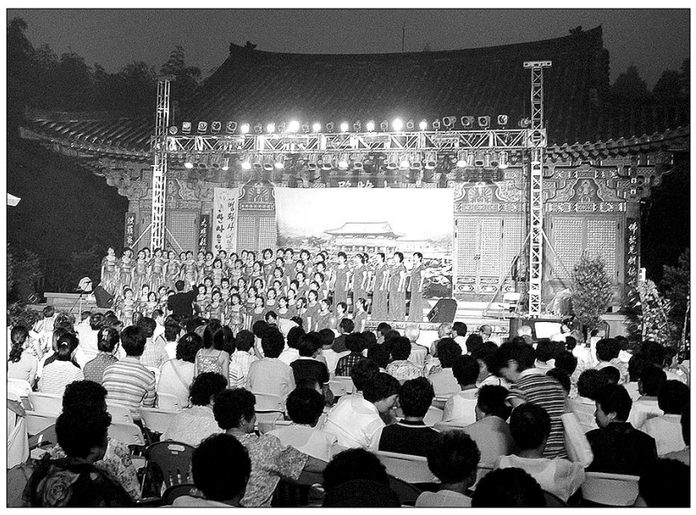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공고함

2549(2005)년 8월 5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뜻 계승해 지역 화합 다지자"

제주 법화사 장보고 대사 다례재 및 연꽃축제 열어



7월 30일 제주 법회사에서 연꽃축제를 겸해 열린 장보고 대사 추모다례재.

蓮 이용한 사찰음식 체험도

"법화사를 창건하고 불법을 수호한 장보고 대사 영전에 백련 꽃을 우려내어 공양 올립니다."

7월 30일, 제주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을 비롯한 각 사암 스님과 지역 불자, 김태환 제주지사, 강상주 서귀포 시장 등 기관장 그리고 제주시민 1500여명이 법화사에 모였다.

1000년전 제주지역에 출몰하던 해적을 소탕하고, 법화사를 중심으로 탐라불교를 꽃피운 장보고 대사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제1회 법화사 연꽃축제를 겸해 열린 장보고 대사 추모다례는 차를 비롯해 향, 등, 꽃, 과일, 마지와 함께 육법공양 의식으로 펼쳐졌다. 이날 광향 차인회 다인들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화사 구품연지에 핀 연꽃을 채취해 대웅전 앞 월대에서 차를 우려내고, 법당 안에 봉안된 장보고 대사 영전에 올렸다.

다례에 이어 '천년세월을 넘어 법화사에 핀 연꽃이야기'란 주제로 열린 연꽃축제에서 주지 시몽 스님은 "1000년 전 정토세계를 구현하고자 법화사를 창건하고 지역민을 구한 장보고 대사의 뜻을 계승해 종교적 거부감 없는 지역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음포교사 지범 스님과 제주시 교향악단, 지역 음악인이 출연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을 주제로 한 음악회가 펼쳐졌다. 또한 구화루와 경내에서 체험행사의 일환으로 백련차 시음과 연 국수, 연자약밥, 연잎쌈밥 등 '연'으로 만든 다양한 사찰음식이 선보였다.

한편 법화사는 1200년 전 창건되었으나 18세기 폐사되었으며 1982년부터 17년 동안 8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마치고 대대적인 복원불사를 펼치고 있다. 최근 3000평 규모의 구품연지와 구화루를 복원해 불교계와 지역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끼 맘껏 발휘하자!

금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재능살리기 나서

그래피티, 캐릭터 창업 등 인기

8월 4일 금정청소년수련관(관장 정만).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수련관 뒷벽에 낙서를 하고 있다. 그래도 누구 한사람도 야단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선생님이 벽에 낙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벽에 공식적으로 낙서를 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 프로그램은 금정청소년수련관이 마련한 뒷담화(그래피티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벽을 그림으로 장식하는 그래피티를 배운 청소년들은 창의성이 돋보이는 그들만의 도안으로 거리의 벽을 꾸미는 봉사활동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정청소년수련관은 여름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그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낵바 창업하기 '쫌' 프로그램과 캐릭터의 개발에서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캐릭터 개판치기' 등을 열고 있다. 4일에는 이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열리는 날이라 60여 명의 청소년들로 수련관이 북적 거렸다.

특히 2005년 문화관광부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캐릭터 개판치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개발하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해 봄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직업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금정청소년수련관 윤희선 과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면세계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함께 지내며 밝아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며 "요리, 그림, 캐릭터 개발 등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낙산사, 주민 위한 산사음악회

18일 해수관음상 특설무대서

지난 4월 불의의 화마로 전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낙산사에서 상생과 화합의 음악회가 열린다.

낙산사(주지 정념)는 8월 18일 저녁 7시 30분 해수관음상 특설무대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양양주민들을 위로하고 낙산사 복원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세종솔로이스츠의 연주로 꾸며질 예정이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은 "8월 3~19일 열리는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일환으로 산사음악회를 준비했다"며 "고통 받고 있는 양양주민들이 잠시 나마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한·몽 불교교류 본격화

협회 실무진 협장답사

유치원 건립 등 논의

한국과 몽골 불교계간의 다양한 문화교류사업이 구체화되면서 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한몽불교교류협회(이사장 지성) 사무총장 선광 스님, 이수찬 사무국장, 정기조 이사 등 실무진 3명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한국과 몽골의 불교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몽골을 방문하고 양국 불교계간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선광 스님 등은 몽골불교 총본산인 간단사의 초이참즈 스님 등을 만나 재가불자 교육을 위한 불교계 유치원 건립과 경전간행을 위한 출판사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간단사 불교대학 및 동화사 승가대학 간의 교류를 위해 조만간 간단사가 추천하는 몽골 스님을 유학생으로 받아들이고,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의료인과 포교사, 일반 봉사자들로 구성된 의료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한몽불교교류협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구성해 사업추진 여부를 확정하고 결정 되는대로 양국 불교계가 구체적인 공식 협정서등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인각사, 삼국유사 문화제 다채

제1회 일연문학상에 나희덕씨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가 2006년 일연스님 탄생 800돌을 맞아 5회째를 맞는 삼국유사 문화축제를 다양하게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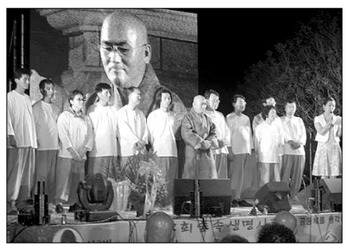
8월 8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삼국유사와 민족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일연학 학술 강연회에 이어 12일에는 일연성사 열반 제716주기를 맞아 오후 3시부터 인각사 국사전에서 '추모다례재'를 봉행한다. 또 오후 7시부터는 국내 최고 인기 가수들을 초청 TBC 개국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산사음악회를 진행한다. 이와함께 일연스님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4년간 개최해 온 세미나 내용을 묶어 <일연문화>를 창간, 학계와 교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일연 스님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1회 일연문학상에 시인 나희덕 씨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일연신인문학상에 김영수 외 6명이, 청소년 문학상에는 김예슬 양이 당선됐다고 인각사는 밝혔다. 시상식은 8월 12일 오후 3시 군위 인각사에서 열린다. **배지선 기자**

자연·인간 상생의 의미 되새겨

남해 화방사 생명사랑 음악회 개최



화방사 주지 효천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해 화방사(주지 효천)가 7월 30일 '제3회 숲 속 생명사랑 음악회'를 열었다.

화방사 대웅전 앞에 꾸며진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천년 세월을 품은 소나무가 더할 수 없는 무대 장치가 되고 계곡을 타고 흐르는 시원한 바람이 배경 음악이 돼 참가한 3000여 사부대중의 심중을 흔들었다.

특히 이 음악회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남해 사람들의 모임(대표 효천)'이 주최한 행사로 인간과 자연 생명문화라는 공통의 화두를 들고 출범한 이 단체의 공동체 의식이 잘 드러나는 행사였다. 남해 군민은 물론 피서철 남해를 찾은 이들에게 산사의 아름다움과 자연과 어우러진 음악을 선사하기 위한 각별한 배려가 담긴 음악회였기 때문이다.

남해 사람들의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효천 스님은 "자연과 하나 된 이 무대에서 본래의 마음자리를 한번쯤 되돌아보고, 내면의 깊이를 가늠해보면서 진정한 생명사랑의 가치에 눈뜨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음악회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가수 최성수, 신효범, 김란영, 하유 스님, 화방사합창단 등이 출연했으며 노인복지시설인 화방동산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도 함께 해 훈훈함을 더했다. **천미희 기자**

공주 마곡사 등 6개 사찰

충남도, 템플스테이 적극 지원

충청남도가 도 차원에서 템플스테이를 적극 지원한다.

충남도는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 도내 관광자원 다양화를 위해 관내 6개 전통사찰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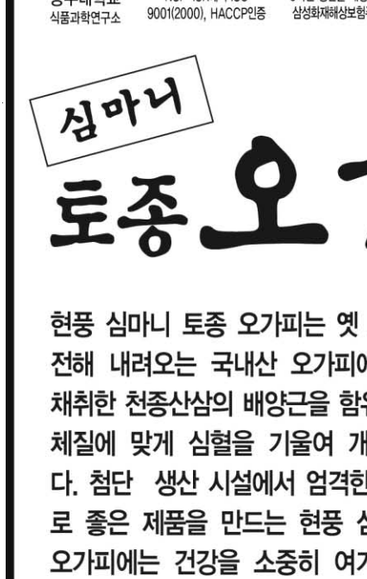
충남도가 지원키로 한 사찰은 공주 마곡사·갑사·영평사, 계룡산 무상사, 예산 수덕사, 서산 부석사로, 이들 사찰은 현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해당 사찰 인근 도로변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연내에 설치하는 한편 이들 사찰과 템플스테이 운영 프로그램을 도청 관광안내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당 사찰 주변을 불교문화 교육장 및 산사 휴양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직지찾기 유등환경문화축제

9월 3~4일 청주 무심천서



7월 29일 청주청원불교 사암련 스님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불교의 문화유산인 직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불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주청원사암연합회가 9월에 '제1회 직지찾기 유등환경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청주청원불교사암연합회(회장 각의)는 7월 29일 회의를 갖고 9월 3~4일 이틀간 청주 무심천변에서 축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열리는 유등환경문화축제는 전통등 전시회, 불교전통의식 재현, 풍물공연 등 축하공연, 직지찾기 홍보 영상물 방영 등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대전 유성구 시니어클럽 개소



대전 시니어클럽 관장 장곡 스님과 염홍철 대전시장(장곡 스님 왼쪽 옆)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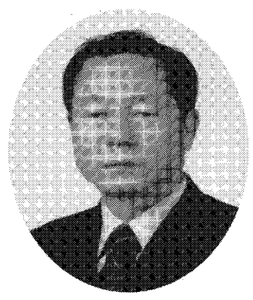
대전 시니어클럽(관장 장곡)이 유성구 노은동에 '유성구 시니어클럽'을 마련하고 8월 3일 개소식을 가졌다.

대전시니어클럽은 조계종 복지재단이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아 공주 갑사가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기관으로, 대전시니어클럽(母기관)의 자(子)기관인 유성구 시니어클럽 개소는 중구와 서구에 이어 세 번째다.

2002년 문을 연 대전시니어클럽은 유기농산물재배판매, 베이비시터, 도시락판매, 구두수리, 포장마차, 지하철 도우미 등의 사업을 통해 올해에만 18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06년까지 1000명의 일자리를 목표로 사업을 전개한다. **한명우 기자**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등374-2번지
전화: 062-266-6693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55-1114

일주문



호국연승사에서 수계법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현성 스님은 7월 31일 화천 7사단 호국연승사에서 300여 국군장병을 위한 수계법문을 했다.



원효종 총무원장 취임법회

원효종 총무원장 무진 스님은 7월 28일 울산 목련암에서 300여 종단 중진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대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미륵종 임시종회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은 8월 3일 양산 대인사(종정 주석사찰)에서 임시종회를 개최하고 중앙 종회의원과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해인종 하계수련대회

해인종 종정 혜지 스님은 8월 23~25일 2박3일 동안 울산 보현사에서 제2차 종도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051)312-3777



서울 연꽃축제 개최

서울 봉원사 주지 구해 스님은 8월 5~19일 서울 연꽃축제를 봉원사 대웅전 앞 특설도량에서 열고 있다.(02)392-3007



화엄불교대 여름수련회

화엄불교대학장 평상 스님은 7월 23~24일 무주 안국사에서 70여 불교대학생이 동참한 가운데 '1일 출가, 평생불연' 주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가사불사 입재법회

남양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8월 9일 가사불사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회향법회는 9월 26일 열린다.(031)527-1951



천안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개최

천안불교사암연합회장 대원 스님은 7월 30일~8월 1일 2박3일 동안 천안불교회관에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불효자는 웁니다' 출판기념회

원로 불자 작사가 반야월씨는 8월 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고록 <불효자는 웁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부산불교신도회 지리산 명상기행

부산시불교신도회 류상영 청년분과위원장은 8월 13~15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2030 지리산 명상 기행'을 떠난다.(051)853-2021

"부처님 가르침 인성교육에 접목"

신임교육혁신위원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사진)이 8월 4일자로 임기 2년의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장(장관급)으로 임명(교육감 겸임)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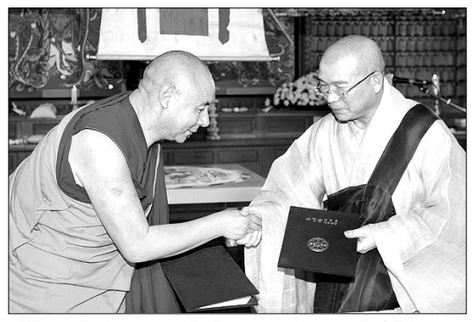
설 교육감은 민선 부산광역시교육감을 두 차례 역임하면서 독서운동 지원시스템 구축, 고 3학생을 위한 고교학점 인정제 등 공교육의 틀을 깬 새로운 교육개혁 시책을 추진해 관심을 모아왔다.

설 교육감은 '최고의 교육가는 바로 부처님'이라는 신념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인성교육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실업인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혁신위원회는 학부모 · 교원 등 교육 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 방향 정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2003년 7월 30일 출범한 기관. 위원장과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초 · 중 · 고 · 대학 교육 등에 실시될 각종 교육정책을 입안한다.

천미희 기자

봉은사, 티베트 규토 사원과 자매결연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사진 오른쪽)과 규토 사원 툽텐 직메스 스님이 자매결연서를 교환하고 있다.

한국 사찰과 티베트 사원 간의 결연식이 7월 31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에서 열렸다. 본사 주최로 열린 2차 모래만다라 특별전 회향식을 겸한 이날 행사에서 원혜 스님은 규토 사원 툽텐 직메스 스님과 자매결연서를 교환하고 티베트 학인 스님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약속했다.

이로써 봉은사는 본사가 진행하는 '한국-티베트 풀뿌리운동'을 통해 결연을 맺은 첫 번째 한국사찰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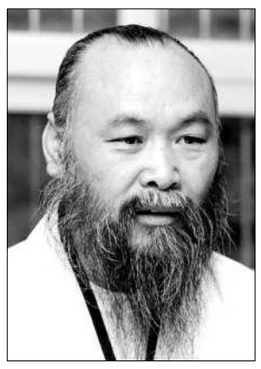
봉은사는 앞으로 1개월에 3명씩 1년간 총 36명의 규토 사원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규토 사원과 함께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의를 다지기 위한 교류활동을 전개한다. 이날 원혜 스님은 "본토에서 쫓겨나는 어려운 여건 속의 티베트 불교를 돕기 위해 봉은사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향식은 7월 25일부터 1주일 동안 조성한 모래만다라를 모두 허문 뒤 경내 연못에 모래를 흘려보내는 순서로 마무리됐다. 특히 원혜 스님은 티베트 스님들의 양해하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모래 만다라를 부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상희 기자

침술 봉사 확산 위해 대학 설립

美 LA에 한의대 10월 개교 이홍재씨



1974년부터 불교봉사단체 '자비의 손'을 통한 무료침술 봉사에 진력해온 이홍재(57 · 사진) 세계침술봉사협회장이 최근 미국 LA에 한의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의 명칭은 'University of American Science.'

침술 등 한의술과 현대 회사경영 기법을 가르칠 한의학과 경영학, 언어연수 등 세 가지 과정이 올 10월부터 개설될 예정이다.

이 회장이 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십여 년 동안 인도 바라나시 등지에서 진행해온 무료 침술봉사 활동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기 때문.

"자원봉사를 하다보니 현지에 생겨난 봉사센터와 침술대학이 수십 개입니다. 미국에 한의대가 생기면 이를 통해 침술봉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미 멕시코 쪽에서도 한의대를 건립해 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회장이 인도 침술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93년 인도에서 고아를 양육하는 '아난다마르가'란 단체를 만나면서부터. 100여 명 고아를 위해 한달 1천 달러를 지원하다가 그해 인도 방문길에 침술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일주일 봉사하고 돌아오는데 아쉬움이 너무 커 조금씩 봉사기간을 늘리다보니, 인도 전역을 돌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됐습니다."

올 6월에도 이 회장은 인도 파트나, 담마르, 스리나가르, 란치를 돌며 침술대학 제자들과 함께 하루 1천 5백여 명에 대한 시술을 했다.

강유신 기자

산하단체 교류 활성화 모색

부산시 불교합창단연합회 김귀련 회장



"찬불가를 부르며 느끼는 내면의 변화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한국 찬불가의 수준 향상과 세계화에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오랜 불협화음을 마무리하고 부산시불교합창단연합회 3대 회장으로 공식취임한 김귀련(58 · 사진) 회장. 합창단 단장들의 권유를 끝내 뿌리치지 못해 몇 번의 고사 끝에 회장직을 수락하고서도 여러 상황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을 해보지도 못해 마음고생을 겪었다.

비로소 7월 21일 김회장은 부산시불교연합회 인정 하에 취임식을 가지면서 부산불교합창단의 연합체로서의 활동을 새롭게 시작했다. 새마을부녀회 등을 통한 오랜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시와 봉사의 즐거움을 잘 알기에 회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합창단 단장님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부산불교 음악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하고 싶다"는 김회장은 앞으로 부산불교지휘자연합회와 그 산하 단체인 작곡가협의회, 성악가 협의회 등과 원활하게 교류하며 불교음악 인재 발굴 육성에 힘 쓸 계획이다.

김회장은 "이제부터는 미가입 불교합창단 순회와 합창단 창단 지원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국 불교합창제 참가, 고승대덕 친견 성지순례, 불교복지관 연말연시 순회 등의 알찬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천미희 기자

공무원불자련 중국 성지순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제4차 해외성지순례가 7월 26~31일 중국 돈황 막고굴 등지에서 진행됐다. 이번 순례에 동참한 건설교통부, 대전광역시청, 진주시청 등 11개 기관 50여 공무원불자들은 남북조 시대 석굴군인 천불동, 북위시대부터 원나라에 걸쳐 만든 돈황 막고굴 등지를 참배했다.

전국염불만일회 수덕사서 여름성지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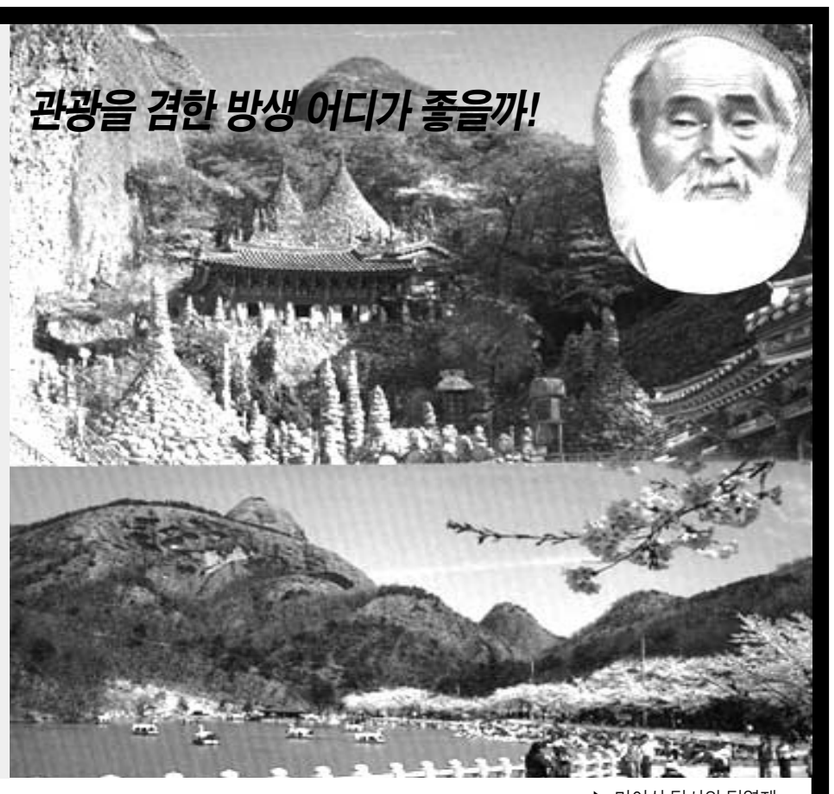
전국염불만일회(공동대표 해장 · 보광 · 김재일)는 7월 31일~8월 2일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에서 제8차년도 여름성지대회를 진행했다. 성지대회는 일만송염불, 오회염불, 철야정진 기도 등으로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불자가수 머루와 다래 등을 비롯해 염불만일회 회원 300명이 참여했다.

부산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거리상담



부산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소장 윤기혁) 거리상담 행사가 8월 3, 4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졌다.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는 노인학대 상담은 물론, 리플렛 및 기념품 나눠주기, 서명운동을 통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일반인들에게 알렸다. 노인학대 상담은 국번없이 1389번에서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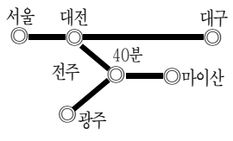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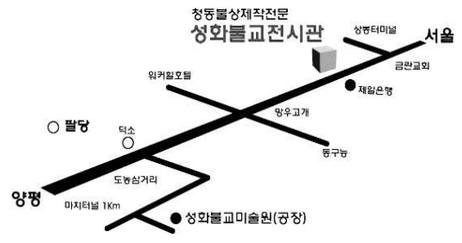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윤리여, TV를 꺼라

딸이 60대의 어머니 얼굴에 한방의 펀치를 날려 눈두덩에 시퍼런 멍이 들게 만든 영화의 한 장면이 있다. 한 달 전 한국에서도 개봉된 영국 영화 'The Mother'에서다.

딸에게 한방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 '어머니'는 얼마 전 남편을 사별한 후 교외에 있는 그들의 집에 도저히 혼자 살 수 없어 런던의 아들집으로 온다. 그러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족으로부터의 철저한 소외뿐이다.

'어머니'가 겨우 마음을 붙일 수 있게 된 상대는 아들의 친구로, 유부남이면서 지금 그의 딸과 열애중인 남자다. '어머니'는 딸 못지않게 이 젊은 유부남과 열애에 빠지고 이를 알게 된 딸이 이렇게 '어머니'를 향해 한방의 펀치를 날리게 된 것이다. 어머니의 동의 하에 딸이 날린 그 한방의 펀치는 어쩌면 영화 속에서 윤리적 균형을 잡아주고 화해의 의미도 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얻어맞아 퍼렇게 멍든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설명할 길 없는 서러움 같은 것이 묻어 나온다.

자, 이제 한국이다.

한국의 공중파 TV공영방송에서 내보낸 일일 드라마에서 맞벌이 부부의 며느리가 느닷없이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친 장면이 나왔다.

설마 일일 드라마 제작진들이 부모를 패는 영화 '어머니'에서 힌트를 얻었을 리 없겠지만, 그리고 스토리가 전혀 달라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겠지만 '어머니'나 당일의 '올드미스 다이어리'는 노인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런데 맞을만했던 '어머니'와 달리 아들 부부의 뒷바라지를 해 왔던 한국의 시어머니가 그것도 며느리에게 왜 맞아야 하는가. 그 며느리는 상대가 아기를 돌봐주는 파출부였어도 그렇게 팰 수 없다. 그것은 제재 받아 마땅한 폭력이므로.

방송사의 첫 반응은 '현실로 그런 것이 있으므로'였다. 그래 현실에는 그런 것이 있다. 문명의 역사에서 어느 시대인들 엽기와 패륜이 없었겠는가. 현대에서 엽기와 패륜이 증가하고 있음은 인구의 증가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구 증가만큼 윤리적으로 정상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 수도 그만큼 많아졌다. 그렇게 늘어난 '정상 기능'의 사람들이,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TV 화면에서 시어머니 뺨을 때린 며느리를 보고 분개하는 것이다.

오늘날 공영방송의 파행은 끝이 없다.

얼마 전에는 TV생방송에서 두 명의 남자가 홀딱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춤추며 무대를 누빈 장면이 나와 지금까지 시끄럽다. 세계의 미디어들은 이를 희한한 토픽뉴스로 전했다. 쏟아지는 비난에 지금은 풀이 죽어 있지만, 이들의 첫 반응은 '무대 공연에서도 하던 것으로 일종의 해프닝'이라 했다. 알몸 보여준 일을 예술 수준으로 챙기겠다는 발상이었을 것이다.

해당 인터넷 기사에 '노출이 뭐가 나쁜가?'라는 댓 글들이 올라와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기존사회의 경직된 사고에 충격을 가하는 이른바 '인디밴드'가 아닌가 라는 것이다.

만약 TV프로 제작자들에게 '세상의 이면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거나, 제도권 비판의 실험정신 운운'하는 식의 의식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는 성숙한 오늘의 시청자 수준을 깔보는 것이다.

TV프로그램을 소화해 내는 오늘의 시청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가치를 평가해 내지 못할 만큼 낮은 수준이 아니다. 높은 음악성과, 부족한 음악성을 충격적 퍼포먼스로 가려보려는 것의 차이도 구별할 줄 안다.

방송프로들의 이러한 파행은, 기존의 가치관을 무조건 뒤집어 허물어뜨리는 것이 큰 변화에 앞장 서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그런 착각에 공영방송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삼보정재는 부처님의 교단에 보시된 깨끗하고도 귀중한 재산이다. 그것을 올바로 지키고 관리하며 쓰는 것은 교단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런데 과거 분명하게 삼보의 정재였던 것이 부당하게 빼앗기거나 유실됐다면? 과거의 것이라 하여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은 하나의 업이 되어 현재의 삼보정재를 소홀히 하는 무한한 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봉선사 등에서 망실 삼보정재 되찾기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봉선사에서는 1000여 평의 땅을 되찾았으며, 망실재산을 찾기 위한 20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 한다. 또한 부당하게 소유권을 잃은 사찰 문화재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암사지 발굴 문화재 되찾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한다. 하나의 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삼보정재 되찾기 노력과 성과가 불교계의 망실 삼보정재 환수에 대한 관심을 올바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

망실 삼보정재 되찾기 노력을

이러한 큰일에 전 불교계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불교계 전체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질곡의 역사를 겪은 불교계의 망실재산이 어디 한 두 사찰에 그칠 것인가? 그렇다면 범종단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또 효과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하루 빨리 이를 위한 대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우선 전국적으로 망실 삼보정재와 문화유산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해 적절한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친일후손들의 사찰재산 소유권 주장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조계와 문화재 관련 학자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 종단적인 차원에서 기구를 설립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서야한다는 얘기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은 바로 현실을 바르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봉선사와 회암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을 계기로 불교계에 망실삼보정재의 환수를 위한 바른 움직임이 일어나야만 현재의 삼보정재도 올바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국민 위한 정치

"만일 왕이 자신을 보호하고 국가가 안락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백성들에게 쾌락을 성취하게 하고 이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금광명경〉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 저마다 어렵다고들 아우성이다. 8월 2일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지난 분기에 비해 8.6%나 감소했다고 한다. 도시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IMF 직후인 1998년 2분기 때 9.9% 감소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니 아우성을 칠만도 하다. 특히 보건의료비가 적지 않게 줄었고, 이미용 비용은 14%나 감소했다. 머리 깎는 돈도 아껴야 할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얘기다.

3일에는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및 생계대책을 요구해 온 경기 성남시 판교지역 주민 일부가 '국적을 포기하고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저렇게 살 궁리도 해보고 정부에 호소도 해봤지만 이제는 희망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 이 땅을 떠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을 때 정부와 정치권은 과연 무엇에 매달려왔을까. 경제에 '올인'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연초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실종돼버렸다. 통계청 자료와 판교지역 주민들 소식이 전해지던 바로 그 시간에 정치권은 불법도청 문제로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하며 사건이 미칠 영향에 대해 '주판알'을 튕기고 있었다.

정치권 얘기는 사실 지겹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기대할 것도 없다. 하지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보면 자꾸 분노가 치민다. 국적환수법이라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국적을 몰수해 버리는 그런 법말이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명우(취재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모래만다라 아름다움에 감탄

법련사와 봉은사에서 모래만다라 특별전이 열렸다.

섬세한 모래를 쇠관의 떨림을 통해 정해진 위치에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놀라웠는데 너무 아름답고 세부적인 문양이 그려지는 것은 감탄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특히 일정 기간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래만다라는 무상의 이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전시회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한진현(대전시 중구 문화동)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 안된다"

고속철도면 출발도시, 중요도시 한두 군데, 도착도시 이렇게만 서게 직선화해야 하는데 무슨 마을버스마냥 이 도시 저 도시 세우다 보니 노선이 기형적으로 뱅뱅 돌고 금정산을 뚫을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우리나라는 뭘 하던지 산을 관통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조금만 돌아가면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주위 환경은 물론이고 사람의 눈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데…. 건설부 요원들의 무식함을 비탄하고 싶다.

불자 마가렛(붓다뉴스)

학생들 종교자유 이뤄져야

서울 대광고의 종교수업과 관련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학교종교자유를 위한시민연합이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5분 예배 폐지, 수요일 학년 예배 개선, 종교 수업 선택권 부여 등이다.

당연이상의 당연한 종교자유가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그런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불국토(붓다뉴스)

독자시

법당 앞의 로주대 이야기

로주대여 로주대여 법당 앞 붉은 화로에 피어나는
한 송이 연화 로주여 푸른 바다 위에 타는 불길 싸늘하여
정 · 혜의 쌍석 등불마저 전 · 후 삼삼 외로웁네

판때기는 욕락에 살이 쪄 쓸모없고
이빨은 밖으로 녹슨지 오래일세
털은 깊이 병이 들어 살아날 기약 없네

둥근 돌 수각은 나의 몸이요
그윽히 고인 물은 나의 성품이라
끝없이 솟아나는 물은 진여 자성의 노래와 춤이요
철철 넘쳐흐르는 물은 성품의 만 가지 작용과 나툼일세

운재 오산 수재 병
구름은 오대산에 있고 물은 병 안에 있구나

고향 잊은 나그네 구름이여 가는 곳마다 흑을 백이라 하는구나
슬프다 부처 중생 나뉘어 무엇하리 해는 저무는데 금산으로
가는 길엔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구나

로주대 붉은 화로에 피어나는 연화여 일체중생이 홍로 일점설인데
어찌하여 이 몸 태우지 못하여 한스러움만 날로 더하누나

홍로(해인사 스님)

'현대' 만평 심 민 섭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할머니와 하룻밤 情 '새록새록'

한솔복지관 청소년 44명 독거어르신 홈스테이

"내가 학생들 때문에 오늘 호강하네. 어찌나 어깨를 잘 주물러주는지, 원…."

8월 2일 분당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이정애(85)할머니는 오랜만에 웃어본다며 주름살을 폈다. 손자 같은 아이들과 말벗도 하고 '어른대접'도 받게 되니 너무나 좋으시단다.

할머니를 찾은 아이들은 8월 2~3일 성남 한솔복지관(관장 성화)에서 마련한 '정이 있는 집, 한솔 홈스테이' 행사에 참가한 지역청소년들이다. 이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 44명이 독거어르신 열여덟 분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한솔복지관이 위치한 느티마을 일부 지역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그 중 상당수가 독거어르신 거주 세대라는 점에 착안해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학생들의 방문이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분당고 1학년 문세나 · 윤하나 학생은 이회계(74) 할머니와 짝이 돼 할머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는 학생들을 보자 손을 부여잡으며 '우리 손녀들'이라고 반긴다.

"애기들이 집에 와주는 것만도 고맙제. 이렇게 찾아주는 것만도 얼마나 기쁜디."

학생들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 집을 청소하느라 분주하다. 이회계 할머니의 경우 워낙 깔끔한 편이라 치울 것이 별로 없지만 할머니가 불편한 몸 때문에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선반이나 냉장고 등은 학생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청소를 끝낸 후 세나와 하나는 이 할머니 곁에 앉아 함께 수박을 먹으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서른 아홉에 혼자 몸이 됐다는 것, 아들은 지난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됐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애정만큼 할머니가 사람을 애타게 기다려왔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다.



"우리집에 학생들이 찾아와서 너무 좋아요." 한솔복지관이 8월 2~3일 진행한 '독거어르신 홈스테이'는 독거어르신과 자원봉사에 나선 학생들을 가깝게 만들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보지 못해 독거어르신의 집은 좁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낯선 어르신과 함께 잠을 자야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어르신들도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아이들이 좁은 집에서 새우잠을 자야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학생들에게는 뭐든 해주고 싶은데 줄 것도 마땅치 않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학생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아침 식사 준비 때문에 번쩍 눈을 뜬다. 그러나 학생들보다 먼저 일어난 어르신들이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한 경우가 태반이다. 세나는 할머니에게 쇠고기 국을 끓여드리려 했는데 이 할머니가 이미 조기국을 끓였다. 세나는 못내 서운한지 "다음에 와서 해야겠다"고 중얼거린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경(16)이는 "내가 찾아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뵈니 할머니 마음 속 외로움이 느껴져 너무 안타까웠다"는 말로 할머니와 함께 보낸 소감을 밝혔다.

홈스테이를 준비한 한솔복지관 관장 성화 스님은 "조부모세대와 청소년들 간의 교류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 서로에게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보강해 1 · 3 세대 통합에 부모세대까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강진 기자

직장탈 임상환자 모집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원장 이석현)은 직장탈 임상환자를 공개모집한다.

직장탈이란 항문 밖으로 직장이 빠져나오는 질환으로 환부의 특성상 주변에 털어놓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을 통한 치료법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출산 경험이 많은 노년 여성들에게 발병률이 높다.

소화기병센터 김선한 교수가 주관하는 이번 임상환자 모집은 노르웨이의 Helse Forde사의 의뢰로 직장탈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 16명의 환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김선한 교수는 국내 복강경 대장수술분야의 권위자로 배를 열지 않고 내시경을 사용해 직장암까지 깨끗이 제거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지금까지 600여건의 수술성공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임상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환자는 일산불교병원 소화기병센타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031) 961-7730 drkimsh@duih.org

조용수 기자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맛있게 드세요!" 칠보사 자비회는 늘 한결같은 봉사활동을 자랑한다. 사진은 7월 30일 원각사 무료급식 봉사 모습.

칠보사 자비회 보살들

비빔밥 한 그릇에 자비 넘치네

이른 아침부터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종로 탑골공원. 7월 30일 서울 칠보사 '자비회(회장 송영란)'가 사찰 무료급식소 원각사(주지 보리)를 찾았다. 한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보살들은 무엇인가 즐거운 얼굴이다.

봉사자들이 우선 하는 일은 법당 청소다. 급식소를 찾는 사람들이 깨끗한 곳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이는 보살들에게 '마음 닦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법당을 닦으면 바닥도 깨끗해지지만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보살들이 여기저기 깨끗하게 쓸고 닦았지만 원각사의 10년 넘게 사용된 냉장고며 가스렌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봉사자들이 하루 150인분의 밥을 부지런히 해낸 훈장이나 다름없다.

원각사에서 제공하는 메뉴는 늘 비빔밥이다. 많은 사람에게 손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다 같은 비빔밥인데도 칠보사 보살들이 봉사를 나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보살들은 "우리가 음식솜씨가 좋은가보다"라고 말하며 기분 좋게 나물을 무쳐낸다.

어느 정도 음식준비가 끝난 시간부터는 법회가 진행된다. 봉사하러 사찰에 와서 신심으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시간이다.

보살들은 스님의 법문도 좋아하지만 그 보다 스님이 직접 계단청소를 하고 급식소를 찾은 사람들을 맞는 모습에서 더 큰 감동을 느낀다.

"스님께서 직접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마음공부가 되는지 몰라요. 봉사활동 하러 나와서도 배우는 게 많아 오히려 감사합니다."

칠보사 '자비회'는 원각사 창건 당시부터 봉사를 꾸준히 해오다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원각사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그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살아가는 힘이 된다면 너무 기쁘지요."

김강진 기자

쌀 · 부식 많이 보내 주세요

95년 개원해 탑골공원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원각사에는 무엇보다도 쌀, 부식 등의 식재료가 가장 필요하다. 칠보사 보살들은 "스님 혼자 꾸려가는 시설이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불자들이 조금씩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으로 식료품을 후원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02)762-4044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5년 8월 1일 부터 □ 입학일 : 9월 5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제 9기수업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7시)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 2005년 9월 둘째주 화요일 (9월 6일) 제 9기 첫수업이 시작됩니다.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사면요청 탄원서 넣어주시고
제 딸이 잘못한 일인데도
아드님을 나무랐던 선생님
초겨울 런닝 바람으로 보호소 나올때
"무기력함에 화가 납니다"라며
눈물을 훔치셨지요
그렇게 선생님은 저희들 곁에
10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청춘 · 선생님의 젊음 결국 하나였네요

〈취재후기〉 문패 하나 없는 사무실서 외국인노동자위해 인권운동

8월 1일, 부천에 자리 잡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찾는 데만 족히 1시간 넘게 걸렸다. 약도도 위치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어렵게 찾은 사무실에는 그 흔한 문패 하나 없었다. 복도에는 A4용지에 '아시아인권문화연대☜'라 적힌 안내문이 전부였다. 순간,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외국인이주노동자간 쫓고 쫓기는 어두운 현실이 기자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어렵게 만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란주 대표.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등에서 10년 넘게 상담 및 권리구제 활동, 의료지원, 연수생 제도 폐지 운동, 산재 · 의보 적용 등의 활동해온 이 대표는 수줍은 얼굴을 내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물을 게 뭐 있다고 여기까지…" 곧장 "왜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운동을 하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구경꾼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맞으면 아프고, 슬프면 눈물이 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011)331-7145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심각한 인권 현실을 설명하는 이란주 대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대모

이란주

향기 도반의

네팔인 두르바 구마르 뿐씨가 띄우는 편지

To 이란주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릿속에는 '고맙다'는 말밖에 남질 않네요. 이 선생님은 늘 '괜찮다' 했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말 밖에는 안 나옵니다. 2001년 겨울에도 그랬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보호실에 갇혀있던 저를 면회 오셨을 때도, 저는 '고맙다'는 말만 했죠. 그리고 제가 물었죠. 아내와 딸아이는 잘 있느냐고.

1992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힘든 노동을 하던 저는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죠. 나름대로 행복한 일상을 꾸렸고, 97년에는 딸 현정이도 낳았죠. 혼인신고도 하고 합법적인 체류자격도 얻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꿋꿋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정신분열증을 앓으면서부터 꿈이 깨지기 시작했죠. 현정이도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 온몸이 늙은 오이껍데기처럼 변해갔어요. 설상가상으로 죽도록 일해 돈을 벌어도 아내와 딸의 병원비를 내고 나면 끼니를 때울 돈이 없어 쩔쩔매야 했죠.

그래도 살만은 했어요. 소중한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의 정신분열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먹으라고 내미는 약을 자기 죽이는 약이라고 팽개쳤죠. 그러다 아내가 "내 남편이 불법체류자인데 나를 죽인다. 내 남편 잡아가라"며 파출소로 달려가는 바람에 전 졸지에 아내를 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출입국사무소로 넘겨졌죠.

선생님도 기막혀했죠. 아내의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1998년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을 찾았을 때, 선생님은 '주민세를 내야 하는지, 국적취득하면 부인의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지, 분실한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이 되는지' 등 이것저것 챙겨주며 힘이 돼 줬는데….

아무튼 그때 선생님은 저희 가족을 위해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지요. 노동부와 법무부에 사면요청 탄원서를 넣어주고, 오갈 데 없는 제 딸을 선생님 집으로 데려가 석 달간 친자식처럼 보살펴주셨죠. 뒤에 딸아이가 고백했는데 선생님 댁 소파를 칼로 찢어놓은 너석이 "바로 자기"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현정이 동갑내기인 아드님 무선이만 나무랐다죠.

선생님! 그 때 생각나세요? 가까스로 '일시보호해제'를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 담장을 털털 걸어 나오던 초겨울을요. 그해 여름, 런닝셔츠만 입은 채로 잡혀갔는데 그 차림 그대로 보호소를 나온 절 붙잡고, 선생님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었죠.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뿐씨. 아무 힘도 돼줄 수 없는 무기력한 저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선생님은 늘 말했어요.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에 무관심한 한국사회를 대신해 '미안하다'고. 그리고 '외국인도 한국인도 똑 같은 사람이니, 서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늘 외국인노동자 친구들에게 강조했죠.

네팔 동포 찬드라 누님 때도 그랬어요. 선생님은 찬드라 누님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행려병자로 처리돼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6년 4개월간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한국 사람들에게 고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서글픈 그 이름, '찬드라'를 한국사람들은 알아야 한다"고 몇 번이고 말했죠.

그러면서 선생님은 찬드라 누님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정신병원에서 나와 네팔로 돌아가기 전, "한국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은 미워! 다른 사람들은 아냐!"란 찬드라 누님의 대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요.

태국 친구 노이의 사촌동생이 프레스에 오른손을 찍혀 몽땅 잘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도 선생님은 자기 일처럼 동분서주했었지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사장에게 보상금을 받기 위해 선생님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 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노이 사촌동생의 동료를 찾아 헤맸죠.

그 때, 노이가 "잃어버린 손을 되찾을 것 같아요"라고 선생님께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선생님은 외국인이주노동자들과 10년을 함께 해왔어요. 제가 네팔에서 한국으로 온 지도 벌써 14년을 맞고 있으니, 제 청춘이나 선생님의 젊음은 결국 하나였네요. 허물없는 친구로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해온 시간이니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운 단어가 욕이었다는 얘기,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한국말을 못해 물건 사기가 겁났던 얘기들을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매번 사무실 탁자 밑이나 책장에 몰래 꽂아 놓은 돈을 앞으로는 뿌리치지 마세요.

이제는 집에 가서 "돈 잘 받았느냐"는 전화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선생님께 드리고 온 돈을 다시 모아 제게 돌려주지 마세요. 월급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선생님한테 정작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밤이 늦었네요. 방학 숙제를 하던 현정이가 금세 곯아 떨어졌고, 아내도 일찌감치 약 챙겨먹고 초저녁부터 자고 있네요. 선생님도 좋은 밤이 되기를 바래요.

From 현정이 아빠, 두르바 구마르 뿐

■ 이란주 대표와 뿐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글 · 사진/부천=김철우 기자

가시는 길, 부담되고 싶지 않은 부모마음, 고인이 되더라도 편히 모시고 싶은 자식마음,
이제 안심하십시오. 미래의 여유, 국민상조가 함께 합니다.



리무진 행사차로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최고의 서비스를 단돈 하루 660원으로 해결!! 한달 20,000원씩 99회면 걱정 끝 OK!!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조이행 보증보험가입"



감동의 서비스 국민상조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진행으로 마치 내 가족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최상의 서비스와 마음 깊은 친절과 봉사로 최고의 감동을 제공합니다.



경제적인 서비스 개인 행사시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평소에 적은 돈으로 불입하여 행사 발생시 최저 비용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며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크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서비스 365일 일년 내내 전화상담요원을 배치, 행사 발생시부터 종료시까지 장례에 필요한 사항들을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며, 장례지도사가 그때그때 도움을 드려 모든 부분을 산속하고 친절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심 서비스 세월이 흐르면 물가변동도 예측할 수 없고 행사진행은 제대로 치루게 되는지 불안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상조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차질없이 모든 행사를 치루며, 규정대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한 걱정은 안심하십시오.

장의 무료서비스 (국민상조 회원용)

제 공 상 품	내 용
관	오동나무 1치 5푼
수의(순창포 대용직물)	삼베(명주) 세마포
초론, 수시, 염습, 입관, 출상	무료봉사
도포, 원삼, 천금, 지금, 명정, 관보, 결관보(외울베)	무상제공
상복, 굴건 제, 복조끼	무료직계상주
행전, 두건, 작지, 요절, 수절	무상제공 10EA
혼백함, 위패, 습신, 리본, 첩지, 운아, 폐백, 다라니경, 입관충관물 양초 향, 짚신, 축문, 부의록, 선도차 장식	무상제공
영정바구니, 근조기, 병풍, 조등, 향로, 촛대, 잔대	무료대여
케딜락 또는 장의버스 중 택일 특별무료 전국운행	알선서버스 (공원묘지, 납골당, 장제비신청, 장의버스, 장례식장, 이장안내)
1급장례지도사 2명 행사도우미 1명	파견

※ 효력 발생은 1회차 불입 후 부터이며 일주일 내 회원증서와 회원카드를 보내드림.(본 증서로 원하는 분 누구에게나 양도 가능)
※ 회원의 빈소, 손님 접대와 음식, 장지만 준비하시고, 나머지 모든 절차는 저희가 책임지고 내 부모님 모시듯 열과 성의를 다해 봉사하겠습니다.(일체의 봉사료는 사절합니다)

KS
· 본사 서울시 양천구 목 2동 131-119 KS빌딩 · 팩스 : (02)2654-1414
· 전국 어디서나 1544-4110 · H.P : 011-581-8851(대표 남광일)
· www.kookminsangjo.com · www.kookminsangjo.co.kr · www.국민상조.com

나의 수행법

이미옥 (下)

첫 아비라 기도는 그만큼 힘들었다. 그런데 마쳤을 때의 그 기쁨은 뭐라 형언할 수 없었다. 기도를 잘 마친 내 자신이 뿌듯하고 대견했으며, 세상의 어떤 힘든 일도 거뜬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3개월 후에 참여한 두 번째 아비라 기도는 첫 회를 아주 신나게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하는 아비라 기도라 역시 다르구나' 라며 가볍게 했다. 하지만 그 후 내리 9회의 기도는 동안 몹시 지루해 견딜 수가 없었다. 별 고통도 없으면서 지루함을 견뎌야 하니 무의미하게 느껴져 포기하고 싶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한 10명이 포기하지 않아 나도 포기 할 수가 없었다.

이후, 다음 회부터는 '진언의 소리를 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이 왔다. 함께 소리를 내며 그 소리의 리듬을 타게 되니 더 이상 지루하지 않고 신나기도 하고 다음 회의 기도가 기대되기도 했다. '아비라 지옥' 이란 말을 많이 들어 마냥 지옥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도 극락이 있었다. 어떤 분은 진언을 타면서 합창을 하거나 합주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도 하고, 진언을 타며 몸이 가벼워져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든다고도 했다.

다시 3개월 후의 세 번째 아비라 기도도 가볍게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엔 집중이 잘 안 됐다. 온갖 잡념만 떠올랐다. 나중에는 화가 났다. 잡념이나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기도를 하고 있나 싶었다. 그러다 어느 회는 또 다시 지옥이었다. 무릎도 너무 아프고,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손도 저려 와 들고 있기도 힘들고, 다시 머리가 상기돼 토할 것 같았다.

아비라 기도를 오래한 선배 보살들이 "아비라 기도는 할 때마다 다르고, 또 한 회 한 회마다 희비(喜悲)가 엇갈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비라 기도는 한 회씩 사는 기도' 란 말에 수긍이 갔다. 어느 보살은 아픔을 견디고 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벼랑에서 낚은 새끼줄 하나를 부여잡고, 떨어지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치며 죽을힘을 다해 버텼다' 고.

그 후론 법신진언을 할 때 잡념이 들면 그 횟수를 셌다. 그랬더니 잡념 드는 횟수도 줄었고 특히 잡념이 들자마자 그걸 인식하게 돼 잡념에 든 시간이 아주 짧아 효과가 있었다. 그랬더니 처음 10분 이내로만 잡념이 들다가 그 후로는 거의 잡념 없이 진언에 매달릴 수 있었다.

잡념들때 횟수 세자 집중력 높아져
기도 끝낼때마다 성장하는 나 확인

스님은 "아픈 것에 관심이라는 자양분을 주지 말고, 내가 집중하려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했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마음도 나고, 좋구나 하는 마음도 난데 둘 다 나를 속이고 있는 가짜 나이니, 그 좋고 힘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헤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비라 기도는 이렇듯 단기간에 나의 집중력을 높여줬다. 어느 보살은 아비라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다. '평상시의 기도가 조롱박으로 옹달샘에서 우리의 의식의 물을 뜨는 것이라면, 아비라 기도는 두레박으로 깊은 샘에서 우물물을 퍼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난 늘 절과 능엄주로 수행을 한다. 평소의 기도가 '매일 매일의 비질' 이라면, 1년에 4번 하는 아비라 기도는 내 '마음의 대청소' 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서 난 매번 성장해 있는 날 확인하고 있다. (끝) ■ 주부

'少欲' 과 '知足' 으로 탐진치 쓸어내기

▌경성 스님에게 듣는 두타행 수행법

"두타행(頭陀行)은 의식주 생활를 누리고 살면서 생기는 욕심과 탐욕을 털어내는 생활수행법이다. 그래서 붙여진 애칭이 '먼지털이개' 수행법이다. 소욕(少欲)과 지족(知足)이란 빗자루가 삼독심의 쓰레기를 말끔히 쓸어내기 때문이다."

최근 〈불교수행의 두타행 연구〉를 펴낸 해인사 희랑대 경성 스님은 두타행을 이렇게 설명하며, 두타행이 '수행의 생활화' 에 지침이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두타행이 청정한 지계의 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정각(正覺) 성취의 발판이 된다고 역설했다.

두타행 중에서는 가섭존자가 정진해 대표적인 두타행 수행법이 된 12두타행이 유명하다. '탐욕을 소욕으로' '지족을 희족(喜足)으로' 전환시킨다는 두타행에 대한 여러가지를 경성 스님에게 들었다. (055)932-7301

풍요와 만족 반비례…소박한 생활 추구
아낀 비용·시간은 보살행으로 이어져야

▲스님께서 최근 펴낸 〈불교수행의 두타행 연구〉는 두타행에 대한 연구서로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발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적인 자세로 계율을 받아들이기보다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의미로 계율을 연구하고 싶었죠. 즉 계율이 수행의 지침임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보니 계율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지침인 두타행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지요.

▲두타행 수행이 무엇입니까?

-두타행은 의식주 실생활에서 탐욕을 떨어내고 소욕과 지족을 실천하는 생활수행법이에요. '두타' 란 먼지털이개로 옷에 묻은 먼지와 때를 흔들어 떨어낸다는 의미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탐욕을 떨어내고 제거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두타행 수행의 특징이죠.

▲구체적으로 두타행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중국불교 두타행자 혜만(慧滿)과 도선(道宣) 선사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두타행 수행법에 대해 말해보죠. 우선 혜만선사는 일생동안 한 벌의 분소의와 일식을 수행하며 검약을 실천해서 집착과 탐욕을 떨어냈지요. 이런 공덕으로 혜만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무욕의 청정한 마음으로 신체와 의복까지도 청정해졌다고 해요.

도선선사는 〈청심계관법(淨心戒觀法)〉에서 발우에 담긴 음식을 먹을 때에는 동일한 분량의 농부의 피와 땀을 상기해 몸을 지탱하기 위한 방편으로 밥을 먹어야 하고, 옷을 입을 때에는 한 벌의 옷에 담겨있는 모든 공력(功力)과 상해(傷害)를 기억해 좋은 옷을 입거나 많은 옷을 갖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유래와 배경이 궁금합니다.

-기원은 인도의 사문수행에서 시작하지요. 신분계급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수행했던 사문 수행자들은 수하석상(樹下石上:나무 아래 돌 위)의 생활을 출가의 시발점으로 삼았지요. 석가모니부처님께서도 출가 당시부터 이들의 전통을 계승, 분소의(糞掃衣)를 입으면서 수행을 시작했지요. 이후 교단이 구성됨에 따라 두타행의 이념과 취지가 수행생활에 자리 잡게 되죠.

▲모든것이 편리하고 풍족한 오늘날 '두타행' 수행에 더 관심이 갑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구비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풍요와 진보의 시대에도 불화와 반목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치지 않는 욕망과 만족할 줄 모르는 소유욕에서 비롯돼요. 풍요와 소유욕은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위해서 두타행 수행이 필요해요. 수행 이전의 의식주 생활에서부터 탐욕과 집착을 벗어나야만 이상적인 수행도 되고, 지혜를 실천하는 지름길이 마련돼요.

두타행 가운데 장좌불와(長坐不臥)와 일식(一食)은 근현대의 조사스님들에 의해 면밀히 전승되고 있는 수행법입니다. 성철 자운 혜암 일타 스님 등 많은 스님들은 장좌불와와 일종식의 전통을 계승한 두타행자라고 할 수 있어요.

▲"두타행은 지계의 기초가 된다"고 했는데요. 두타행과 계율의 관계는 어떤가요?

-〈대지도론〉에서 "두타가 계율은 아니지만 능히 실천한다면 계율을 장엄한다"고 했으며, 〈화엄경〉에서는 "두타법이 계행은 아니지만 곧 계를 장엄하는 기운이며 힘이라고 한 것"은 계율을 수지하기에 앞서 두타행을 실천하면 지계 수행에서 장애를 없애는 이익이 있다고 강조한 거지요.

또 계율이 수행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자발적인 실천덕목이라면, 두타행은 의식주에서 탐욕을 떨어내는 권장덕목이에요. 의식주 생활이나 수행공동체의 집단을 떠나서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두타행과 계율은 모든 수행자의 기본적인 조건이자 수행법인 거지요.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두타행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12두타행의 현대적 응용이 요구돼요. 즉 미식이나 탐식을 추구하지 않고, 값비싸고 귀한 옷이나 좋은 촉감의 옷이나 많은 옷을 소유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나치게 유흥에 빠지거나 웅장한 집에서 좋은 침구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는 것 등으로 두타행을 실천할 수 있지요.

소박하고 자연적인 삶을 추구하는 점에서 요즘의 웰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웰빙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추구한 반면, 두타행은 소박하고 자연적인 생활 자체에서 소욕과 지족을 추구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두타행의 실천은 이렇게 아껴진 비용이나 시간 등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보살행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것이 바로 두타행의 이념인 소욕과 지족을 구현하는 것이며, 한 단계 뛰어올라 희족(喜足)할 줄 아는 두타행자의 참 모습입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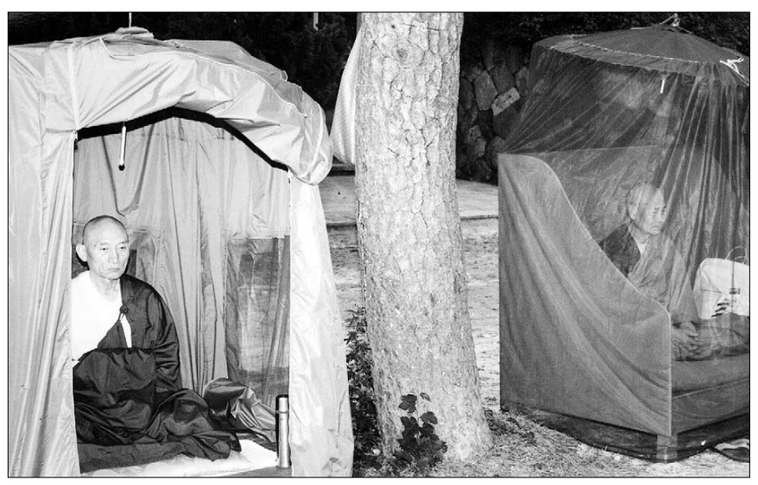
경성 스님은



경성 스님은 혜총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했으며,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파계사에서 무봉성우 율사스님으로부터 율맥을 전계 받았다. 현재 해인사 희랑대에 머물며 조계종 단일계단 교수사, 중앙승가대 강사를 맡고 있다.

▌12두타행이란?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음식에 대한 탐욕에는 맛있는 음식을 탐내는 미식탐(美食貪)과 많은 음식을 탐내는 다식탐(多食貪)의 두 종류가 있으며, 미식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걸식(乞食)과 차제걸식(次第乞食)을 수행하고, 다식에 대한 탐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식(一食)과 절양식(節量食)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의복에 관한 탐욕에는 많은 옷을 소유하려는 다의탐(多衣貪)과 부드러운 촉감의 옷을 입으려는 연촉탐(軟觸貪)과 비싸고 귀한 옷을 입으려는 상묘탐(上妙貪)의 세 종류가 있으며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분소의(糞掃衣) 등을 입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놀고 싶어 하는 훤잡탐(諠雜貪)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란야(阿蘭若)에 머물고, 좋은 집에 대한 욕심인 옥우탐(屋宇貪)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하주(樹下住:나무 아래 머물다)와 노지주(露地住:길에서 머물다)와 총간주(塚間住:무덤에서 머물다) 등을 수행하며, 항상 기대거나 눕고 싶어지는 의락와락(倚樂臥樂)을 다스리기 위해서 장좌불와(長坐不臥)를 수행하며, 푹신한 방석과 침구를 바라는 부구탐(敷具貪)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좌(隨坐)를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사진은 지난 1998년 부산 태종사에서 봉행된 두타행 정진 모습. 9명의 수행자가 정해진 자리를 떠나지 않고 1일1식 좌선과 경행 등을 7일간 수행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유년은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辛,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우리가족의건강 지킴이
NK N-K NATURAL
묘향산 전 록 탕 건강!

본 제품은 전 북한 만수무강연구소 약국장이 직접 제조한 신비의 건강식품

보정, 보기 보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김일성이 생전에 빠뜨리지 않고 먹었던 35가지 약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원기가 부족한 사람, 수술후나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 전록탕의 효능 ※
〈보혈, 보기, 보정, 작용이 탁월하다〉
적혈구, 백혈구의 생성 활발행렬작용을 한다.
중년 남,녀들의 기력강화, 갱년기 장애를 해소시키고 젊음을 찾아준다.
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동의학 박사 허 창 걸

• NK내츄럴 대표 허창걸
• 사리원 동양대학교 졸업
•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약국장
• 한 의 담 당 동 의 학 박 사

묘향산 전록탕 이란...
본 제품은 북한 만수무강연구소에서 최고위급 인물들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 그대로입니다.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묘향산 요양소 약국장이었던 허창걸 동의학 박사가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 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묘향산 전록탕 그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묘향산 전록탕은 묘향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가시오가피"를 북한에서 직수입하여 "동충하초"를 비롯한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입니다.

판매원 : 록원 02) 771-2985 • 제조원 : NK내츄럴 • 총판대리점모집 02) 755-9821

생활 자체가 피로였다. 피로감은 생활리듬을 떨어뜨렸다. '왜 어디서 이런 피로가 오는 걸까?'

그 원인이 망상에 있다는 것을 사띠 수행을 통해 알게 됐다. 자기 에너지 소모의 가장 큰 원인인 망상. 망상의 다른 이름인 '기억의 무게'는 마치 스펀지와도 같았다. 물이 꽉 찬 스펀지.

사띠 수행은 망상이 가득 담긴 그 스펀지를 짜내줬다. 기억의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몸과 마음은 가벼워졌다. 〈전지만(40 · 법운)〉

'한 성격'했다. 화낼 때는 온몸을 파르르 떨 정도였다. 화를 다스리는 법을 몰랐다. 사실 정신없이 생활을 하다보면 소소한 감정에 휩쓸리기 십상이다. 그러다 접한 '알아차림'의 수행은 그런 내 행동과 생각을 스스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깨어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수행을 즐기듯 하라'는 붓따빠라 스님의 말은 세상을 보는 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기춘(47 · 여래지)〉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⑩ - 근본불교 상가 서울 반냐라마

"내 번뇌 내가 덜어낸다"



근본불교 상가 서울 반냐라마에서 사띠 수행자들이 행선(行禪)수행을 하고 있다.

사띠 수행 체계화…이론·실기 병행
자각과 마음 집중으로 번뇌망상 제거

근본불교 상가 서울 반냐라마(지도법사 붓따빠라). 이곳의 사띠 수행자들은 자기 수행에 대한 확신이 굳건했다.

반냐라마는 초기불교 수행법인 사띠 수행도량이다. 이름부터 다소 생소한 반냐라마는 반야(지혜)와 라마(정사:精舍)의 줄임말이다. '알아차림(사띠 · 正念)'과 '마음집중(사마띠 · 正定)'의 힘을 키우는 수행을 전문적으로 한다.

6년 전 미얀마 마하시 수행센터에서 우와사와 스님에게 수행지도 허락을 받은 前 통도사 포교국장 본원 스님이 사띠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지금 '붓따빠라'란 법명으로 사띠 수행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망상!' 그 실체를 알아차려라

7월 29일, 서울 반냐라마의 목요 수행모임. 붓따빠라 스님이 좌선에 든 10여 명의 수행자에게 나지막한 소리로 수행을 지도하고 있었다.

"움직이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세요. 배가 일어나면 일어남. 꺼지면 사라짐. 어지간한 생활의 소음들 망상들을 무시해버리세요. 배에 움직이는 내 마음을 툭 던져놓고 배에 움직임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 알아차림을 하세요. 망상! 망상! 망상! 이름 붙이고, 세 번 정도 알아차림 하고는 즉각 배로 돌아오세요."

스님의 지도는 수행자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망상의 흐름을 단번에 잡아냈다. 1시간씩 나눠하는 좌선과 걸으면서 하는 행선 시간에도 예외 없이 스님의 점검은 이어졌다.

"사띠 수행은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자 도구이에요. 좌선과 행선, 일상생활에서 하는 수행인 생활선은 사띠 수행의 구체적인 수행법이에요. 잊지 마세요. 사띠 수행은 '자각과 마음집중'이 핵심인 것을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만 이뤄지면, 다음 행동의 지침을 알 수 있어요. 행동의 끝자락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항상 행위의 끝에 마음을 두라

스님은 이어 수행자들에게 한 마디를 던졌다.

"망상의 또 다른 이름인 '기억의 무게'와 '삶의 흔적'에 구속될 것인가, 해방될 것인가?"

"…."

"사띠는 모든 행위와 생각의 끝에 마음을 둬야 해요. 이렇게 사띠의 힘을 키우면, 번뇌와 망상을 제거할 수 있어요. 사띠가 강하면, 마음의 상에 비친 번뇌를 지워낼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지요. 하지만 사띠가 약해지면, 현상에 끊임없이 구속되지요. 사띠의 힘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죠. 현상에 구속됨을 서양에서는 스트레스라 했고, 부처님은 업장이라고 했어요."

수행자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4년째 사띠 수행을 해온 김시구(56 · 만법화)씨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온갖 번뇌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망상의 실체를 여실히 알게 됐다는 것이다.

선입견 · 편견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반냐라마의 수행 프로그램의 특징은 단연 '개방성'과 '유연성'에 있다. 다른 수행법에 대한 경험도 종교의 차이도 승속의 구분도 없다. 단지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인정을 받는다. '선입견과 편견을 벗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사띠 수행 성격이 그대로 배어난다.

또 '수행은 즐기고 부처는 덤으로 얻자'는 반냐라마의 수행 슬로건에서도 단박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수행학교의 교과과정은 2개월 과정의 기초반, 완성반, 경전반과 1년 과정의 지도자과정으로 구성했으며, 현재까지 500여 명이 수행학교를 졸업했다.

수행모임은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오전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오후반이 있고, 진행은 1시간씩의 좌선과 행선, 다과 등으로 이뤄진다. (02)597-2841. www.pannarama.net

글 · 사진=김철우 기자

▮붓따빠라 스님이 말하는 사띠 수행 잘하는 법



"일상생활 전부에 알아차림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초보자이나 구참자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지나치게 범위를 확장하면 알아차림을 놓쳐 버리게 돼요. 때문에 범위를 넓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림의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붓따빠라 스님(사진)은 모든 것을 알아차리려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너무 잘하려면 오히려 병이 된다는 셈이다. 알아차림을 넓히는 법은 바로 좁히는데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사띠 수행을 하려면, 하루에 2~3개 정도의 알아차림을 하세요. 범위를 한정시켜 놓고 하다보면 훨씬 수행이 깊어져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스님은 이와 함께 좌선과 행선의 핵심 포인트도 짚어줬다. 좌선은 배에, 행선은 발에 포인트가 있다고 말했다.

"행선할 때는 발바닥을 봐야 해요. 길거리에서는 복장과 상관없이 평소 걷는 속도대로 걸으면 돼요. 움직이는 발의 속도로 행선을 하면 되지요. 처음엔 땅바닥에 발이 닿는 느낌을 찾지 말고, 발의 움직임만을 알아차리세요. 다음에는 '발을 들려고 함. 가려고 함. 앞으로. 놓으려고 함. 놓음' 하면서 발바닥에 무게감을 실으세요. 하루 5분만 하면, 좌선 60분 정도의 수행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9〉 태수의 부름에도 꿈쩍않던 약산유엄

행세께나 하거나 공부 좀 했다고 목에 힘을 주는 벼슬아치들을 한 방에 기를 꺾어버리는 선사들의 기상천외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물론 참선정진의 힘이다. 제자백가서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꿰는 실력에다가 팔만대장경까지 위로 아래로 외는 유생거사들과는 논쟁을 하거나 논리로 붙어봐야 이래저래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인 게임이다. 이기기 위하여 목소리를 돋우고 잔머리를 굴려야 하니 스님으로서의 위의가 손상되기 마련이다.

혹여 논쟁에서 지게 되면 출가사문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 인도와는 달리 중국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이념적으로는 정치가인 크사트리아 계급보다도 종교인인 바라문 계급이 더 윗자리라는 잠재의식이 승려사회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저 한 방(棒)한 할(喝)로 끝내는 게 피차를 위해서 또 정법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체면손상을 극도로 꺼리는 요소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찾아가서 버르장머리도 고쳐놓고 한 수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도 쐬고 콧대도 꺾어놓을 심산으로 길을 나섰다. 당연히 미리 기별을 했다.

하지만 일주문 앞까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중 나오는 선사를 볼 수가 없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한 계단 한 걸음 옮기다보니 어느 새 방장실 앞이었다. 꼬일대로 꼬여 심기가 비틀어진 것이 선비 얼굴에 나타날 정도였다. 그러나 여전히 선사는 꿈쩍도 않고 방안에 있었다. 자사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한 시자가 마침내 태수가 왔노라고 아뢰었다. 그제서야 방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저렇게 도도한가 싶어서 가까이 가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런데 정말 보잘것 없는 그리고 아무 것도 없어 보이는 꾀죄죄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해서 한마디 툭 던졌다.

"직접 와서 얼굴을 보니 이름을 듣던 것만 못하구나."

표현이야 점잖게 했지만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다. 그런다고 함께 열 받으면 안 되겠지. 이런 상황에서 심오한 법문 줄줄이 늘어 무슨 소린들 귀에 들어가겠는가. 그제서야 선사는 고개를 들고 태수를 바라보면서 무심히 지나가듯 한마디 하였다.

"태수께서는 어째서 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은 천하게 여기는 것이오?"

귀로 명성을 들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으로 와서 직접 보니 별 볼일 없다는 그의 말에 대한 이 댓구(對句)는 모든 시비를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승부수가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본래 선근이 있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 태수는 그제서야 두 손을 모우고서 정색을 하고는 가르침을 청했다.

"어떤 것이 도(道)입니까?"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얼굴을 보니 이름 듣던 것만 못하구나"
"어찌 귀만 중시하고 눈은 천히 여기시오?"

이고(李翺)가 낭주(朗州) 땅의 자사(刺史)의 벼슬을 지낼 때였다. 중앙에 있을 때도 국학박사로 또 사관(史官)으로서 국사 편찬에 관여할 만큼 유능한 관리였다. 부임한 고을에 약산유엄(藥山惟儼 751~834)이라는 대 선지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겸사겸사해서 만나고자 하였다. 사또가 부르면 그 고을에 사는 백성으로 냉큼 달려올 일이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이나 거절을 당하자 열이 이마 끝까지 올라 왔으나 점잖은 체면에 드러내놓고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아무리 고을 백성이긴 하지만 상대는 지역불교와 선종을 대표하는 인물이지 않은가.

이고 역시 따지고 보면 정치가이기 이전에 유교를 상징하는 종교인의 위치에 있는지라 함부로 경거망동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잘못하면 유불(儒佛)의 대립으로 비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지는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일인지상 만인지하(一人之上 萬人之下)'라는 그의 화려했던 벼슬자리 이력도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가락동 로데오거리 200M 문정역 문정1동 동사무소 대한미륵창운회 유불선천기도장 성남방향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56)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강 강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

혜능의 '금강경'과 함께 춤을



<금강경>은 <반야심경>과 더불어 대승 반야의 핵심적 경전이다. 둘 다 기원후 4세기 무렵 성립된 듯하고, 취지 또한 같지만, 둘의 스타일은 좀 다르다.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차이

<반야심경>은 압축적이고 조직적이다. 한 자도 뺄 수 없이 촘촘해서, 씹기가 아주 딱딱하다. 이에 비해 <금강경>은 산문적이고 예언적이다. <금강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듯 반복과 변주로, 멈추고 나아간다. <반야심경>이 비유컨대 좌정(坐定)하고 있다면 <금강경>은 춤추고 있고, <반야심경>이 수렴적이라면 <금강경>은 흩어낸다. 이는 <반야심경>이 공(空)을 축으로 짜여있는데 비해, <금강경>은 그런 중심이 없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나는 여기서 <금강경>을 택했다. 너무 압축적이면 한 자리에서 곱다시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불편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들이를 나서자면 조금 헐거운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경전을 택했다. 또 하나는 이 경전이 대승의 중심이면서 선(禪)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은 불교를 통틀어 섭렵해본 사람의 파이날 터치로 그만이다. "아직 거기까지는" 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지나치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설화적이지도 않으면서, 불교와 선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는 <금강경>이 적격이다.

그럼 이 책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체제부터가 고민거리였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다.

1) 아무래도 '직역'이 필요하다. 불교도에게는, 아침저녁으로 늘 듣고, 또 독송하는 것이라 문장의 용어와 구조에 익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본문의 '분위기'를 전해줄 필요가 있었다. 직접 토를 달까 하다가, '언해(諺解)'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세조는 즉위 과정에서의 피비린내를 씻기 위해서인지 불교를 독실하게 믿고, 많은 경전을 언해했다.

그 중에 <금강경>은 본문 뿐 아니라, 거의 <오가해>까지 언해했다. 여기서는 본문 언해만 소개한다. <금강경 언해>는 아름답지만, 고어의 표현들이 너무 생소할 수도 있겠다 싶어, 약간 현대투로 고쳐 실었다. 이 언해를 통해 <금강경>의 장중한 분위기와 맛깔스런 어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강의의 정신과 방식

2) 다음은 '해석'이 따라야 한다. 편의를 위해 현대적 번역부터 제시하고, 다시 내부를 각 장별로 나누어 해석하기로 했다. 장(章)의 구분은 양(梁)나라 소명태자(昭明太子 501~531)가 해 놓은 것을 따랐다.

<금강경>의 본문은 원래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소명태자가 32장으로 문단나누기를 하고, 그 각각에 제목을 붙여놓았다. 전통적으로는 이 체제를 따르고 있지만, 물론 달리 나눌 수도 있다. 일례로 콘즈(E. Conze)의 영역은 아주 다르게 내용을 묶고, 장절을 나누어 놓았다. 이번 강의는 한역의 전통 분단(分段)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실제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밝혀주기로 한다.

각 장의 해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가) 장의 '대의'를 짚어주고, 그 배경과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나) 각 '구절'의 뜻을 부연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가)의 대의를 위해서는 1부에서 미리 해 놓은 이야기들이 적절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라건대는 독자들이 그 '별기'를 옆에 두고 들추어보고 새겨주었으면 한다. 나)의 '주석' 부분이 앞으로 강의할 2부의 대종을 이룰 것인데, 여기서 전통이 쌓아놓은 방대한 한문의 주석은 거의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정보'는 그들 주석 속보다는 바깥에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단순한 지명이나 인명, 역사적 배경이나 서지적 지식 등 주변적 항목들은 무시하거나 간략하게 언급할 작정이다. 그런 사항들은 다른 금강경의 해설서들이 미리 잘 해 두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의 용어나 구절이 뜻하고 있는 바를 각자의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혹 드러나지 않은 맥락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은 그 맥락을 알려줌으로써 각자가 <금강경>을 직접 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물론 잘못 짚은 곳,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 오히려 애매해진 곳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그 '오류'가 독자들에게 보이도록 은 해놓을 참이다. 오류는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애매한 것은 대책이 없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주석과 해석을 해 나갔다.

이런 주석이 그러나 순전히 내 혼자 뚝 받아 얻은 독창일 수는 없다. 소스는 다양하다. 어떤 것들은 불교의 문헌에서 얻었고, 또 많이는 불교 밖에서 얻었다. 허나 불교가 마음을 다루고 있다면, 그리고 불교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진리로 안다면, 불교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자주 불교와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더욱 불교를 느낄 때가 많다.

3) 본문의 '현대어역'을 제시한다. 앞의 주석 과정을 반영하고, 본문의 취지를 살려 새 '번역'을 내놓아 볼텐데, 그러나 이 또한 가령 틱낱한 스님의 <금강경> 이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 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혜능의 구결을 읽는다

이 강의에서 내가 직접 조회한 소스는 예고 드린 대로 혜능의 이야기식 해설, 즉 구결(口訣)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 콘즈의 영역본을 참고했다.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끌고 가는 주석과 해석의 방식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많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혜능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결하고 직접적이며 아름다운 육조의 구결에 비하면, 사실 내 글은 해 솟은 다음의 횃불이고, 큰 물 진 다음의 논에 물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의역을 곁들여 서문부터 번역해 보여 주려 한다.

혜능의 글도 한문인지라, 그리고 많이 전통의 어법에 기대고 있는지라,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껄끄럽고 투박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사정은 영어 번역체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혜능의 구결을 '해체'하여 소개해 주기로 했다. 혜능의 구결 안에는 1) 생소한 용어의 번역도 있고, 2) 맥락을 짚어준 것도 있으며, 3) 본문의 내용을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부연한 부분이 있다. 1)과 2)는 번역 자체를 통해 대부분 소화시킬 작정이지만, 3)은 친절한 해설의 손길이 필요한데, 특별히 심오하고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혜능의 원문을 함께 두고 살핌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금강경>의 뜻이 절로 밝아지고, 더불어 혜능의 목소리까지 듣게 될 것이다.

*아 참, 공지 사항 하나… 1부의 이야기와는 달리 2부는 주석이라서 경어체를 버리고 평서체를 택하기로 합니다. 이야기는 설득을 위한 것이고, 주석은 설명이 근본이라서 이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행여 필자가 시건방져졌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파라…

⑱ 승용 선사의 '송이버섯'

조태호



승용 선사(?~?): 송나라 항주 경덕사의 스님.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음.

네티즌 교리문답

'건달(乾達)'이 무슨 뜻입니까?

문 흔히들 하는 일 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들을 보고 '건달' 같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불교용어라면서요. 왜 건달이란 말에 이런 의미가 붙었는지 또 원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불교백수)

답 1 : 맞습니다. 할일 없이 빈둥대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합니다. 일하지 않고 먹으면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하지요. 또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없이 허풍 떨며 다니는 사람도 건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백수건달을 싫어하지요.

건달의 어원은 불교의 '건달바(乾達婆)'에서 유래됐습니다. 건달바는 제석천(帝釋天)의 아악(雅樂)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건달은 고기나 밥 등의 음식은 먹지 않으며 향(香)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건달은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즐긴다 하니 건달은 건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습성을 갖추고 있는 셈이지요. (건달맨)

답 2 : 건달은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유(中有)'의 인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사유(四有)'라 하여 생명의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누고 있지요. 새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단계를 '생유(生有)' 태어나서 살고 있는 생명을 '본유(本有)'라 하고, 죽는 것은 '사유(死有)'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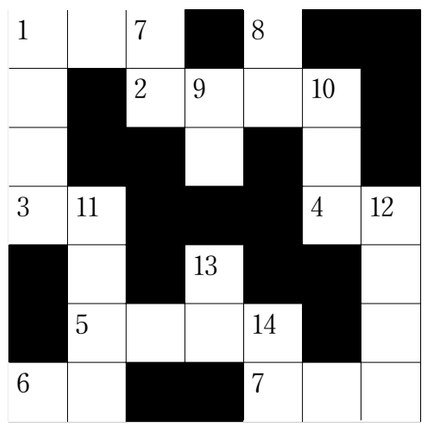
사람은 죽은 뒤 중유를 거쳐 본유 때 지은 업(業)에 따라서 생명을 받습니다. 네 단계의 생(生) 중에 중유의 생을 건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건달은 역시 확실성이 전혀 없는 불안한 존재이며 허공에 뜬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불학자)

답 3 : 경전에서는 건달을 소재로 인생의 무상(無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지도론>은 무상한 인생을 '건달비의 성(城)'에 비유하며, 인생은 허깨비와 같으며 산을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건달이 쌓은 성이란 쉽게 말해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으로 건달의 성이든 신기루이든 모두가 실체가 없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애착하고 욕심 부리던 것들은 마치 건달의 삶과 행위와 행위의 대가처럼 무상한 것입니다. 불자의 도리는 세상이 이런 것임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맨)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태양계의 8번째 행성 2. <북본열반경>에 나오는 말로 여러 소경이 코끼리를 만져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한다는 뜻 3. 아내의 아버지 4. 병법에 관한 책 5.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 한 나라를 다른 나라가 맡아서 하는 통치 6. 불교에서, '모든 망념과 미혹을 버리고 자기 본디의 타고난 불성(佛性)을 깨달음'을 이르는 말 7. 부식질을 20%이상 포함하고 있는 흙.

세로 1.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설이 되어 있는 곳 7. 어진 임금 8. 칼춤 9. 사나운 호랑이 10. 어떤 이성을 그리워한 나머지 생긴 병 11. 스투트닉호와 무궁화호는 ○○○○이다 12. 서쪽으로 10만 억 국토를 지나서 있다는 극락세계 13. 같은 핏줄을 타고난 겨레붙이의 계통 14.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됨.

선비따라 300년전 우리 사찰로



산중일기-17세기 선비의 우리 사찰 순례기
정시한(丁時翰) 지음
신대현 번역
혜안 펴냄 | 2만8천원



정시한이 3백여년전 둘러보며 소홀한 경판고 관리때문에 아쉬워했던 해인사 판전의 현재모습.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금은 습도조절은 물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잘 관리되고 있다.

조선 중기 60代 성리학자, 우리 산하 570일간 유람
여행길에 만난 스님들의 법명·성격·감회 꼼꼼히 묘사
석굴암 둘러본 느낌 미술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기록정신 빛나는 일기…답사 가이드북으로도 손색없어

"석문은 돌을 무지개처럼 쌓아올렸으며, 그 가운데에 커다란 석불상이 마치 살아 있는 듯 생생히 모셔져 있다. 좌대석도 바르고 고르게 돼 있어 그 기이한 기교가 돋보인다. 굴 위에는 뚜껑돌과 여러 돌들이 올려져 있는데 바르고 깔끔하게 돼 있어 기울어지거나 흠이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 불상들이 살아있는 듯 열지어 서 있다. 참으로 기괴하여 그 모습을 말로 다할 수 없다."

1688년 강원도 원주에 사는 한 선비가 경주 석굴암을 둘러보고 느낀 감회다. 석굴암에 대한 그의 기록은 당시 석굴암의 형태와 보존상태에 대한 유일하고도 자세한 기록으로 현재 미술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그는 '석굴암에서 15리 떨어진 골굴암에는 굴 앞에 처마와 창이 달린 간략한 목조가옥이 세워져 있었지만, 석굴암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목조 전실은 없었고 석굴 아래 따로 석굴암이란 암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여행일기인 <산중일기(山中日記)>에 적고 있다.

이 기록의 주인공은 조선 중기 성리학자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1625~1707). 한평생을 살아오며 전국 방방곡곡의 산하를 구경해보고 싶다던 그의 꿈은 그가 62세 되던 해에 실현됐다.



환성당 지안 스님 영정(양산 통도사 소장). 정시한이 지안 스님을 만나고 나서 "나이는 스물 세 살이지만 용모와 행동거지가 출중한데다 문장에도 능하니 앞날에 얼마나 발전할지 헤아리기 어렵다"는 평을 <산중일기>에 남겼다.

3년에 걸친 그의 유람은 총 4차에 걸쳐 이뤄졌다. 1차(1686년 3월13일~1687년 1월23일) 는 속리산 가야산 지리산 덕유산. 2차 (1687년 3월8~17일)는 원주 치악산 일대. 3차 (1687년 8월2일~10월20일)는 금강산과 오대산, 관동팔경 등. 4차 (1688년 4월10일~9월9일)는 속리산 팔공산 병산서원 도산서원 옥산서원 불국사 통도사 등을 유람했다.

정시한의 이런 기나긴 여정과 감상을 일기 형식으로 묶은 것이 바로 <산중일기>이다. 이 책은 원래 한문일기로 쓰여진 것을 불교미술사학자 신대현 박사(사찰문화연구원 연구위원)가 번역한 것. 역자 역시 전국 8백여 사찰을 답사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 전문 답사가라 사찰의 역사와 현재 사찰 상황을 자세히 주석으로 담아 놓아 이해가 훨씬 쉽다.

한비야 등 젊은 여행가들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작금의 현실로 볼 때 지은이의 여행경로는 60대 노인의 여정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길고 넓다. 순수 여행 기간만 570일이며 여정은 6,000여 리에 달한다. 답사 지역도 강원 충청 경상 전라 등 한반도 남부를 거의 총망라하고 있다. 평지를 다닐 때는 노새나 말을 이용 했고, 험한 산중 사찰을 다닐 때는 전적으로 도보에 의지했다. 3백년 전 당시의 도로 상황으로 볼 때 여정이 고되고 힘들었을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책 곳곳에는 '온 힘을 다해 산에 올라갔다' 는 말이 유난히 자주 등장한다. 또한 3백여 사찰을 답사한 지은이는 이 책에 노정에서 만났던 스님들의 법명뿐 아니라 성격과 만난 감회까지 꼼꼼하게 기록해 놓아 불자들이라면 자못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법주사 대암암에서 월담설제 스님과 그 제자 환성지안 스님을 만났을 때의 소감은 이 책에서 꼭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이 두 스님은 17~18세기 우리 불교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거목이었는데 지은이와 이들과의 만남은 가히 역사적 만남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지안 스님에 대해 지은이는 "나이는 스물 세 살이지만 용모와 행동거지가 출중한데다 문장에도 능하니 앞날에 얼마나 발전할지 헤아리기 어렵다"는 평을 남겼다. 지은이의 혜안이 뛰어나서일까. 지안 스님은 정시한의 예언대로 훗날 화엄사상과 선(禪)을 계승하는 '환성파' 라는 문중을 만들 정도로 조선 불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승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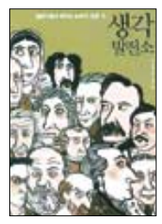
해인사를 돌아보며 팔만대장경의 경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 하며 쓴 일기도 들어 있다.

"판전(版殿)은 무릇 60칸이나 되며 경판은 아주 단정하고 반듯하게 쌓아올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관리하며 지키는 사람이 없어 선비나 승려나 세속의 남녀 할 것 없이 하루에 수백명이 관람하는데, 이 사람들이 혹은 마음대로 경판을 꺼내보고 아무곳에나 놓아두거나, 혹은 경판을 손상시키기도 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책을 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함께 현재 사찰 사진들이 수록돼 있어 여름 휴가철 사찰 답사 가이드북으로도 손색이 없지만, '밥을 먹었다' '세수를 했다' 등과 같이 일상 생활의 모습이 일기체 형식으로 책 군데군데 자주 반복돼 읽는 재미를 다소 반감시키는 것이 옥에 티일 것 같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생각발전소
-철학자에게 배우는 논리의 모든 것
옌스 쥐트겐 지음 | 도복선 옮김
북로드 펴냄 | 1만3천원

글쓰기와 논리적 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디지털시대, 철학은 꼭 갖춰야 할 기본이다.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대학의 지식센터 소장이자 독일의 대표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의 고정 필자인 지은이가 청소년들에게 철학적 사유가 얼마나 현실감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집필한 책이다.

논증의 기초 지식 스무 가지를 철학사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들과 함께 소개하여 논술, 토론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이 책에 등장한 예들은 다른 철학서들과 달리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이를테면 부부싸움 중에 오고 가는 언쟁이나 유명 과학자들 사이의 기 싸움, 영화감독의 제작 노트, 신문기사, 정치인들의 현란한 말장난 등, 친근하고 생생한 예들이 읽는 재미를 더한다.

논리와 한바탕 놀아볼까요

지은이는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하고 쓰는 '생각의 기술' 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이 책에서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 기술은 정리된 생각들을 놓고 토론이 벌어진 곳이라면 철학적 논쟁이든 정치적 논평이든 휴가를 둘러싼 승강이든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논리적인 규칙을 어기지 말며, 보고 또 보고, 남의 말을 비틀고(패러디) 증거를 제시하며(본보기) 무슨 뜻인지를 밝히는(정의) 모든 논리적인 방법들이 소개된다.

이제 소크라테스에서 하버마스에 이르는 쟁쟁한 철학자들은 한껏 무게 잡는 형이상학적 담론에서 내려와 지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독자와 함께 고민에 빠진다.

기술에 따라 '말' 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보자. 두 명의 수도사가 기도하고 있었다.

A수도사가 "난 수도원장의 허가를 받았다" 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걸 본 B수도사는 수도원장에게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 물었다가 크게 혼났다. 알고 보니 A수도사는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되나요?" 라고 물었던 것이다.

'논리력 키우기' 는 좀더 눈높이를 낮춘 어린이 지도서다. 퀴즈와 동화를 통해 토론과 논술의 능력을 하나씩 늘려가는 학습이다. 수영 챔피언이 되고 싶어하는 소년 로비는 '엄격한 훈련 방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평범하게 자랄 것인가' 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빠진다. 이 선택은 "삶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과 명예인가? 아니면 자유와 즐거움인가?" 라는 철학적 고뇌로 직결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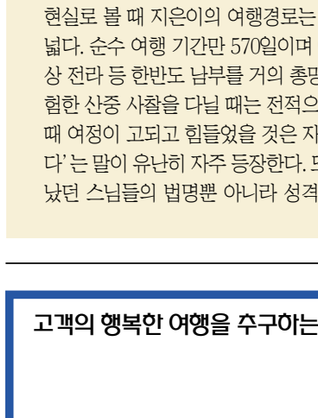
혹시 자녀중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본 부모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직접 읽어보길 권한다. 그렇지 않고 비논리와 자가당착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방식대로 한다면 아이들과의 토론에서 번번이 무시당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서다.

■최원형(강원대 철학과 박사과정)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9월 11일 출발(모집중)
티벳 성지 순례 8일
여행경비 : ₩ 1,89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포함)
왕자 싯다르타에서 깨달은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묘음에 밀교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

미얀마 태국 성지 순례 6일
여행경비 : ₩ 1,290,000원
화려한 황금빛 에머럴드 사원이 있는 부처님의 나라 태국과 세계 8대 불가사의중 하나인 천년 보고 앙코르 와트의 신비를 간직한 미얀마가 여러분을 불은(佛恩)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90,000원
10명이상 출발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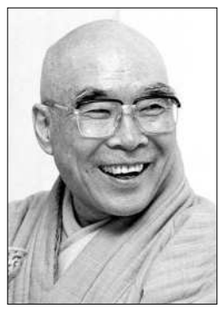


• 아로하 : 1개월분 (270캅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캅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성불 후 첫 일성(一聲)으로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의 지혜와 덕상(德相)을 갖추었건만, 오로지 망상에 집착되어 스스로 체득하지 못한다"고 설했다. 중생이 모두 '본래 부처'임에도 착각에 빠져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본래 부처임을 알 수 있을까? 부처님은 다시 "모든 존재는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여래를 본다"고 이르셨다. 연기법(緣起法)을 이해하는 것이 '본래 부처'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연기법과 무아법(無我法)을 봉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사진)이 알기 쉽게 풀이했다. 2004년 11월부터 5개월 간 월간 <법공양>에 연재했던 법문을 모은 <연기법과 불교의 생활화>에서 스님은 "연기법과 무아의 이치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생활 속에 적용시키면 참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불교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생활속에서 배우는 연기법과 무아법

불교 교리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결코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수히 겪는 일들을 예로 들어 쉬운 말로 그 속에 담긴 참뜻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무아에 대한 스님의 설명을 들어보자.

"우리는 늘, 앞집은 대형차를 모는데 우리는 왜 소형차냐? 옆집 아이는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이냐며 열등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착각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나'라고 주장하는 이 존재도 연기로 잠깐 모인 것일 뿐, '나'는 본래 없습니다."

연기법과 무아법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스님은 '정견(正見)'을 세울 것을 강조한다. 정견을 세운다는 것은 곧 '이기적인 나는 본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서로 돕고 은혜를 느끼면서 생활하는 것이다.

일례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 염주를 밖에 걸어두고 가는 사람에게 스님은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을 초월한 것이 염주이므로 분별을 내지 말고 편안하게 볼 일을 보라"고 말한다. 이처럼 사물을 분별하는 사견(邪見)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히 참선과 염불, 경전탐구, 봉사를 해 나가야 하며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니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본래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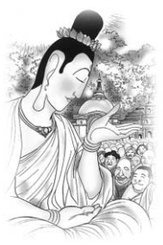
연기법과 불교의 생활화
고우 스님 지음 | 효림 | 4천원

"불법과 SF는 일맥상통"

'로보트 태권V' 그린 김형배 화백 불교만화 출간

"현재 판매되고 있는 불교만화들은 그림과 구성이 허술하거나 일본만화를 그대로 옮긴 것이 많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야기 구성이나 그림의 미적 완성도가 좀 더 높은 불교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펜을 들게 됐습니다."

1976년 <로보트 태권V>라는 만화로 국내 SF(science fiction, 공상과학) 만화의 지평을 연 김형배(58 · 사진) 화백. 10여 년간 작품 활동을 중단했던 그가 2002년 다시 펜을 들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화로 엮기 위해서다. 부처님 일대기와 <화엄경> <유마경> <백유경>을 다섯 권의 만화로 옮긴 <마음이 맑아지는 불교 이야기>는 이번에 1~3권이 출간됐고, 조만간 4 · 5권도 마저 선보일 예정이다.



불교만화 작품을 구상하고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2002년 김 화백을 만난 적이 있는 기자가 "3년 만에야 작품이 완성됐다"고 말문을 열자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예전부터 불교에 관심 갖고 경전을 읽어 왔지만, 이를 만화로 재구성하는 것은 전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원전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읽었고, 관련 자료를 찾아 당시의 사찰과 복식을 최대한 고증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경전에 등장하는 일화와 가르침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200페이지가 조금 못되는 <유마경>은 꼬박 6개월에 걸쳐 완성했다. 경전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만화로 구성하는 것이 '창작' 만큼이나 고된 일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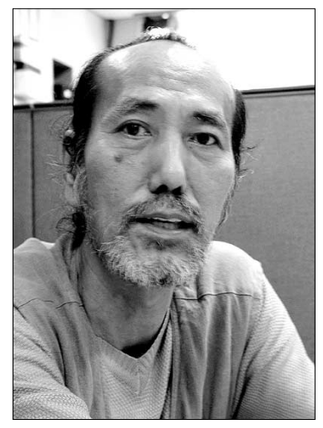
"여러 경전을 읽는 동안 교리나 개념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경전을 만화로 그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미련하게' 경전을 읽다보니 어느 순간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군요."

당대 사찰 · 복식 등 고증
화엄경 · 유마경 · 백유경
부처님 일대기 등 만화로

경전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유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고스란히 나타내고 싶었다는 김 화백. 산고(産苦)가 컸던 만큼 기쁨과 아쉬움도 큰 것일까?

"<화엄경>을 제대로 그리자면 최소한 10권 분량은 되어야겠지만 한 권의 책으로 줄이다보니 '입법계품'만 담게 됐죠. 하지만 '입법계품' 안에 <화엄경>의 모든 가르침이 녹아 있다고 생각하며 아쉬움을 달래야죠."

책이 나온 후 주위의 반응은 "SF 만화 그리던 사람이 갑자기 왜 불교 만화를 냈느냐?"로 모아진다. 하지만 그는 절대 '갑자기'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동안 불교에 관심을 갖고 경전을 읽어왔고, 언젠가는 만화로 그려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전 우주를 관통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과학적 공상으로 상식을 초월한 세계를 그리는 SF에는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말한다.



김 화백은 이제 작가의 손을 떠난 책을 바라보며 "불교가 어렵다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불교의 진리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쉽지만, 그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이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과정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읽다보면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마음이 맑아지는 불교이야기 1, 2, 3
김형배 글 · 그림
자음과모음 | 각권 9천7백원

월정사 단기출가에서 어떤일이?



단기 출가, 산사에서 마음을 보다
민병직 지음 | 운주사 | 8천원

모집공고 사흘 만에 신청 마감. 참가 경쟁률 10대 1. 월정사 단기출가 프로그램은 지난해 북적이는 속세를 벗어나고픈 사람들 사이에 열풍을 일으켰다. TV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져 더욱 관심을 고조시킨 단기출가. 과연 한 달 간의 일정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월정사 단기출가가 궁금한 사람이라면 민병직 씨가 쓴 체험기 <단기 출가, 산사에서 마음을 보다>를 펼쳐보자. 문인이자 초등학교 교사인 저자가 2005년 1월 5일~2월 4일 월정사의 출가생활 경험을 글로 옮겼다.

출가 원서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면접시험격인 갈마, 삭발 발우공양 삼보일배 참선 등 출가자들이 산문(山門) 안에서 치러야 할 일들이 차례로 펼쳐지고, 복잡하기만 해 보이는 의식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어려운 불교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해 놓아 불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한달의 일정과 참가자들의 면면을 읽다보면 '출가'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을 것이다.

사기장 신한균의 산야초 이야기



산도둑놈의 산사랑 이야기
신한균 글 · 사진 | 가야넷 | 9천5백원

통도사 아랫마을에서 도자기를 빚는 사기장 신한균씨가 25년간 산속에서 살아온 산사나이 '솔뫼'의 산야초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솔뫼는 자신의 이름인 송산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송씨는 전국의 명산을 돌며 약초를 연구하고 있다.

잔가지와 황토, 2천원 어치의 못만을 이용해 지은 '솔뫼굴'에 살고 있는 송씨는 "세상에 진짜 잡초는 없다"고 말한다.

봄의 전령사인 부지깽이나물과 흔하지만 약재로도 손색이 없는 부처손, 여름 더위를 막아준다는 씀바귀나물, 뱀에 물렸을 때 해독제로 사용하는 삿갓나물 등 자연이 품고 있는 산야초들을 자신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잡초'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산야초들을 마구 채취해서는 안 될 터. 송씨는 어린 약초나 나무의 근간인 뿌리, 몸체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나름의 원칙을 세웠다. 자연의 고마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돌에 새긴 희망
이학종 글
이겸 사진
이끌리오
1만8천원

마을로 내려 온 미륵부처

삐뚤삐뚤 새겨진 얼굴에 비례가 맞지 않는 신체.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한다는 미륵(彌勒)은 여느 부처님과 달리 절대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친구 같고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미륵은 저 먼 곳에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부대끼며 위로해준 의지처이자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돌에 새긴 희망>은 20여년 간 불교 전문기자로 활동해 온 지은이와 불교 전문사진작가 이겸 씨가 2년여에 걸쳐 전국의 미륵을 찾아다닌 결과물이다. 책에는 40미터가 넘는 바위 절벽을 가득 채운 선운사 도솔암 미륵, 미륵도량 법주사의 거대한 미륵대불, 마을 입구나 농지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안성의 마을미륵 등 갖가지 모습의 미륵부처님을 친견한 기행문 22편이 실려 있다.

지은이는 "선조들은 좌절하거나 곤경에 처할 때마다 미륵을 찾아 의지하고 그곳에서 희망을 지폈다"며 "요즘 좌절과 회의,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이 미륵을 통해 새로운 꿈과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히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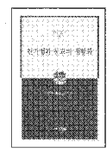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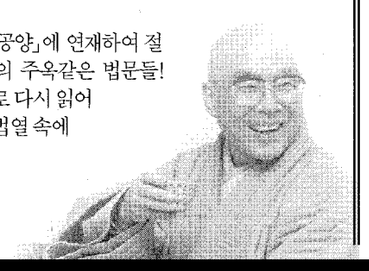
고우 큰스님 법어집 신간
연기법과 불교의 생활화
70평생을 오로지 정진만 하셨던 고우 큰스님의 첫번째 사자후!
"연기법이란 무엇인가?"
"정견 속에서 불교를 생활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에 대해 스님께서는 매우 알기 쉽게 설하셨습니다.
아울러 행복한 삶을 여는 방법, 오늘을 알고 사랑하기, 참된 자녀교육, 돈에 대한 자세, 신심을 정립하는 법, 복과 지혜를 닦는 법, 정견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는 법 등에 대해 자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의 첫 단계부터 정견을 기르고, 그 정견을 생활에 적용시켜 나가야 합니다.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닌 불교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때, '나'는 불교 속에서 더욱 잘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주위에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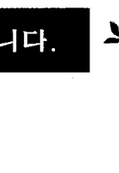
2004년 말부터 「법공양」에 연재하여 절찬을 받았던 스님의 주옥같은 법문들!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다시 읽어 보십시오. 크나큰 법열 속에 젖어들 것입니다.



4X6판 / 160쪽
값 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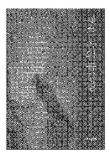
불자 필독 경전 해설서

생활 속의 관음경 우룡 큰스님 / 신국판 / 값 6,000원



괴로움을 해탈시켜주는 관음경! 여러 가지 영험담을 삽입하여 쉽게 풀이한 이 책을 읽으면 신심이 샘솟고, 관음의 가피를 입어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의 본질과 기도성취의 원리를 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 우룡 큰스님 / 신국판 / 값 7,000원



금강경을 우리 생활에 접목시켜 강설하셨습니다. 한글 번역의 문체가 아름답고,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으며, 삶의 현장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능히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명 뜻을 알면 금강경 독송기도도 더욱 깊이를 더하게됩니다.

생활 속의 보왕삼매론 김현준 /값 6,000원



불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보왕삼매론》을 해설한 이 책은 병고해탈, 고난퇴치, 마음공부와 마장극복, 일의 성취, 참사랑의 원리, 인연 다스리기, 공덕 쌓는 법, 이익과 부귀, 억울함의 승화 등 누구나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속시원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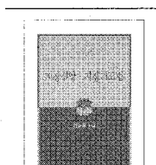
백중기도 · 천도의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영가천도 우룡큰스님 지음 / 4×6판 / 값 4,0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였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 · 독경 · 사경의 천도, 49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궁금증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4,000원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참문)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 그리고 지장염불을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성큰스님 법문집"
마음발을 가꾸는 불자



간절히 남을 따라 찾지 말라
점점 나하고 멀어진다
지금 내가 스스로 가니
가는 곳마다 만나는구나

· 천도재 및 백중 기도법을 비롯하여
· 기도성취의 기본원리와 참회법
· 부처님께서 오신 뜻, 불자의 길
· 내가 나를 다듬는 방법
· 주인 노릇하며 사는 법
· 지혜롭게 공부하는 방법
· 생활 속의 불교수행법
· 업장을 녹이는 공부 등에 대해
큰스님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보성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

부처님 향한 지극한 정성은 같아



영산재와 밀교의식을 말한다

옥천범음대학 학장 **일운** 스님

VS

티베트 규토 사원 **툽텐 직메스** 스님



무더위를 식혀준 단비가 내린 8월 2일 오후. 신촌 봉원사에서는 옥천범음대학 학장 일운 스님과 티베트 규토 사원 툽텐 직메스(Thupten Jigmes) 스님이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한국과 티베트를 대표하는 불교 의식 대가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툽텐 스님은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규토 사원의 최고 범패승이다.

툽텐 스님을 보자 일운 스님은 합장하며 "지난 법련사 모래만다라 전시장에서 툽텐 스님의 밀교 예식을 관람하며 음률이 한국의 범패 가락과 비슷해 놀랐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그러자 툽텐 스님도 "한국의 범패는 잘 모르지만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예식이니만큼 비슷한 가락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화답했다.

이어 두 스님은 염불당으로 자리를 옮겨 두 나라 불교의식의 계승 교육 방법 등 전반적인 불교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영산재와 티베트의 밀교의식

일운 스님: 한국 불교에서는 천도재를 보통 49재(齋)로 불리는데, 그 규모에 따라 상주권공재(常住權供齋), 시왕각배재(十王各拜齋), 영산재로 나눕니다. 상주권공재는 보통 1일, 시왕각배재는 2일, 영산재는 3일이 걸리지요. 규모가 가장 큰 영산재는 법화사상(法華思想)에 따라 석가모니불이 설법하던 영산회상(靈山會相)을 상징적으로 설하고 지내는 의식입니다. 즉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일시적으로 영산회상이 되는 것으로 영혼은 이곳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극락왕생하게 되는 거지요. 야외법회(野外法會)로 진행되는 영산재는 개인적인 발원보다는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툽텐 스님: 티베트에서도 11세기부터 한국의 영산재와 같은 천도 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티베트는 49재를 끝으로 영가 천도는 끝이 납니다. 한국처럼 매년 제사를 지내지 않지요. 49일이 지나면 영가는 다시 환생해 우리 이웃으로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재를 지내지 않는 대신 부모 형제나 이웃들에게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범패의 소리 발성은 어디서 나오나

일운 스님:한국에서 노래 할때 보통 국악인 민요는 가슴 아래에서 소리를 끌어내는 반면 범패는 제일 아랫배에서 소리를 끌어냅니다. 가장 차원이 높은 발성법이지요. 그래서 득음(得音)을 위해 10년 이상을 연습하고 배웁니다.

툽텐 스님: 그렇군요. 밀교사원의 범패는 심장에서부터 목부분까지 소리를 끌어올립니다. 약간 특이한 발성법이라서 미국의 권위있는 소리연구소에서 저희 소리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결과 세가지 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멀티 사운드라고 하더라구요. 소리를 들을때는 굉장히 저음인데 실제로 나오는 고저는 소프라노 수준으로 높다고 합니다.

▲한국의 범패와 비슷한 부분은 있는가

일운 스님:(실제 소리를 시연하며)지난번 법련사 행사에서 밀교 의식을 들으니까 한국 불교의 안채비 소리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로왕 보살 마하살'을 외며 돌아가신 영가를 일주문 밖에서 도량으로 모셔올 때 하는 인성 소리가 있는데 그것과 흡사합니다.

툽텐 스님:(스님도 시연하며) 듣고보니 비슷하군요. 아마도 처음에는 천천히 저음으로 나가다 끝에 가서는 굉장히 고음으로 높아져서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밀교에서는 소리전 목을 풀어주는 '허덜품'이 있는가

일운 스님:한국에서는 범패승들이 본 의식에 들어가기 전에 목을 풀어주는 '허덜품'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고음을 낼 때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발성이지요. 밀교의식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툽텐 스님: 없습니다. 바로 본 의식에 들어갑니다.

▲의식때 악기 사용은

일운 스님: 한국의 영산재에서는 북, 징과 같은 대사물과 목탁, 요령과 같은 소사물을 의식에 따라 사용합니다. 사물을 쓰는 이유는 악귀중생을 제도하려는 목적에서지요.

툽텐 스님: 대부분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식에 따라 북과 금강저, 요령 정도를 사용합니다. 티베트 의식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목적보다는 스님들의 수행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생에게 의식을 통해 베푼다는 개념도 강합니다.

▲후진 양성과 교육은

일운 스님: 한국은 영산재를 1973년부터 국가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해 놓고 전통 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도 활발한 편이지요. 특히 저희 태고종에서는 옥천범음대와 동방불교대학에서 범패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학장으로 있는 옥천범음대에서는 준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 탄탄한 강사진들이 범패승 배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툽텐 스님:의식을 배우는데 저는 14년이 걸렸습니다. 규모 사원에서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있질 않습니다. 스승과 마주앉아 득음할 때까지 1:1 지도를 받습니다. 보통 저희 사원에는 2백명 정도의 범패승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선발된 다섯명 중에서 다시 달라이 라마가 최종 1명을 뽑습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인간문화재 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정리=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옥천 범음대학장 일운 스님(왼쪽)과 티베트 규토 사원 툽텐 직메스 스님이 한국과 티베트의 범패의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해설이 있어 두배 즐겁다

■ 니르바나 필하모닉 키즈음악회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는 8월 13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포천시 소재 반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해설이 있는 키즈음악회 – 세계민속음악여행'을 마련한다.

지방 순회공연 두 번째인 이번 포천 공연에서는 김양희 아나운서가 해설을 맡았으며, 일렉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씨가 특별 게스트로 초청돼 깜짝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불자 시각장애인 김지선씨의 바이올린 독주도 열린다.

'세계민속음악'을 주제로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에서 (사)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스님)와 함께 개최된 바 있다. (02)415-2599

한국 등화구의 변천사 한눈에

■ 국립민속박물관 '빛-등(燈), 전통과 근대' 특별전

사찰 공양구 촛대 등 250여점 선보여



온 사바세계를 환하게 비춰준 등(燈)의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8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서울 경복궁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빛-등(燈), 전통과 근대'가 바로 그것. 이번 전시에서는 초와 촛대, 등잔, 등화구(燈火具) 등 한국 등화구의 변천사와 그 의미를 보여주는 유물 250여점이 선보인다.

불빛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초와 이것을 세우는 촛대는 가장 기본적인 전통시대의 등화구이면서 각종 의례에도 필수적이었다. 특히 절에서 공양을 드리거나 제사와 혼례에도 반드시 촛불을 켰을 정도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조선시대 궁중의 연희와 사찰에서 사용되던 촛대 등을 1 · 2부에 걸쳐 전시한다. 또한 3부에서는 근대기에 들어오면서 변화된 네온 사인과 조명등을 진열해 놓았다. (02)3704-3171

"황토는 병을 치유하는 신비가 있다는데"
황토집 건축에서부터 황토요법 [민간요법]을 상담해 드립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천연 황토방
천연황토 BIO21
※ 천연 황토방의 특성
· 새집증후군의 해결은 물론 화재에 안전하다.
· 인체에 해로운 화학재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 열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100% 생황토로 시공한다.
· 도배를 하지 않고 흙에서 자유롭게 생활한다.
· 집안에서 황토찜질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발명특허 제 0300446호
천연황토 BIO21
TEL : 041-663-4977~8
H.P : 016-269-1233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70,000
3. 마(국내산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4. 면 : 풀 안해도 됨(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5. 울 · 모시론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 250,000
7. 가사 大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8. 신도용 조끼 · 바지(모직 황토 먹물염색)
■시원한 차이나 남방, 모지, 걸망,손가방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9-438-010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4>



기도에서 수행으로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나요
수행으로 거듭나야 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 비구니 사찰에 여자 신자 5백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노년에서 아주 젊은 여성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하는 일과 집안 배경이 다양하였습니다. 여인들은 한 달에 6일 절에 찾아왔습니다. 6재일(齋日)이라 하여 이 날 만큼은 세속의 잡다한 일도 잠시 쉬고 화려한 치장도 삼가며 수행자처럼 하루를 보내는 것이 신자들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8계를 지키며 지냈는데, 8계란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라고 하는 5계에 꽃이나 향을 뿌리고 장식하거나 떠들썩한 흥밋거리에 정신이 팔려 다니지 말라, 높고 넓고 잘 꾸며진 침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 때 아닌 적에 먹지 말라 라는 세 가지 조항이 첨가된 것입니다.

이 절을 창건한 사람은 위사카. 매우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떠들썩하게 웃고 놀고 집안을 자랑하던 여인들이 이렇게 재일(齋日)에 절에 와서는 철저하게 8계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무슨 이유에서 절에 와서 8계를 받고 재일을 지키십니까?"

그녀의 질문을 받은 5백 명의 여인은 제각각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노년의 여성 불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다음 천상에 태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 여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꾸만 늙어 가는데 남편은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줍니다. 제발 내 남편이 젊은 여자에게 한눈팔지 말기를 바라며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갓 결혼한 젊은 여자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서 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딸보다 아들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젊디젊은 여인들은 말했습니다.

"빨리 제 짝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물도 좋고 정도 많고 돈도 많은 남자를 만나 하루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5백 명의 여인들은 제각각의 대답을 하였지만 대체로 연령대별로 대답은 엇비슷하였습니다. 위사카는 그 여인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나아가서 여인들의 대답을 하나하나 들려 드렸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사카여,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은 중생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대사(一大事)이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시들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중생은 이 고통스러운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려고 발원하여 힘써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생사윤회의 밧줄로 자신을 꽁꽁 묶고자 애쓰고 있구나."(<법구경> 거해스님 편역, 고려원, 404~405쪽)

"미령아, 나를 따라서 오직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겠느냐?"

저에게 불교라는 엄청난 세계를 열어주신 고 익진 선생님께서 20대 중반에 막 들어선 저에게 나직하게 물으셨습니다.

몇몇 법우들과 법회가 끝난 뒤 선생님 방에 둘러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권유를 받은 것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그렇게 하겠노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선생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사실 2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세속의 일들을 접기에 매우 아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연애도 막 시작하였습니다. 자식에 대해 끔찍할 정도로 애착을 보이신 아버지를 핑계 댔지만 사실 저는 세상의 사랑과 유혹거리를 포기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던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 후 선생님은 아버지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좀 이른 감이 없진 않지만 제 머리카락에도 흰 빛이 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수행에 두 발 다 담그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위사카에게 대답한 여인들처럼 저는 아직도 생사윤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나의 진실한 삶을 위한 수행으로 거듭 나야 할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법



지상 백고좌

성수 스님

(해동선원 조실)



"알고 싶은 마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지금 당장 목을 잘라 바칠 정도로 간절하게 물어야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물어봤자 천번 만번 일러줘도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가.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에 눈에 눈물이 똑똑 흐르고, 알고 싶은 그 심정에 푹 젖어야 돼."

올해 세수 83세인 성수 스님은 산청 해동선원(海東禪源)에 계셨다. '묵은' 절 땅 대신 대한민국의 인재를 길러낼 '햇' 땅을 찾던 스님께서 폐교를 인수해 '새끼 사자'를 기를 선원으로 가꾼 곳이다. 넓은 운동장을 가로 질러 차를 세우고 마당에서 풀을 뽑던 보살의 안내를 받아 스님께 인사를 여쭈었다.

"기자들이 온다고 해서 불을 때놨지."

에어컨을 가동시켜 놓았다는 말씀이시다. 수박이 차려진 쟁반이 들어오고, 스님은 한 조각 먹고 시작하라며 수박을 권하셨다.

"절은 뭐하는 곳이며 나는 왜 절에 다니는가 하는 것을 알고 다녀야 한다고 늘 강조하시는데 왜 절에 다니고 절은 뭐하는 곳입니까?"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법 가르쳐 주는 곳이 절이야.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법 배우러간다는 것이 분명히 서면 물을 말이 많아. 일주문에 들어갈 때도 왜 일주문이냐? 기둥 두 개로 문을 세워놨거든. 내 중심이, 목적, 포부와 기대와 희망, 중심이 딱 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일주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또 대웅전만 해도 대웅전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마음속의 팔만사천 번뇌를 다 항복받은 완전무결한 분이 있는 곳이 대웅전이야.

그러니 대웅전에 들어갈 때는 팔만사천 번뇌를 다 떼놓고 들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놈은 법당에 천년만년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 이 뜻을 알고 가면, 번뇌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법당문을 열지 못하고 울어야 돼.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검토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부처하고 대화가 되는 거라. 영생불멸(永生不滅)하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진아(眞我) 세계에서 사는 어른하고 대화가 척 되면 천하만물은 무비선(無非禪)이요, 세상만사는 무비도(無非道)로다. 천하에 선 아닌 게 없고 세상만사는 도 아닌 게 없는 그 재미가 오도독 오도독 하도록 살게 되는 거라."

기대와 포부가 확실하면 물을 말이 참 많다고 했다. 이는 스님의 이력만 살펴봐도 쉬이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원효대사와 같은 도인이 되겠다는 포부 하나로 열아홉 살에 집을 떠나온 스님은 명안종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도를 물었다.

"목을 바치고라도, 또 하루를 살아도 알고 살아야겠다는 포부가 머리까지 차서는 죽을 고비를 네 번이나 넘겼어. 그냥 '성수'가 된 게 아니야. 효봉 스님하고는 죌일 만에 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맞아 죽기로 서약서를 쓴 사람이야. 효봉 스님은 조실 자격 없다고 욕보이고 다시 해인사로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자격 없다'고 입방 허락이 안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자격 있는 효봉 하고 자격 없는 성수하고 누가 나은지 보자하고 변소에 가서 구멍에다 장작개비 세 개 걸쳐놓고 거적 덮어쓰고 요놈의 효봉 때려죽이고 내가 조실지하고 악을 쓰고 앉아 있었어. 배고픈 것도 추운 것도 잊어버리고 삼일동안 앉아 있었지. 그때는 분심이 나서 밥을 입에 퍼넣어도 안 넘어가. 그렇게 육 일만에 펄펄 끓던 열이 스윽 내려가고 죌이 나서 '효봉 때려 죽인다'는

성수(性壽) 스님은 192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난 성수 스님은 여덟 살 때부터 원효대사 같은 도인이 될 꿈을 꾸다가 44년 부산 내원사에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 48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조계사, 범어사, 해인사, 고운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다. 스님은 황대선원, 해동선원, 법수선원 등의 도량을 열어 '대한민국의 인재'를 만드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다.

공생선원 개원 3주년 큰스님 특별법회

현대인의 생활 참선 수행법

깨달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바른 수행의 길을 열어줄 이번 초청법회에 공생의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각화사 태백선원 고우 스님

● 재가자의 참선수행법
● 8월 21일 (일) 오전 10시 30분



금강선원 혜거 스님

● 경전은 수행의 본 바탕
● 8월 28일 (일) 오전 10시 30분



화계사 국제선원 현각 스님

● 현대인에 맞는 참선수행법
● 9월 4일 (일) 오전 10시 30분

오시는 길
● 마을 버스 :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2번 출구로 나와서 마을버스 05,06을 타서 도봉 보건소에서 내리면 됩니다.
● 간선버스(파랑) : 100, 106, 107, 130, 140, 141, 150, 160, 161
● 지선버스(녹색) : 1018, 1019, 1118, 1120, 1121, 1126, 1148, 1151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TEL : 02) 900 - 2448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08호

http://cafe.daum.net/zenmaster

일요가족참선법회 / 청년법회 / 거사회 // 입문반 / 참선반 / 경전반

불교 유식학 강좌 학인 모집

불교의 유심사상이며 심리학인 유식학은 유심식관이요, 진여실관인, 禪의 이론적 요체를 담은 학문입니다. 수행은 세세생생 하는 것이요, 교학이 갖춰지지 않은 수행은 이론이 없는 종교와도 같은 것이니 뜻있는 동참 수학의 유연 도반을 모십니다.

◆ 강 사 : 오형근 박사 (동국대학교 前불교대학원장)
◆ 강의과목 : 유식학 (전과정 마스터)
◆ 개 강 : 2005년 8월 25일
◆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법회일은 금요일)
◆ 학 기 : 2학기 (방학 없음)
◆ 대 상 : 스님, 일반인 (종파 관계없음)
◆ 접 수 : 8월 15일까지
◆ 문 의 : 02)496-3952~3

한 국 불 교 임 제 선 학 원

배우는 것이 불교



젊은 시절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도를 구했던 성수 스님은 돌부리 하나도 스승임을 알아야 공부가 무르익는다고 강조했다.

생각이 다 바뀌져가지고 '효봉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절이 나와. 그때 그 고마운 마음이 사무쳐서 내가 지금도 절이 곱게 나와. 효봉 스님의 자격 없다는 그 말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절이 언제 났겠냐 하고. 그때부터 입을 딱 다물고 숨어서 살았어. 이처럼 죽을 고비도 넘기고 장벽도 부딪쳐야 절이 드는 거야. 대실패가 대성공의 어머니라 했잖아. 도를 닦으려면 많은 실패를 해야 돼."

스님의 안목을 넓혀준 죽을 고비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 찾아오기도 했는데 이는 '알고 싶은 마음이 사무치면 돌부리 하나라도 스승 아님이 없음'을 또 다시 일깨워주는 일화이다.

"내가 천하의 선지식한테 다 가서 질문해도 꼼짝을 못하니까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 하고 내가 나 혼자 좋아서 사나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렇게 다니다가 하루는 골목을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저 중 봐라' 하는 거라. 한 명이 중 봐라 하니까 주위 아이들이 모두 불알 내 놓고 서서 손뼉을 치면서 중 봐라 중 봐라 하는데 거기서 내가 항복을 받았어. 가짜 중이다 이거야. 덜 익은 중이다 이거야. 아이들 그 말 듣고 가사장삼을 몸에 댈 자격도 없고 시주 밥 입에 댈 자격도 없다는 생각에 가사 장삼 불태우고 밥숟가락 놓고 산 속에 들어가서 3년을 풀만 뜯어먹고 살다가 나오니까 그때야 비로소 철이 좀 났어. 그래서 전국에 법문 한다하면 찾아가서 들어보면 다 나를 위해서 법문 하는 거라. 부처님 말씀도 한마디도 내 버릴 것이 없어. 경책도 읽어보면 예전에는 그 말이 그 말이다 생각했는데 어린애한테 한방 맞고 경책을 다시 읽어봤더니 아주 금쪽같은 귀한 말씀이고, 맛이 오도독 오도독 나는 말이야. 그래서 철이 든 거야." 벌거숭이 어린애를 스승삼아 한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스님에게 또 한번 크게 죽는 계기가 찾아왔다.

"토굴 지어서 살고 있으니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귀찮아.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실컷 공부하겠다고 원을 세우고 천성산 제일 높은 골짜기 안에 비어 있던 토굴로 들어갔어. 불을 지피고 새벽이슬에 젖은 옷을 벗어 방에다 널어놓고는 '이제 드디어 내 살 데를 왔구나' 하고 턱 앉아 좌선을 하니 너무 재미가 나는 거라. 두 시간 정도 지났을 때인데, 발자국 소리가 나서 젖은 옷을 도로 주워 입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나물바구니를 들고 나타나더니, '이 깊은 산 중에 혼자 와서 삽니까?' 하고 물어. 그래서 조용한데 공부 좀 실컷 하려고 왔다고 사실대로 얘기했거든. 그 말끝에 '물소리 새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 하고 되묻는데 그만 할 말이 없는 거라. 입이 안 떨어져. 멍하니 앉아 있으니 그 여자는 물러가 버리고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지 모르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로 좋은 말을 들은 거야.

물소리 새소리는 안 시끄럽나? 어디가면 안 시끄럽냐 이거지. 자기가 쉬어야지. 덜 마른 옷을 그대로 입고 도로 걸망지고 돌아와서 그 뒤부터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똥을 누든지, 내 할 일 하면 된다 이거야. '물소리 새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 하는 그 말이 평생의 스승이 된 거야."

말씀 내내 스님은 발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심이 분명해야 돼. 도사가 되고 싶으면 도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도사가 되느냐 묻고 배워야 되고, 어른이 되려면 어른 짓 하는 법도 배워야 돼. 묻고 배울 게 참 많아. 도를 배우러 왔으면 도를 배워서 알고 찾아야 되는데 도를 모르고 도 닦는다고 앉아 있으니 도를 묻고 배우는 놈이 없어. 목적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불공 기도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야.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법 배우는 것이 불교야."

스님은 불교를 바로 알면 비로소 진정 사는 길, 즉 자기가 자기를 죽이지 않는(不殺)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살 줄 알고 살아야 돼. 늙으면 가야 된다, 가야 된다 하면서도 갈 곳도 모르지, 갈 길도 모르지. 가야 될 놈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죽어서는 아우성을 쳐봐야 소용없어. 살아 있을 때 갈 곳도 갈 길도 알아야 되고 갈 놈이 누군지도 만나봐야 돼. 자기가 자기를 만나 춤을 한번 추는 것이 급선무야."

> "하루 세 번 5분씩이라도 자기한테 속지않고 당당하게 앉아봐"

스님은, 요즘 사람들은 자기 밥 자기가 먹고도 남한테 욕먹을 헛짓을 하고 산다며 정신을 차리고 수행 정진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가 뭔지, 믿는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천지야. 종교는 높을 종자고 교는 변함없는 진리야. 변함없는 진리를 배우러 가는 곳이 절이야. 믿는 것은 따라가는 것을 말해. 우리말로 하면 본보러 가는 거야. 흉내를 내야 해. 부처님 되려는 흉내를 내면서 하루에 세 번 5분씩이라도 자기가 자기한테 속지 않고 당당하게 앉아보란 말이지. 그리고 참선(參禪)한다고 하면 참(參)자가 무슨 자인지 선(禪)자가 무슨 자인지 이 두자의 뜻을 알고 시작해야 돼. 이마를 닦는지 손을 닦는지 궁둥이를 닦는지 모르고 닦아라 하는 놈도 고얀 놈, 그것도 모르고 닦는 놈도 바보 온달이야. 욕을 해도 괜찮아. 욕을 해야 뽈딱구가 나서 찾아오지. 칼을 가지고 목 베러 오는 놈이 있으면 안고 춤을 한번 추겠어."

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성수 스님의 '오도독 건강비결'

팔순이 넘었어도 병원 한번 안가고 약 한번 약 먹었다는 성수 스님의 건강 비결은 뭘까?

"몸이 편치 않는 것도 모두 자기 마음에 달렸다"고 강조한 스님의 건강 비법은 "탐, 진, 치 삼독 세 도둑놈한테 끌려서 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도둑한테 안 속으니까 재미가 오도독 오도독 나게 살거든. 찌그러봐라. 그러면 주름살이 생긴다. 우리도 이차돈처럼 흰 피도 만들 수 있고 독한 피, 더러운 피도 만들 수 있거든. 아침부터 이 놈의 새끼야 하고 악을 쓰면 독한 피가 만들어지고 화내고 지독한 소리 하면 소화도 잘 안되고 절로 병이 나게 돼."

또 한 가지 비법은 남 걱정, 남 탓 안하고 내 걱정 내 탓을 하면 사는 것. "대한민국에 욕이 석 섬이 생겼는데 한 섬은 대통령 아저씨가 다 먹고 한 섬은 국민이 나눠 먹고 나머지 한 섬은 내가 다 먹었어. 허허. 그래도 내 입으로 한번도 욕 안했어. 욕 안하고 사는 것도 보통 복이 아니야. 욕하면 우선 자기부터 괴롭잖아. 욕 안하고 재미가 오도독하게 살면 몸뚱이도 재미가 오도독 나고 주름살도 없고 나이든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모두 좋아하게 돼 있어."



로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원정 스님

원정 스님에게는 스스로를 내놓지 않는 완벽함이 있다. 모양과 형식이 원정 스님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추구하는 올바름이 그렇다. 그래서 외적인 자존과 지존의 형식을 구애받지 않는다.

스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원정 스님이 결정한 일은 없다고 말한다. 옆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따라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아니다. 바른 길과 빠른 방법을 두고 돌아만 가려고 하는 확신에 찬 잘못을 고치는 시간을 준 것으로, 일의 성사나 성취를 준 것이 아니다. 잘못하고 난 뒤 스스로의 오만과 자만을 알게 하려는 남다른 배려에서다. 그만큼 원정 스님에게는 넓은 폭과 깊이,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다.



그림 · 문병성

원정 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74년 해인사 강원 방부를 들이기 위해 후원 소임을 볼 때 다. 스님은 종무소 소임을 맡고 나는 총무 시자를 맡았다. 총무 시자로서 종무소를 들락거리는 일이 잦았고 따라서 정이 들었다. 그 때 강원 입방을 했다. 스님은 경반으로, 나는 치문반으로 방부를 들였다. 당시의 선배란 하늘같아서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 또한 강원을 졸업하고 나서 중앙승가대 시험을 보고 입학식을 할때 원정 스님을 만났다. 선배 뿐 아니라 후배들도 여럿 있었다. 그 때의 감회란 말로써 이루 다할 수 없었지만 당시 승가대생 대부분이 법랍 10년이 넘었다. 10 · 27 법난 이후라 모두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감추고 있는 듯 했다. 모두의 눈빛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면 원정 스님은 모두가 내려가기를 기다렸다가 각 방의 빨래를 기다리는 양말들과 더러워진 고무신을 걷어다 깨끗이 삶고 닦아 가지런히 해놓고, 방사를 깨끗이 정리하고서는 나중에 지방으로 내려가곤 했다.

스님은 승가대를 졸업하고는 성주사 주지를 맡았다. 당시의 성주사는 후미진 곳에 있는 낡고 낡은 작은 절에 불과했다. 그런 절을 맡아서는 신도를 위한 불교교양대학과 출가에서 열반까지의 대법회를 주관하였다.

설법전과 요사채 불사를 하기전에는 시간이 나면 전국의 문화재 건축물을 일일이 돌아보고 참고로 했다. 유서깊은 기도터와 옛 가람터,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 강진 무위사 법당, 현대적으로 불사를 잘한 크고 작은 절과 심지어 유림의 서원까지 돌아보았다. 그도 충분치 않았는지, 당시 최고로 인정받고 있던 문화재관리위원의 자문을 받으며 불사를 했다. 법당의 기둥과 문설주 문과 꽃살 문양과 포, 형식과 방법을 모으는데만 3년이 걸렸다.

다른 사람들은 집 한 채 짓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했을 정도다. 옆에서 볼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원력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듯 했다.

그렇게 정성으로 지은 설법전과 요사채가 불사 회향을 앞두고 불이 나 모두 타버렸다.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모아놓은 귀중한 도서들도 다 탔다. 경찰에서는 전기누전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이교도의 시기 질투로 벌인 짓이라 했다.

> 자신 드러내지 않고 매사 완벽함 추구

스님은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무위(無爲)의 위를 이야기하곤 한다. 다시 말하면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드는 것이 아닌 만들어짐이 있는 것, 즉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닌 흐름과 호흡이 있는 자연스러움이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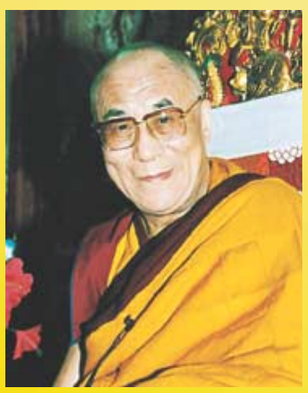
우리는 육신과 정신이 지치고 힘들면 어느 자리에서든 쉬고자 한다. 나무그늘이든 돌위든 좌복에서든, 길 가에서든… 그런 뒤 다시 육신과 정신을 추스려 일어서려고 한다.

그러나 원정 스님은 아니다. 육신과 정신이 힘들고 지치면 육신은 나무그늘이든 돌 위든 좌복 위든 길가든 내려놓고 졸며 쉬지만, 정신만은 옷자락을 휘적거리면 청 대나무숲 바람소리 내고 계속해 걷고 있는 것 같다. 옷자락 휘적거리는 청 대나무 바람소리에 일어나 보면 가있는 거리의 차이를 느낀다. 벌써 저만큼 가 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 충분함으로 함께하고자 한다. 강태공이 곧은 낚시로 시간 낚기를 기다린 것이라면, 원정 스님은 공간의 울타리로 시간의 초조함을 넉넉하게 하고 불완전한 갈등을 온전한 완성으로 감싼다.

스님은 현재 창원 성주사 주지로 범어사 교구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15년 전 하동에 폐교를 인수해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선재 청소년수련장도 만들었다. 틈비니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처럼 스님은 미래 불교의 희망인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관심이 많다.

■가평 아가타 보원사 주지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베트 불교의 원전인 입보리행론(깨달음에 드는길)
을 5일동안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5년 12월 12일 - 12월 16일 (5일간)
■장소 : 인도 티베트 망명정부가 위치한 다람살라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 (진옥스님 061-662-1607)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샨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
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복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A팀 기간 : 12월 3일~12월 18일 16일간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
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설법)-찬디가르-델리-인천
B팀 기간 : 12월 9일~12월 18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C팀 기간 :12월 10일~12월 19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 출발일 :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
탁실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
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
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카슈카르-
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 8월 20일 - 27일(4박 5일) 749,000원
● 8월 24일 - 31일(3박 4일) 699,000원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남북의 음악이 어우러질 국립국악원 광복 60주년 맞이 '한민족 아리랑 음악회'. 사진제공=국립국악원

은하수 길어 차 달이고 오작교 건너 님맞이

칠월칠석맞이 문화행사 풍성

일 년에 한번, 까막까치가 놓은 오작교를 밟아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그 날이 다가온다. 칠월칠석.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칠월칠석 날 북두칠성에 가족의 무병장수를 기원해왔다. 정한수를 떠다놓고 빌던 풍습은 오늘날 사라졌지만, 견우와 직녀의 애틋한 전설을 되살려 칠석을 '연인의 날'로 부르고 있다. 칠월칠석이 상업주의에 물든 서양의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양력으로 8월 11일, 가족과 함께 손잡고 칠석맞이 행사에 참석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과 화목도 기원해보는 것은 어떨까.

▶ 국립국악원 광복60주년맞이 '한민족 아리랑 음악회'

헤어졌던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 하루 애틋하게 만난다는 '칠월칠석', 아리랑을 공통분모로 남과 북의 음악이 만난다.

국립국악원은 8월 11일 국립국악원 별맞이터에서 광복60주년 기념 국립국악원 칠석 절기공연으로 '무료 한민족아리랑 음악회'를 열고 남북의 아리랑 관현악곡과 노래를 들려준다.

남측의 아리랑으로는 백대웅 작곡의 '남도아리랑' 강상구 작곡의 '아리랑을 위한 코리아 환타지' 등이 발표되며 북측의 아리랑으로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리한우 작 '경상도 아리랑' 황진철 작 '서도 아리랑' 등이 창작악단의 선율로 수놓아진다. 중국 옌볜에서 활동하는 성악가 박연의 '새연변 아리랑' '영천 아리랑'등도 감상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민족 고유의 세시풍속을 알리고 전통문화예술축제로서의 의의와 기능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2)580-3300



지난해 부산 삼광사에서 열렸던 칠석예술제의 견우와 직녀. 사진제공=부산 삼광사

▶ 문경다례원 칠석차문화제



예로부터 차인들은 칠월칠석 은하수에 흐르는 물을 천일수(天一水)로 부르며 이상적인 찻물로 여겼다. 고려 때 차승(茶僧)으로 유명한 진각국사는 "…북두칠성 국자로 은하수를 길어 달이는 한밤의 차, 차 연기는 싸늘하게 계수나무를 감싸네(斗酌星河煮夜茶 茶煙冷鎖月中桂)"라고 노래한 바 있다.

이렇게 차인들이 각별하게 여겨온 칠석날에는 차를 올려 칠석제를 지내는 전통이 있었는데 문경다례원에서는 이 같은 전통을 복원시키고자 지역과 연계해 매년 칠석다례제를 열고 있다. 8월 13일 오후 5시부터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문경다례원이 주관하고 문경시, 문경도자기협회, 한국차인연합회, 예울국악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가 열린다. 가배틀기, 칠석다례, 다완 · 다관품평회 및 다도구 전시, 견우 직녀 선발, 칠석소원등달기, 무형문화재 특별전 등의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054)553-9876

▶ 부산 동다송문화회 칠석다례제

(사)동다송문화회는 8월 11일 부산 홍법사에서 '제9회 칠석다례제'를 갖는다. 이날 다례제에서는 장수다인문화상 시상식도 겸하며 다례시연, 상록합창단의 합창공연 등이 이어진다.

매년 칠석다례제를 개최해왔던 동다송문화회는 "칠석을 맞이해 부산 APEC정상회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017-560-0785

▶ 부산 삼광사 칠석예술제

부산 삼광사는 8월 9일 경내에 오작교도 설치하고 성대한 '칠석예술제'를 개최한다. 불자들이 색동등, 팔각등, 전통모형등을 들고 오작교를 건너 부처님께 헌등하면 예술제가 시작된다. 창작무용 '견우와 직녀', 삼광사 화엄합창단의 합창공연 등이 이어지며 회향식에는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051) 808-7111

▶ 떡부엌살림박물관 칠월칠석 음식 만들기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와 떡부엌살림박물관에서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음식만들기-칠월칠석'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칠석에 먹는 전통음식인 백설기와 편수를 만들고 칠월칠석에 관련된 세시풍속을 배울 수 있다. 또 떡부엌살림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한다. www.tkmuseum.or.kr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천원, 선착순 마감. (02)741-5447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48시간 살인사건 취조실 실황중계

이영화 어때요?

박수칠 때 떠나라 감독: 장진 출연: 차승원, 신하균 상영시간: 115분 등급: 15세 이상



90년대 초반 주말 버라이어티쇼의 대명사 '토토즐'을 보던 시청자들은 뉴스속보를 보고 화들짝 놀란다. 그것도 5분을 넘지 않는 뉴스속보의 불문율을 깨고 무려 48시간 동안 살인사건 취조실 실황생중계라니…. 케네디 대통령의 진범이라도 잡았단 말인가? 아니다. 바로 영화 '박수칠 때 떠나라'의 영화적 기법이다. 이 영화는 장진 감독이 1999년에 집필하고 2000년에 연극 무대에 올렸던 '박수칠 때 떠나라'를 스크린으로 옮겨냈다.

'간첩 리철진' '아는 여자' 등을 통해 자기만의 스타일을 확고히 설정해 둔 장감독 특유의 '종합선물세트'식 스토리 구성이 압권. 어떻게 보면 시추에이션 코미디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스릴러적 공포와 함께 판타지적 요소까지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심가의 특급 호텔 1207호에 투숙한 미모의 카피라이터 정유정은 의문의 살인을 당한다. 목격자도 증거도 없다. 수사진은 호텔 벨보이, 지배인, 옆방 1206호에 투숙 한 커플 등 여러 증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며 사건 실체에 접근해 간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유일한 용의자 김영훈이 심증 100% 살인용의자로 주목받는다. 붙잡힌 김영훈에 대해 최연기 검사팀은 반전과 반전이 얽힌 48시간 동안의 수사를 전국에 생중계하는데…. 코미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도 범인을 향해 분노의 심기를 표출하는 물오른 차승원의 연기가 볼만하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게시판

해인사 장경판전 여름철 개방시간 확대 합천 해인사는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이해 8월 말까지 장경각 개방시간을 오전 8~11시, 낮 12~오후 6시 30분까지 확대 운영한다. (055)934-3161



제17기 불교귀농학교 모집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귀농을 꿈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17기 불교귀농학교 수강생(사진)을 모집하고 있다. 9월 6일~11월 25일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학습과 벼 베기 실습, 도시텃밭 가꾸기 등을 배울 수 있다. 수강료는 10만원이다. (02)576-1886

아자학교 쌍륙대회 대한가족생활놀이연구소 아자학교가 8월 15일 옥천군남초등학교에서 전통 놀이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쌍륙대회를 개최한다. 쌍륙과 참고누, 아자학교 자체개발 불경카드로 겨루며, 참가자에게는 새로 개발된 윷놀이 세트도 제공된다. 011-9240-6007

구로청소년수련관 가족영화상영 서울시립 구로청소년수련관은 27일 수련관 내에서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가족영화를 상영하고 참가 가족사진을 촬영해준다. (02)838-1318

입문자 기초교리 강좌 서울 수효사는 8월 12일부터 사찰 신규입문자를 대상으로 기초교리 강좌를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 열리며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02)313-2398

20면 상식 퍼즐 정답

해	왕	성		검		
수		군	맹	무	상	
욕			호		사	
장	인				병	서
	공		혈			방
	위	임	통	치		정
견	성			부	식	토

온가족 탁본 뜨고 템플스테이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무료행사



탁본을 뜨고 있는 참가가족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숲 속의 판화학교'를 연다. 8월 6~28일 1박 2일씩 총 8회 실시되는 이번 판화학교는 전액 무료이며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있는 4인 가족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직접 탁본을 뜨며 판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다도와 명상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어 템플스테이와 문화체험을 함께 할 수 있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2,500여점의 목판원판과 판화로 만든 서책 300여점, 판화 7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 고판화박물관이다. 박물관 측은 "국내 박물관으로는 최초로 사회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선정돼 이번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며 "우리나라 고미술의 미개척 분야인 고판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33)761-7885

공연

어린이 영어 뮤지컬 '까이유'

삼성동 코엑스, 8월 24일까지



영어로 공연되는 어린이 뮤지컬 '까이유'.

"어린이 여러분~ '까이유'와 함께 영어공부 배워보아요"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는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8월 4일~24일 어린이 뮤지컬 '까이유'를 공연한다. 까이유는 전세계 75개국에서 수백만 부가 팔린 인기 동화책을 원작으로한 뮤지컬.

캐나다 배우들이 직접 내한해 영어로 공연하는 '까이유'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세계적인 인기를 모았던 작품이기도 하다. 네 살 꼬마 까이유와 가족, 친구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시각에 맞춰 재미있게 구성했다.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나 초등학생들이 보기에 가장 적합하다. (02)6000-8140

노병철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8일 06:00 불교강좌
9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10일 11:05 아름다운 초대
11일 07:05 아침저널
12일 09:05 행복한 미소
13일 14:05 진시몬의 낭만라디오
14일 10:00 라디오 법회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8일 05:50 한국의 명찰
9일 01:45 TV법회
10일 15:50 열린마당
11일 17:30 산중대담
12일 20:30 명상음악산책
13일 07:45 불교TV메디컬
14일 20:00 또 다른 수행 '사경'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진시몬의 낭만라디오(8월 13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나른함이 밀려오는 오후 2시. 진시몬이 준비한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8월 14일 21:45~22:45)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속 재밌는 해프닝도 소개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반야심경 손목시계

마하몰이 홈페이지 리뉴얼 기념으로 반야심경 불자고급손목시계를 55,000원의 특별할인 가격에 내놓았다.

시계판에는 큐픽 13피스와 6시, 12시를 제외한 시간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글자를 새겨서 언제 어디서나 불심을 되새기도록 도와준다. 스위스 론다사의 부속품이 내장돼있고 3기압 방수처리 된 불자고급손목시계는 500개 한정으로 판매한다.

내 삶의 큰 가르침 (상)

황용순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그림 · 문병성

남편의 외도 · 가족간 종교차이에 갈등
도심포교당 다니며 독경 · 정근 열심히
법성 스님이 쓴 책 읽고 삶의 용기 얻어

어릴 때는 종교라고 하면 성당을 떠올리며 동경하기는 했지만, 종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은 없었다.

부모님께서는 명절과 생일 때 몸가짐을 단정히 하시고 상 위에 경(經)을 한 권 올려놓고 독경하곤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니 아마도 불교에 관한 경전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인연에서인지 부모님은 지금 교회에 다니시는데, 가족들이 모일 때면 서로가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해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다.

나는 학교 졸업 후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입원환자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알게 돼 결혼했다. 하지만 십여 년쯤 지난 후 남편의 바람기가 일기 시작했다. 나는 배신감과 회의와 고통으로 절망했고,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었기에 이로 인해 나 또한 남편을 많이 힘들게 했다. 한 3년 정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지내는 동안 이혼도 수 없이 생각했고 삶이 힘겨워 잠도 쉽게 이룰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내겐 버틸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철학관도 가보았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다. 그곳에선 남편이 도화살에 홍염살까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차마 이혼은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나를 지탱해줄 그 무엇은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종교를 생각하게 되었다. 친정이 교회에 다니니 교회에 가볼까, 시댁은 천주교 영세를 다 받았으니 성당에 가 볼까 갈등을 했지만 그것도 내 맘대로 되질 않았다. 시아버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뒤 중풍으로 3년 고생 끝에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시댁에서는 성당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절에 다녀온다면서 우리 매장에 들어오셨다. 나는 그때만 해도 절이라고 하면 산속에나 있는 줄 알았지 도심포교당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절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그날 저녁에 바로 그 절에 찾아 갔다. 절에는 비구니 스님이 머물고 계셨고 4시간가량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불교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시어머님께서 1년에 2~3차례 정도 무속집을 찾아 다녔다. 마음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가실 때는 돈을 챙겨 드렸다. 정초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 삼아 찾아가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절에 나가면서 스님과 대화를 많이 했고 조언해주시는 대로 하기 시작했다.

스님은 나에게 <지장경>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경을 읽고 지장보살님을 염하라고 일러주셨고, 매일 독경과 정근을 꾸준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내가 절에 다니며 불교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화를 내며 어머님이 계시는데 무엇 하러 그런 것을 하냐며 야단을 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불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스님은 이 문제로 남편과 부딪치지 말고 남편이 없는 틈을 이용해 절에 다녀가라고 일러주셨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뿔 달린 소 두마리가 달려와 자신을 받아버리는 꿈을 꾸었고, 다음날 장독대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게 됐다. 그 후 시어머니는 무속집과 멀어지게 됐다. 지금 와서 보니 신중님께서 삿된 기운을 막아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토록 부처님의 정법 앞에선 그 어떤 삿된 기운도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루는 스님이 책을 한 권 주시면서 읽어보라 하셨다. <마음 한 번 돌리니 극락이 예 있구나>라는 주지 법성 스님이 쓰신 책이었다.

법성 스님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였지만, 스님은 당시 이화여전에 다니며 교회에 나갔고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한다. 스님은 변호사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곧 큰 병을 앓게 돼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온갖 병원을 전전했고 하느님에게도 매달려 보았지만 병이 낫지 않자 친정어머니는 큰스님과 상의 끝에 스님을 절에 데려갔다.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는 스님을 지게에 지고 절에 모셔갔더니 큰스님은 3일 기도를 시켰다고 한다. 스님은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거의 기다시피 하루 두 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3일 기도를 마치고 나니 꿈에 단아한 여자분이 나타나서 감로를 주었다고 한다. 그 물을 받아 마시고 난 후 화장실에서 온갖 독소를 다 쏟아버리자 몸은 기적같이 다 나아, 그 뒤로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는 내용이었다.

아! 불교가 이런 것인가 보다. 부처님의 가피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스님이 겪은 힘든 고통을 생각하니 무엇인들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스님은 나에게 천도재를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지장경>을 읽고 100독, 200독, 300독을 읽고 계속 천도를 했다.

마지막 300독을 하고는 천도재를 올리는 날 절 마당에서 여러 보살님들과 설거지를 하는 꿈을 꾸었다. 그때 절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은 없고 문소리만 들려서 가보았더니 대문 바로 안쪽에 누런 큰 개가 한 마리 들어와 엎드려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꿈에서도 나는 손을 저으며 "너는 여기 오면 안돼 어서 가라" 하면서 손을 흔들었다.

그랬더니 큰 개는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슬금슬금 절문 밖을 나갔다. 개를 따라 나가보니 저 위의 절에서 네 발 달린 온갖 짐승들이 한 무리를 지어 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꿈에서 깨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동안 시어머니다 무속집에 다니며 온갖 잡귀들을 다 불러들여 집안이 시끄러웠는데, 이제야 그 잡귀들이 집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우연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 가정은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snoop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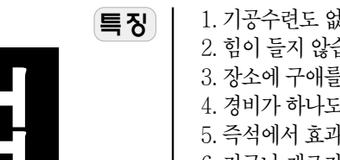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수행건강학과
수강생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수시모집 (지역 교육원에서 접수)
2. 교육과목
● 법화경(교양필수)
● 황제내경(교양필수)
● 운동요법 · 추나요법
● 자연요법 · 식이요법
● 교정요법 · 침구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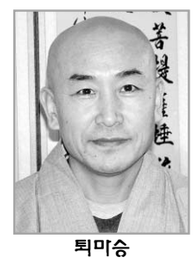
학장 최광영
3. 교육기간 : 4년 (8학기) 수료
4. 교육일시
● 대 구 : 화요일 오후 2시 - 4시
● 부 산 : 목요일 오후 2시 - 4시
5. 교육장소
● 대 구 :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3층
● 부 산 : 부산역 옆 삼진빌딩2층
6. 기타특전
● 수료증서 수여
● 중국 중의대 자격증 취득(검정후)
● 대체의학요법사 자격증 취득(검정후)
● 평생대학원 진학자격부여
7. 문의전화 : (053)952-8711. 017-501-87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276-25번지
교육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韓國平生大學(院)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웰빙난방 기존 난방비의 80% 절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미국칼로리규사 직수입품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시공전문업체)
041)545-5593, 010-8120-3592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청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기청량 조청(품절)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퇴마승
영험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짓은 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에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 합니다.

영 가	빙 의 현 상 (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유산,자연)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검색창에 해원사 라고 치세요
해원사
초 하 루, 18일 지장재일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동방의 뛰어난 차, 동방미인(東方美人)

최근 중국과 대만의 발효차가 많이 수입 되는 가운데, 동방미인은 그 특이한 이름으로 차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영국 왕실에서 즐겨 마시며, '벌레 먹은 찻잎'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색다른 차를 즐기려는 차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동방미인은 어떤 차일까?

英 왕실이 극찬한 차
'동방미인'



대만 아미(峨眉)지역서 생산, 망종 전후 채엽

우선 동방미인이라는 차 이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동방미인은 팽풍(膨風) 병풍(椪風) 백호오룡(白毫烏龍) 향빈오룡(香檳烏龍)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청나라 말기 신죽차구(新竹茶區)의 한 차농이 충해를 입은 찻잎으로 차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황실에도 공납을 했으나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고 허풍을 떤다고 해 팽풍(膨風)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또한 동방미인은 발효도가 65% 전후의 오룡차(烏龍茶)이며, 찻싹에 있는 솜털인 백호(白毫)가 많기 때문에 백호오룡이라고도 불린다.

이 차가 18세기 이후 영국 왕실을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동방미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동방에서 온 뛰어난 차'라는 뜻으로 붙였다고도 하고, 이 차를 마시는 사람이 미인이 된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동방미인은 대만 신죽현의 아미(峨眉)와 북포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며 또한 최고품질의 차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차가 봄에 난 싹으로 만든 것을 으뜸으로 치는 것과 달리, 동방미인은 여름찻잎을 이용한다. 소만(小滿, 양력 5월 21일 무렵)부터 생산하나 망종(芒種, 양력 6월 6일경에서 하지 전까지의 약 15일간)을 전후로 채엽, 제다한 것의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동방미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소녹엽선(小綠葉蟬, 학명 Empoasca fomosana paoli)'이라는 벌레의 피해를 입은 찻잎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소녹엽선이 즙을 빨아 먹은 찻잎은 끝이 누렇게 변하며 오그라든다. 동방미인은 이 같은 충해를 입은 차나무의 잎을 따서 제다하는데, 찻잎의 색상이 짙고 육질이 두터운 것이 좋다.

> '벌레 먹은 찻잎'으로 사용
> 색상 짙고 육질 두터워야
> 오색 띠며 잘익은 과일향

제다한 후의 찻잎은 흰색 황색 갈색 붉은색 녹색의 다섯 색이 고르게 어우러진다. 우려낸 찻물은 호박색이며 벌꿀이나 잘 익은 과일향 같은 달콤한 향기가 나 차인들은 물론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만드는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채엽: 동방미인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차나무 수종은 청심대묘(青心大冇)이며 채엽은 일반적으로 오전 6시 30분~11시, 오후 1시~5시 사이에 한다. 1창 1기나 1창 2기를 손으로 채취한다.

2. 일광위조: 찻잎을 햇빛에 널어 말림으로써 수분을 증발시켜 화학작용이 쉽게 일어나도록 하는 단계다. 채반에 얇게 펼쳐 놓아 약 30분간 위조한다. 가볍게 흩트리기를 해 수분이 고르게 증발하도록 한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수분이 고르게 증발하지 않아 발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조 정도는 손바닥 촉각으로 감지하며 광택이 없고 차분히 가라앉아야 한다. 줄기 부분은 수분증발로 약간 줄어들며 싹과 잎은 시들어진다. 위조 후 중량은 25~30% 정도 감소한다.

3. 실내위조: 일광위조의 발효작용을 이어가며 원하는 만큼 발효가 진행되도록 조절하는 단계. 특유의 향과 맛이 나타난다. 25~30℃, 습도 70~80%에서 이뤄지며, 한번 씩 가볍게 흩트리기를 한다. 흩트리기 과정 중 찻잎 가장자리의 세포가 손상돼 발효가 일어나며, 풋내가 없어지고 맑은 향이 난다. 흩트리기 과정에서 채반의 수를 줄여나간다. 총 소요시간은 6~10시간 정도.

4. 초청: 뜨거운 열기로 찻잎 속의 효소를 억제시켜 발효를 멈추게 하는 단계. 굴림통 기계 살청기는 160℃에서 약 6분간, 가마솥 살청기는 8~12분 정도 실시한다.

5. 정치회윤(습포회윤):열기를 서서히 식히고 찻잎의 열 자체로 인한 습기로 발효가 약간 진행된다. 15~20분 정도 진행한다.

6. 유념: 찻잎의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찻잎을 3~5분 정도 2번 유념한다.

7. 흩트리기 및 건조: 찻잎을 꺼내 흩트리기 한 후 열풍으로 건조시킨다. 1차로 95~100℃에서 건조하고 흩트려 펼쳐 놓는다. 2차 건조는 85~90℃에서 진행한다. 2차 건조 후 40~60분가량 탄량(손으로 부드럽게 펼쳐 쌓아두기)한다. 차 포장 전에 수분으로 인한 발효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조를 하고 반드시 열기를 식혀 포장 한다.

조선시대 ⑭



조선-병자호란 후 청의 차 공물요구 많아져
중국-'다마사' 지방에 파견 생산·수출 독려

병자호란으로 왕실과 국가의 위신이 추락하고 청(淸) 나라의 요구가 많아졌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이 증가해 차도 매년 천 포 씩 요구하니 다농(茶農)들의 부담이 커져 감당키 어렵게 되자 국가에서 다세 천포를 탕감해 주기도 했다. 궁중에서 쓰이는 차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의례에는 차가 빠지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차가 국가적인 중요한 산물이라는 인식이 높아져 다마사를 지방으로 보내 독려하고 외국에도 많이 수출했다.

일본은 바야흐로 차의 유파가 많이 생겨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차의 생산지는 확대되고, 생산기술도 향상했으며 차겨루기(鬪茶)가 성행했다.

① 홍만선(1643~1715): 실학자로 〈산림경제(山林經濟)〉 2권에서 '다탕법(茶湯法)'을 썼다.

② 이상일(1612~1666): 다시 '옥전다중(玉田茶中)'을 남겼다.

③ 임조 27년 간원(諫員)이 고하기를 하마연 때 사신 접대 칙사가 세 자께 바친 찻종(茶鍾)을 물러내 오는데, 사옹원제조 이신원이 빼앗아 마셨으니 이는 불경스럽다. 그러니 문초해 죄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인조실록〉

④ 남용익(1628~1692): 〈부상록(扶桑綠)〉에 다옥을 지나며 천지차 다공(茶貢)을 받은 얘기를 썼다.

⑤ 민정중(1628~1692): 호남어사로 갔을 때 차를 재배하지 않는 곳의 찻세를 재배지역으로 전환시켰다.

⑥ 풍가빈이 지은 나개차에 관한 천여자의 글이다.

⑦ 등자모가 쓴 두 권의 다서로, 술과 차의 장단점을 논쟁하는 내용과 시문(詩文)을 엮었다.

⑧ 동소완(1624~1651): 명나라 말기의 명기(名妓). 뒷날 양이 소완을 기린 글에서 "차를 즐겨 끓일 때 월혼운백(月魂雲魄)을 담은 듯 정치하게 했다"고 했다.

⑨ 담천이 당시 다세의 양을 자세히 적어 놓은 책이다.

⑩ 손동원: 〈영가문견록(永嘉聞見錄)〉에 차의 즐거움을 기록했다.

⑪ 조장백: 〈속다경(續茶經)〉에 다사를 썼다고 전한다.

⑫ 소굴원주(1579~1647): 대덕사의 일망, 망부, 팔창석 등의 다실을 만들었다. 다기 감정에 일가를 이루었고 '원주류'의 시조가 된다.

⑬ 천종단(1578~1658): 리휴의 손자로 삼천가(三千家)의 시조다. 리휴와 소암(小庵)의 지도로 차를 익혔으며 다도정신이 투철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641 궁가의 어염·각세 폐단 혁파 1643 홍만선(洪萬選) ① @ 이일상(李一相)의 활동 ② 1645 소현세자의 죽음 1647 세폐(稅幣)에 차 천포를 면제 김해에 수로왕릉비 건립 1649 찻종에 차를 마시다 ③ 1650 화엄사를 선종대가람으로 선정 1653 중국이 우리 사신에게 차를 공급 다시(茶時) 시행 1655 남용익(南龍翼) ④ 1658 민정중(閔鼎重) ⑤	청대	1642 〈개차전(价茶牋)〉 ⑥ 1643 〈다주쟁기(茶酒爭奇)〉 ⑦ 1644 이자성의 북경함락 1645 '섬사다마사례' 제정 @ 동소완(董小宛) 주이존 오임신(吳任臣) 진감(陳鑒) ⑧ @ 〈초림잡조〉 ⑨ @ 손동원(孫同元) ⑩ 1655 호구다경주보 @ 조장백(趙長白) ⑪ 1660 영국 차 수입 시작	강호시대	@ 차 재배지 장려(진화야) @ 세천삼제, 소굴원주(小堀遠州)의 죽음 ⑫ @ 차겨루기 성행 @ 장다집이 생김 1658 종단(宗旦)의 죽음 ⑬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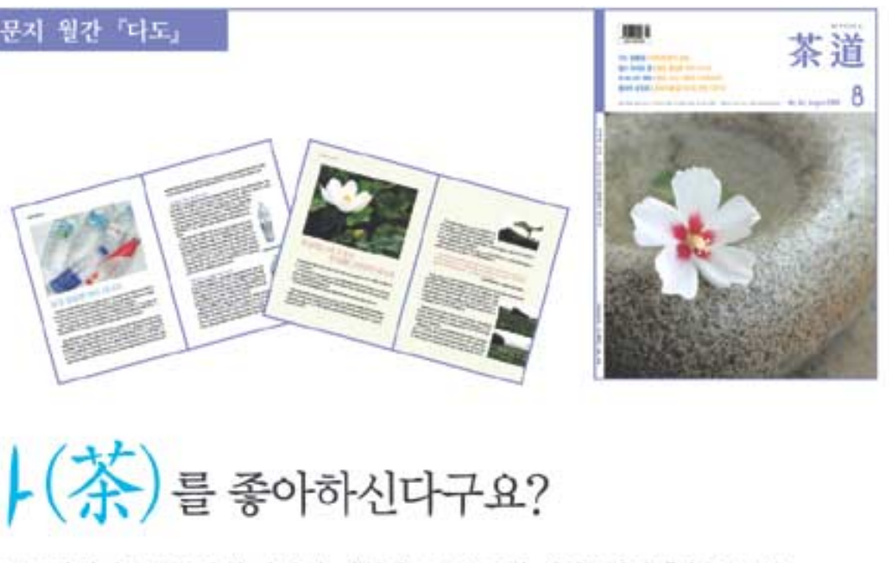
판매처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0 / 02)2004-8218~9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12-113210 하동규

30,000원 (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다구요? 차에 가까이 계시다구요? 그럼 매달, 월간 『다도(茶道)』 한 권 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차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안간힘 쓰지 말고 그냥 여여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덥든 춥든 간에 그것도 마음이겠죠. 하여튼 마음이란 그놈이 바로 부처라고 불리죠. 참 어떤 때 생각하면 재미도 있어요. 정히 덥다 싶으면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고요. 또 정히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나무 밑으로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몸뚱이가 어찌 더움이 가셔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가 이러시겠죠? 거짓말이라고 그러시겠죠? 그러나 이 모두가 마음으로써 빚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몸뚱이도 마음으로써 빚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땀방울이 하나 나오면 둘, 셋이 따라 나오죠. 그런데 둘, 셋 나오는 땀방울을 하나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 이 법이랍니다. 제일 첫째로, '마음을 가라앉혀서 내 몸뚱아리 하나의 개체에 내 불국토를 건설할 수가 있어야 바깥의 불국토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에게는 다섯 가지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학술적인 것이라든가 팔만대장경에 관련한 법문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문이 나를 깨우쳐 주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신의 이름을 찾으면서 믿는다고 입으로만 되풀이하는 게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면 나를 나오게 해 준 그 자체가 있어서, 그것이 바로 근본이기 때문에, 육의 부모와 법의 부모가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부모를 육의 부모와 동시에 같이 믿는다 이런 게 있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비록 작고 소박하더라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육의 부모가 그렇다고 한다면 또 법의 부모는 수억겁을 거쳐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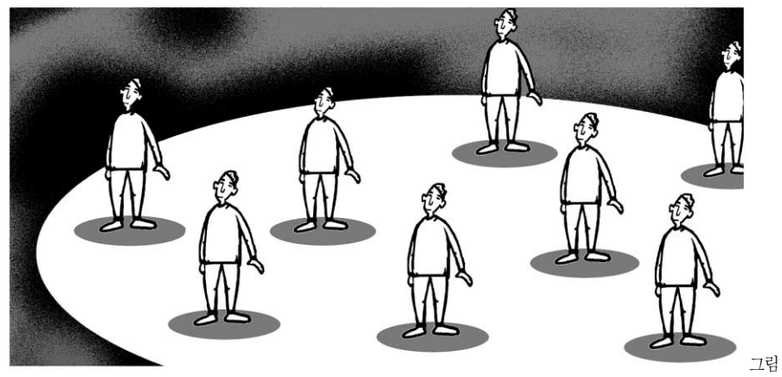
>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 한 숨구멍이듯
> 마음이 들고 나는
> 자리도 딱 하나!

면서 자기를 형성시킨 장본인이거든요. 바로 자기 조상이죠. 그래서 자기 조상 자체가 바로 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소박한 마음과 나의 조상, 즉 말하자면 주인공이 동시에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갈다 이거죠. 따로따로 떼어 놓고 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깨우치지 못할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작으나 크나 똑같습니다. 내 집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지 내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몸속에는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누적된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가지만 얘기하다가 말았죠. 우리는 수없이 과거로 해서 미래로 해서 현재로 다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똑같이 돌아오긴 하는데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천차만별의 마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대로 모습을 쓰고 나오니까요. 이것을 기필코 우리가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되겠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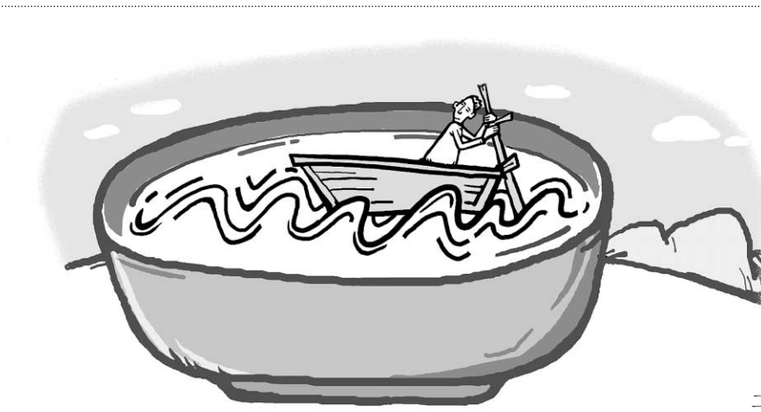
그렇게 해서 이 몸속에 다섯 가지가 주둔하면서 세계가 벌어져 있습니다. 지구에 세계가 있듯이 한 몸뚱이 속에 세계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주동자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섯 가지가 의식적으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은 한 길이지만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과, 보고 들어서 그냥 생각이 나는 것과는 천지 차이랍니다. 때로는 욕구 불만도 나오고 때로는 욕망, 어떤 때는 욕심 이런 게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거기에 속지 마라, 한번 굴려서 놓고 침착하게 대처를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의 문제라는 것은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업보성, 유전성을 말하는데 인과성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인과를 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균성을 많이 맺어 놓은 사람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해쳤다거나 살생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된 인연들이 많죠. 세균성이라고 하는 것도 살생과 더불어 원한의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뱀소굴에서 뱀들을 때려잡는다거나 이랬다면, 임신을


그림 · 최주현

하지 않았어도 꼭 그것이 자식들한테로 대치가 되거든요. 그거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균성의 원리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세균성이 오는 거죠. 그게 그냥 착 와서 '내 자식들을 모두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네 자식 때문에 이렇게 좀 돼 봐라.' 하고 여지없이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이치는 없어요, 절대로.

또 영계성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속에도 이런 문제가 다 주둔해 있는데다가, 나에게 주인이 없다면 바깥에서도 마구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주장심을 주인으로 삼아서 다스려 나가지 않는다면 주인이 없는 집이 되죠. 바깥으로 찾고, 바깥으로 매달리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바깥으로 삼천 배 절하고, 모든 걸 바깥으로만 하니까요. 자기 안에 주장자가 본래 있는 건데, 자기가 그것을 세워 놓지 않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집이 돼서 안에서 마구 끌어들이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것도 끌어들이고 안에서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마치, 엄마와 아버지가 어디 나가면서 애들에


그림 · 최주현

게 '갔다 올 때까지 놀아라.' 하니까 친구들 데려다가 그냥 막 뛰어 놀고 온통 집안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내려오면서, 지금 백팔염주에 염주알을 꿰어 놓은 것처럼 자기의 그 종자가 종자대로 그렇게 꿰여 있죠. 이 세상 이치도 우주 전체를 염주알 꿰 놓은 것처럼 돼 있어서 우리가 그 염주 바깥으로는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끊어도 딱 하나죠.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한 궁전 가운데 털구멍에, 털구멍 가운데서 보살을 낳고, 털구멍 가운데서 모든 세계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보성'하면 오간지옥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원이 낮고 낮아지면 인간에서 좌천이 되는 거죠. 인간에서 좌천이 돼서 기어다니는 벌레로 땅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오간지옥이에요. 무당들이 칼을 들고 바가지에서 죽 쑨 것을 던지면서 하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하하하…. '이걸 먹고 싹 물러나라.' 그렇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내 밥내도 못 맡게 지옥성에다 넣는다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거와 같이 이거는 인간이 돼야 국내 밥내를 맡지 땅속에서 사는 벌레가 어떻게 국내 밥내를 맡습니까? 만약에 땅속으로 다니고 굴속에서 살고 그러는 살모사나 뱀 종류라든가 벌레 종류라든가 이런 거라면 국내 밥내도 못 맡죠. 그게 바로 오간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결단코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칼로 썰어도 썰어지지 않고, 아주 굳세고 아주 늠름하고 여여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름이 부처라 이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속에 모두 주둔해 있는 거를 어디 가서 빌고 어디 가서 찾습니까? 어디 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오신통을 컴퓨터라고 해도 좋다고 내가 항상 말하죠. 앞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주둔해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대로 다시 입력해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만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업보성이라든가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인과성 이 자체가 몽땅 차례차례로 나오는 것을 내가 닥치는 대로 거기다 놓으니까 차례차례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 자손 대에도 그렇고 다시 바뀌지는 거죠, 아주 그냥. 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바뀌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보면 모든 일체 목신(木神)들, 즉 말하자면 식물들과도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통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다 하면 그 모든 통신을 엮어 주는 멤버란 말입니다. 엮어서 과거로 미래로 현재로, 들 아니

> 진짜로 믿고 마음을
> 조급하게 두지 말고
> 안되든 되든 일단 맡겼으면
> 그냥 던져두는 거죠!

면 죽지만, 물체가 아닌 마음은 이 우주 삼세를 다 한 줄나에 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그뿐 아니에요. 전체를 갖다 놓고 보는 것이, 공 하나 갖다가 놓고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부처님께서는 도가 아니라고 그랬으니 무슨 까닭인가 이거예요. 전체를 갖다 놓고 볼 수 있어도 도가 아니니라 했어요.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주는 것만 못하다 이 소리죠. 보는 것이 무슨 도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저 위성을 만들려면 일단계, 이 단계 겹겹데기를 만드는 것과 같이 그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지, 오신통이니 뭐니, 이것도 종합해서 하는 거지 모두가 혼자 하는 거는 없으니까요. 보는 거, 듣는 거, 상대를 아는 거, 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 또 내가 가고 옴이 없이 이렇게 가고 오고 보고 이러는 것이 종합돼야 한몸이라고 할 수 있죠, 한몸! 정상인!

그렇듯이 그 정상인 하나를 정상인답게 할 수 있다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지구 바깥을 벗어나서 돌거니와, 아니 다른 행성에 가서도 돌고, 다른 행성이 만약 우리 지구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다 하면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들이 아니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평등공법이라고 할 수밖엔 없겠죠? 그런데 평등공법이면서도 중용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름이 주어지지만, 하여튼 모두 그 안에, 보고 듣고 하는 그 안에 진짜는 들어 있으니까요. 보고 들었으면 주어라, 보고 들었으면 결정을 지어라, 보고 들었으면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잘못되고 잘되고가 알아진다, '수습을 해라'하는 거죠. 그러

☞30면으로 계속

한번 굴려서 놓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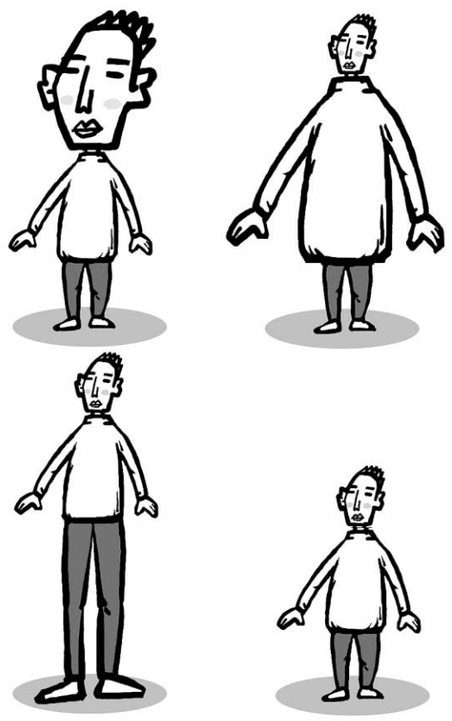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니까 부처님께서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말해 줄 사람한텐 말해 주고, 그냥 건져 줄 사람은 건져 주고, 예전에는 양을 많이 잡아서 바쳤답니다. 양을 바치려고 짊어지고 갈 때는 양을 건져 주고, 소가 죽을 때는 소를 건지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 눈에 걸렸다 하면 그건 인도환생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중에 '더운데 시원한 데로 놀러가지, 왜 내가 거기 가서 끼어 앉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요, 내가 지내보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또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누가 주면 주는 대로, 끌어다가 먹지도 않고 나한테 온 거 박차서 내버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모든 점에 있어서 순리적으로, 일체를 합류화해서 항상 모두를 내 스승으로 보고, 내 아픔으로 보고, 내 몸뚱이로 본다면 그게 잘못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몸을 변하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키가 모자라서 못 먹을 때는 키를 키우고, 다리가 모자랄 때는 다리를 키우고, 배가 좁을 때는 배를 크게 해서 자기 소관대로 자유스럽게 몸뚱이를 만들어서 사는데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화력이라는 게 그렇게 한생각으로 진화가 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몸 자체도 개선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믿는 것 말입니다. 믿는 것은 아픈 것을 나을 양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죽을 걸 살 양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어떠한 업보를 제거하려고 믿는 것도 아니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그대로 자기를 믿으라는 거죠. 자기 시자는 자기 주인을 믿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버지가 나쁘든 좋든 아버지이듯이, 어머니가 못났든 잘났든 못 배웠든 병신이든 내 어머니이듯 그냥 무조건, 무조건 믿는 그 속에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거는 다 대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믿지는 않고 이름만 부르면서 한 가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은 그건 참 더디죠. 앞에 닥친 거를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진짜로 믿고 마음을 조급하게 두지 말아야죠. 안 되든 되든 일단 맡겼으면 그냥 던져 두는 거죠.

어떤 스님이 삿갓을 쓰고 주장자를 짚고선 물을 건너가는데 아, 어느 마을에 불이 나서 그냥 막 타오르고 아우성을 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몸뚱이가 뛰는 게 없이 주장자를 물에다가 척 치니까, 그 물이 구름으로 화(化)해서 전부 비로 내리더랍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니 불이 그냥 단번에 꺼지더랍니다. 그쯤은 돼야죠. 허허허….

그러니 몸뚱이가 아무리 뛰어 봤자 벼룩입니다. 저 허공에서 비행기가 잘못돼서 죽는다고 해 보세요. 몸뚱이가 아무리 뛴다 하더라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죠. 어느 스님이 가만히 보니 비행기 조종사가 몸이 불편해서 술 한 잔을 마셨는데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겠거든요. 그래서 그 조종사 속으로 들어갔어요. 조종사 속으로 들어가서는 '정신 차려!' 그러고는 콱 찔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 야단났거든요. 그래, 그냥 수습을 한 거죠. 비틀비틀하면서 수습을 해 가지고 괜찮았답니다. 그런 예도 있어요.

그냥 종교 삼아, 남들도 절에 다니니까 나도 다녀보자 이러고 그냥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화를 필수적으로 쓰듯이, 밥을 필수적으로 먹듯이,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게 내 탓이고 남의 탓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가 있고, 내가 변소 간엘 가든지, 똥둑간엘 가든지, 허허허…, 똥 재어 놓는 데 있죠? 그런 델 가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는 있는 것이지 깨끗한 데를 찾아서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1: 여름철에 살다 보면 집안에 각종 벌레, 해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죽어 있는 것을 먹거나 버릴 때는 뭐 '한마음!' 하면서 관할 수 있겠는데, 살아 있는 놈을 귀찮다고 '한마음!' 하면서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공부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 살아 있는 걸 죽인다 할 때 그거는 죽이는 사람의 차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갓 배우는 사람한테는 '살생하지 마라' 이럽니다. 그러나 다 배운 사람 앞에는 '무조건 먹어치워라' 이럽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왜냐? 그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고생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다 깨우친 어떠한 스님이, 부처님께서…, 스님이 부처고 부처가 스님이니까요, 만약에 수많은 벌레들을 다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살생이라고 보겠습니까? 죽여도 건진 거고 살려도 건진 거고, 줘도 건진 거고 안 줘도 건진 거고, 건져져요.

▲질문자1: 다음에는 정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에 스님께서 저녁 때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자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을 제대로 살면 하루를 제대로 살게 되겠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반성하고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 공부에 관련해서 정진이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그냥 생활선법(生活禪法)이 아닐까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모든 것을 그냥, 내 주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해라, 이런 것이 참선입니다.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여건에서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발견을 못했으면 진짜 공부를 못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저녁에 남이 다 자고 조용한 틈을 타서 한 30분이라도 앉아서 '당신이 있다는 것을 당신만이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누가 증명해 주느냐?' 이거야. 그것이 똑바로, 직속 들어가는 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 못했을 때 지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살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에 한해선 특히 더하고, 스님네들도 역시 그렇구요. 우리가 이 도리를 발견하려면요, 첫째는 다섯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다 거기서 나오고 빚어지는 거거든요. 뭐, 관습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굴려서 놓아야 떨어지죠. 거기에서 예전에 살던 그 습성이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하거든요. 그걸 한번 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습성이 다 떨어지지 못하면 인정을 못 해요. 하늘에서, 한울 중심에서 인정을 못한단 말입니다. 열쇠를 받지 못해요. 그걸 해인(海印)이라고도 하고 그러지만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통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인과의 습성, 인연들과 살던 그 습성을 그대로 그렇게 반영하고 자꾸 그대로 하지 말고 한번 굴려서 놓되, 그 마음이 분기해서 탁 나오더라도 안으로 상대방을 생각해라 이거야.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언제나 내 생각으로써 나의 기준으로써 잣대를 삼지 말고, 한번 내가 상대방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돼 봐라 이거죠. 그러면 그 습성이 차차차차 없어지죠. 그리고 둥글어지고 둘로 보지 않게 되고, 그래야 빨리 그 몸통 안에서 벗어날 수 있죠. 몸통을 그냥 통이라고 하죠.

▲질문자1: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조그맣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떤 땐 일감이 좀 적게 들어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안 먹고 '저 일감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더 벌어들여 오든지 일을 더 많게 하든지 하라.' 그러고서 어떤 땐 굶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공부와 관련해서 내면과의 대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스님: 만약에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점심을 먹게 하는 것도 너고,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알아서 해.' 그게 배우는 과정에서 툭툭한 맛이 나는 도리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됐으면 '어, 굶어라 이런 거로구나!' 그러고, 먹게 되면 감사하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안되고 되고 되고 안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그냥 막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한참 돌아가야 뭐가 되는 거지 그게….

하여튼 내가 집착하건대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극히 하시기 때문에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고기들이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인간도 공기주머니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뱅뱅 돌면서, 죽어도 또 거기, 죽어도 또 거기, 이걸로 저걸로 모습을 달리 해 가지고 나오면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살아서 내 몸뚱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어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그냥 '네놈이 알아서 해. 난 너의 심부름이나 할 거야.' 하고 그냥 콱! 말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잣대를 삼지 말고 상대방 안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돼 봐야

※위 법문은 1995년 8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시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
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
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
전에있는 사찰을 방분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
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몰고나니 다
른이도 흔들리며 잔털도 낯버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
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이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
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
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
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
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부터,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穩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암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天地運氣 通達 神法

◈ 수맥, 생기, 사기, 혈자리, 좌향, 예언 감별법
- 사람의 일생을 과거와 현제 미래를 알고 예언하는법
- 양택(집터) 감정과 좌향 혈자리 잡는법
- 음택(묘터) 감정과 좌향 혈자리와 생기사기 수맥, 젊고 늙은이와 남과 여를 묘만보고 시신을 보는법
- 황천살과 팔효황천살을 양택, 음택에서 보는법
- 빙의된 영가를 보는법과 병든 환처를 찾아내는법
- 비보와 비기로 양택 음택을 명당으로 돌리는법
- 성명 작명법

멀리서 원격으로 가보지 않고도 수맥과 생기 사기 황천살 등을 정확히 판독할 수 있으며 음택인 경우 자손에게 어떠한 화가 미치며 양택은 본인과 가족에게 화는 어떻게 끼치는가를 알 수 있으며 그것을 방편을 세워 차단하는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 강의시간 : 8월 23일 오후 5시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무교육 숙식제공 : 보시금 삼백 오십만원
(예약전화 외 사절 / 선착순10명, 예약 선입금)
농협 457109-52-098389 홍점순

■ 찾아 오시는 길 : 공주시에서 청양가는길 13km 오셔서 공수원 4거리 하차(신풍면 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전화 041)855-7114, 016-663-2159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벤치탁자



◆ 평 상 1500× 820×400[mm] 가격:150,000 할인가:130,000
1800×1030×480[mm] 가격:220,000 할인가:190,000



◆ 벤치탁자 set 1500×1700×750[mm] 가격:420,000 할인가:370,000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축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옥상, 가든, 휴양림, 해수욕장, 암벌, 공원 등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제품.]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http://상품진열대.com
TEL:(063) 323-3010~1
FAX:(063) 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지역대리점 모집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고급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5. 9. 5 월 · 화 반, 수 · 목 반, 금 · 토 반(주 · 야간 : 3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9월 5일 개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 동구 좌천동 567-2 다전리치텔 1004호 (좌천역 1번 출구)
문의 : 018-312-7110

“피곤해, 좀 쉬면 괜찮을까!”

지나친 땀 분비 · 장거리 운전 등이 원인

‘여름휴가 증후군’ 이겨내기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부터 손경진(38)씨는 늘 피곤하고 같은 증세가 반복된다. 설사, 어깨 결림 증도 나타난다. 바로 ‘휴가 증후군’ 이다. 휴가 증후군은 더위로 인한 체력 소모, 지나친 땀 분비,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이 주원인. 하지만 ‘별것 아니겠지’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방심은 금물. 피로를 방치하면 인체의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 몸의 ‘저항력이 감소돼 감기나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휴가 때 쌓인 피로는 그때그때 풀어주는 게 최선. 여름휴가가 남기고 간 상처인 ‘휴가 증후군’을 쉽게 털어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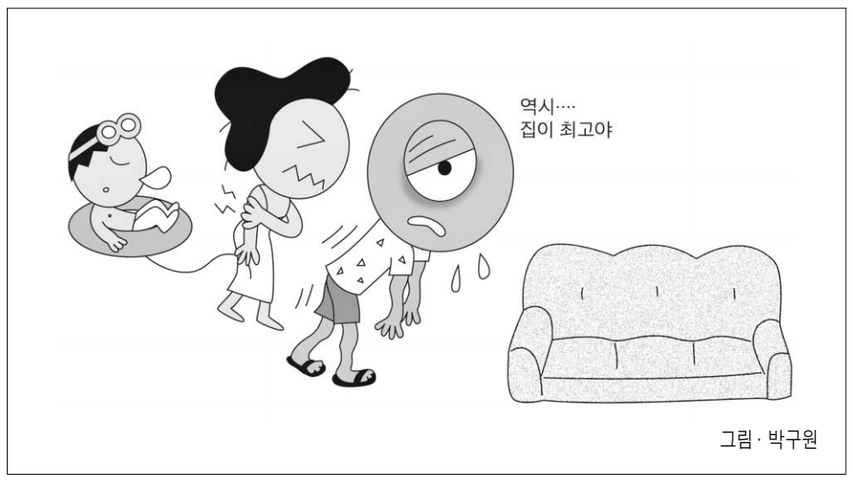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여성의 경우

찜질욕·꿀 섭취 피로회복에 효과

휴가 후 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온몸이 쑤시고 찌뿌드드한 증상. 특히 휴가가 끝나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통증이 몰려오게 된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요법으로는 스트레칭이 으뜸. 스트레칭 전에 걷거나 가벼운 운동으로 체온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혈액 순환을 활발히 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각 부위별 스트레칭 시간은 10초 정도. 실시 후 5~6초 근육을 이완시켰다가 다시 20초 정도 강도를 높여 가며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즉, 가벼운 통증을 느낄 때까지 실시하는 것이 피로 회복은 물론, 근육통에 도움이 된다.

직장인들이나 주부들이 쉽게 휴가 후유증을 떨칠 수 있는 곳은 뜨끈뜨끈한 찜질방. 피로를 푸는데 더 없이 좋은 공간이다. 황토, 맥반석, 옥돌 등의 돌에서 나오는 열(원적외선)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조직을 부드럽게 해 손상된 조직의 치유하고 신진대사 작용을 촉진한다. 또 땀을 통한 노폐물과 유해한 성분의 배출 등의 전신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뻐근했던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찜질욕은 길게, 한 번에 끝내는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10분, 5분, 5분으로 3번 정도 나눠서 하는 것이 좋다. 한약재를 이용해 피로를 푸는 법도 효과적이다. 생맥산은 세 가지 한약재를 넣고 달인 것으로 맥문동, 황기, 오미자가 들어간다. 최근에는 열사병과 폐에서 기인한 심장병, 심근 경색 등으로 기력과 진액이 손상된 경우에도 사용한다.

꿀은 포도당과 과당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당류이므로 체내 장벽에 직접 흡수되어 에너지 공급과 생리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천연 종합식품. 환자에게 포도당을 주사하는 데 꿀이야말로 포도당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어 영양장애 해소나 피로회복에 큰 효과를 나타낸다.

■남성의 경우

불면증 해소엔 둥글레차가 특효

휴가 후유증은 남자들에게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장시간의 운전과 과음 · 과식 등으로 피로가 쌓인 탓인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무기력증, 졸음, 전신 근육통, 두통 등이다. 이런 증상들은 피로 누적이 원인이며 깨진 생체 리듬만 잠으로 회복시켜 주면 극복되는 문제들이다. 이 때 긴 연휴 동안 생긴 늦게 잠드는 버릇을 고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드링크제나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음료를 피해야 한다. 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수면제 삼아 술을 마시는 건 좋지 않다.

불면증 해소에는 둥굴레차가 특효다. 피로 회복에 가장 알맞은 수면 시간은 7~8시간. 그 이상의 수면은 오히려 ‘수면 피로’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인삼, 오미자, 맥문동을 각20g씩 물 2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달여 물 대신 수시로 마셔도 피로 회복에 좋다. 인지질을 함유하고 있는 계란노른자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영지는 <신농본초경>에 기력이 약한 사람에게 특효가 있다고 기록돼 있으며 강장, 강심, 이뇨, 해독 등에도 효능이 있는 약용버섯이다. 홍삼정차도 한약처방의 일종으로 지친 심신에 기를 불어넣어 준다.

■그 밖의 휴가 증후군

알로에 · 감자 열내리는데 좋아

눈병에 걸렸을 경우 가족 간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며 절대 비벼서는 안된다.

귀 통증은 면봉에 항생제 연고를 묻혀 골고루 발라주면 가라앉기도 한다. 하지만 1~2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을 땐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휴가로 기력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체력에 설사를 하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 휴가 후 설사는 급성 세균성 장염이거나 바이러스성 장염이 대부분이다. 감이나 곶감, 녹두죽 등의 음식을 먹으며 속을 달래야 한다. 우유나 밀가루 음식 등은 자제해야 한다. 설사 이외 고열 오한이 있는 경우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설사 증상이 심하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작열하는 태양은 화상, 기미, 주근깨 등 피부질환은 물론 피부노화를 부른다. 레몬과 알로에, 수삼을 믹스해 팩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강한 자외선으로 큰 물집이 생겼을 경우에는 물집을 바늘로 터뜨린 후 밥풀과 인진쑥을 섞어 상처에 붙이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거칠어진 피부를 가라앉히고 열기를 빼는 간편한 방법으로는 냉찜질이 단연 으뜸. 찬 오이 마사지나 감자를 갈아 차게 한 후 팩을 하면 효과가 그만이다. 여성은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화장품을 쓰면 도움이 된다.

원광대 한의대 한방생리학과 이호섭 교수는 “평소 면역 증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제철 채소와 과일 즐겨 먹기, 백혈구를 활성화시키는 버섯요리와 바나나, 양배추도 휴가 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도움말=원광대 한의대 한방생리학과 이호섭 교수



산모 식생활은 영아 건강에 영향

임신 초기는 콩 · 야채 등 자연식품 먹어야
충분한 걷기 운동은 정상적 출산에 도움

임신 후 9주까지의 물고기기(期)에는 식생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음주와 흡연은 물론 약성이 독한 약물이나 자극성이 강한 고추 같은 향신료 그리고 물고기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물고기는 종양을 녹이는 성질을 지녀 먹으면 이제 막 형성기에 있는 태아까지도 녹여버릴 수 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콩류 쌀 기름기 없는 쇠고기(살코기), 집에서 놓아 기른 토종닭과 계란 자연산 생우유와 요구르트 그리고 곡류 같은 자연 식품을 되도록 많이 먹어야 한다.

처음 9주간의 물고기기(期) 동안에 식생활과 행동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유산될 가능성도 있다. 임부가 섭취한 음식물들은 모두 소화계로 흡수되어 그 정수(精髓) 성분이 생식기에 저장되었다가 탯줄을 통해 자궁으로 들어와 태아를 발육시키게 된다.

임신 두 번째 단계는 거북 시기로 10주에서 17주까지의 기간이다. 이 단계의 태아는 거북과 비슷한 모양이 된다. 사지가 나타나고 오장육부(장기)가 만들어지며 육감(六感)이 생겨나고 신경과 도관이 이어진다. 이 단계에는 안심하고 물고기를 먹어도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돼지시기로 18주에서 35주 사이이다. 이 단계의 태아는 생길 것은 다 생겨 제 기능을 다하는 시기이다. 돼지 단계로 부르는 것은 이제 태아가 주변의 환경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 24주째부터는 태아의 감각기능이 제대로 분화되어 이때부터 임부는 너무 뜨거운 음료나 고추 술 담배 등을 삼가야 한다.

임신 36주째부터 38주째까지 마지막 세 주는 출산 준비단계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는 징후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아들이면 임부의 우측 복부가 좌측보다 더 불러오고 오른쪽 젖가슴에서 젖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꿈에 남자들이 보이고 꿈속에서 강한 성욕을 느끼게 된다. 딸이면 반대로 왼쪽 배가 더 불러오고 왼쪽 젖가슴에서 젖물이 떨어지며 꿈에 꽃이나 보석류를 보게 되고 꿈속에서 노래나 음악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좌우 양쪽 배가 볼록 부풀어 가운데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이 된다.

38주간의 발생과정을 거쳐 온전한 모습으로 발달한 태아는 드디어 출산에 이르게 된다. 여자들은 대부분 정상 분만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정상 분만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로, 첫째는 체내 과다출혈이 있는 경우이다. 과다출혈이 있으면 태아의 생장이 멎어 사산이 되고 만다.

둘째는 임신 중에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 자궁관과 질구가 좁아져 태아가 나올 수 없는 경우이다. 제왕 절개로 개복 분만하지 않고는 별 도리가 없다.

마지막 셋째는 그릇된 식습관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하행 퉁이 위로 올라가 분만을 지연시키는 경우이다. 임신부는 하루도 거르지 말고 충분히 걷고 정신적으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출산을 맞아야 그러한 일을 모면할 수 있다. 갓 태어난 신생아는 피부가 매우 예민하고 연약하여 비단이나 면과 같은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주는 것이 좋다. 씻길 때는 목욕물이 너무 뜨겁거나 차지 않도록 항상 일정한 온도로 정확히 맞춰줘야 한다.

흔히들 손가락으로 목욕물의 온도를 맞추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다. 우리들 손가락 피부와 신생아의 피부가 느끼는 감도의 차이는 엄청 크다. 그래서 목욕물이 너무 뜨거우면 아기에겐 용광로 속 쇳물에 넣어진 느낌일 것이고 너무 차면 얼음물에 잠긴 느낌일 것이다.

신생아뿐 아니라 산모 쪽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산모의 식생활은 영아의 건강과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되도록 자연식품을 많이 먹고 자연식품을 구하기 어려우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라도 많이 먹어야 한다. 가공식품과 인공첨가제가 함유된 음식은 일체 먹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모는 적어도 첫 해만큼은 아기에게 정성을 다해 모유를 먹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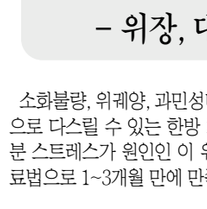
지금까지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티베트 의학에서는 ‘개체 발생은 계통학을 되풀이 한다’는 발생학의 대명제 헤켈의 원리를 벌써 오래전에 간파했던 것이다. 하나의 수정란 즉, 단세포로부터 어류, 파충류, 포유류의 단계로 진화해 온 인류의 진화사가 태내에서 되풀이 되는 과정을 <사부의전>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리고 17세기 초 그 <사부의전>의 내용을 80여 탕카(탱화)로 재구성한 <티베트 의학 괘도>에 사진처럼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당뇨, 한방으로 잡는다

– 합병증 예방 치료에 효과적 – 초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호전



혈당을 효과적으로 잡아주면서 합병증을 예방, 치료해주는 당뇨 한방치료제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발병한지 3년이내의 초기 당뇨병은 치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로 인한 각종 합병증에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래한의원(원장 최선미 (02)512-2075)은 당뇨에 따른 각종 합병증을 예방, 치료해주는 당뇨 한방치료제 제당탕과 제당환(除糖丸)을 환자들에게 투여한 결과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미 원장은 "제당환을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에게서 혈당 정상화와 함께 피곤감, 시력저하, 혈압상승, 성욕감퇴, 손발 저림 등의 합병증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며 ”특히 발병한지 3년이내의 환자들에게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호전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제당환'을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가운데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95%(83명)가 1개월 이내에 혈당이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혈당을 유지하고, 손발저림, 혈액순환장애, 피곤감, 시력저하 등의 합병증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치료효과를 보였다. 특히 이중에서 발병한지 3년미만의 초기 환자 20명은 혈당이 정상화되고 합병증세가 사라지는 등 더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태가 좋아졌다.

최원장은 "당뇨 환자 대부분이 해당근, 백강잠, 영지 등의 20여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약인 제당환을 복용한지 3일뒤부터 혈당이 잡히기 시작, 늦어도 15일 이내에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져 정상혈당을 찾아 일상 생활에 거의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호전됐다"며 "특히 초기, 중기 환자들은 일주일만에 정상 혈당을 되찾는 등 증상의 회복속도가 무척 빨랐다"고 설명했다.

최원장은 "합병증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보여 10년 이상된 당뇨 환자 역시 한달 이내에 혈당이 정상화되고 합병증 증상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방에서는 인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분 성분인 진액을 보충해주고 탁해진 피를 맑게 하며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당뇨를 치료한다.

최원장은 "한방 당뇨치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별다른 부작용 없이 혈당을 안정시켜주면서 증세를 없애주고, 궁극적으로는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인체 스스로 인슐린 분비를 하도록 도와 준다는 점"이라며 "발견 즉시 또는 3년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다"고 설명했다.

www.storydang.com

급만성 위장질환, 한방으로 다스린다

– 부분 1~3개월만에 증상 개선 효과
– 위장, 대장의 염증 없애주고 뭉친 기운 고르게 펴는 작용

소화불량, 위궤양,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급,만성 위장질환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한방 치료법이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 스트레스가 원인인 이 위장질환들은 체질과 증상에 따른 한방 치료법으로 1~3개월 만에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 진선미 한의원((02)2273-8694) 신기돈 원장은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대장증상이나 소화불량, 위궤양 등 급,만성 위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재로 만든 한방환을 복용케 한 결과 대부분 1개월 내에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치료효과를 보였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해 있는 위장이나 대장에 작용하여 염증을 없애주고 기(氣)를 고르게 하여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작용으로 위장질환을 치료한다”고 말했다.

이 한약은 창출, 후박, 진피, 곽향, 사인, 산사육, 백작약, 등 20여가지 약재를 체질과 증상에 따라 가감해 사용하는데, 만성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염, 복부팽만, 만성변비등 기타 위장, 대장질환에도 좋은 효과를 보인다.

신원장은 “현대인들의 위장질환은 대부분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음주, 불규칙한 식사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염증을 없애주고 위장이나 대장의 뭉친 기운을 고르게 하는 한약재를 쓰면 위장질환의 증상을 빠르게 개선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위장관계질환은 한방으로 수월하게 치료되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30-40%의 위장질환 환자들은 증상은 있으나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할 때 흔히 신경성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소화에는 비장, 위장뿐만 아니라 간장, 심장, 신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속으로 삭힐때는 간의 기가 울결되어 소화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는 간의 울결된 기를 풀어주는 방법을 쓰면 좋다. 이런 방법 외에 위장내 적체된 비소화물을 내려주거나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신음을 보충해 주는 방법을 응용해 볼 수 있다. 체질에 따라 자신에 맞는 섭생과 식이요법을 하면서, 침과 탕약 치료를 병행하면 사람과 증상에 따라 틀리지만 대략 1~ 3개월이면 치료가 가능하다.

본래 사람은 각자의 체질에 맞는 음식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인체는 자신과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면, 설사나 구토를 통해 이를 빨리 몸 밖으로 내보 낼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을 제대로 가려주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보면 몸은 지치게 되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물이 그대로 적체되어 여러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장관계 질환이 치료를 위해서는 체질에 따른 식이조절이 필요하다.

위장대장 질환을 올바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술은 절대 금물이며 담배 커피 등은 끊는 것이 좋다. 또한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바로 잡아야 된다.



박물관 건설과 고속철도 공사로 몸살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45) 계룡산 동학사

한반도 산악신앙의 본향인 계룡산. 그러나 최근에는 각종 개발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학사를 품고 있는 계룡산. 산과 절의 조화가 자연스럽다..

계룡산은 신라 때부터 매년 봄가을로 제사를 받아오던 오악(五岳) 중의 하나로, 한반도 산악신앙의 본향이다. 동학사는 그 골짜기에 핀 한 송이 연꽃이다.

근래 들어 계룡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을 짓는다고 국립공원 내 장군봉 기슭을 수천 평이나 망가뜨리더니 이번에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역으로 결정되면서 터널이 계룡산을 관통하게 되어 큰 생채기를 받게 되었다.

이 곳에 동학사가 들어앉은 것은 신라의 전성시대인 성덕왕 시절이다. 상원대사가 산중에 지은 암자를 나중에 회의대사가 중창하며 상원사(上願寺)라 불렀다고 한다.

식당가 뒤로는 계곡이다. 철망은 쳐놓았지만, 식당 측에서 계곡을 인공수로처럼 함부로 변형시켜 놓고 손님들을 받고 있다. 그 바람에 수서생물은 물론 물고기도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계곡이 되어 버렸다.

숲길은 큰절까지 1km가 넘는다. 목본류의 다양성에 있어서 이만한 사찰 숲은 그리 흔치 않다. 복자기, 왕벚나무, 양버즘, 아카시나무, 고욤나무, 일본단풍, 밤나무, 편백나무, 전나무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계룡산에 자생하는 나무들이다.

계곡 주변의 나무들은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하다보니 제 모양새를 가진 나무들이 흔치 않다. 올곧은 소나무까지도 그들의 틈새에 끼어서 이리 휘고 저리 굽었다.

동학사계곡은 길이는 짧지만 아기자기한 데가 있다. 자맥질을 할 만한 소(沼)도 있고, 물맞이를 할 만한 폭포도 여럿 있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더위를 씻고 있다.

주변환경이 비교적 청정한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벌이고 있는 클린업타임(clean up time) 운동 덕분이다. 이것은 정해진 짧은 시간에 탐방객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변 청소에 참여하는 일종의 환경운동이다.

극락교를 지나 도착한 관음암 뜰엔 배롱나무와 능소화가 꽃들을 피워놓고 자지러진다. 꽃들의 수다에도 아랑곳없이 밀잠자리 암컷 한 마리가 돌수조에 앉아 미동도 없이 졸고 있다.

밀잠자리 수컷은 하늘색을 띠지만, 암컷은 사진에 보듯이 황갈색을 띤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여름잠자리이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그곳을 뜨고 마는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다. 동학사 주변의 잠자리는 이 밖에도 마이키측범잠자리를 비롯해 여러 종류가 서식하고 있다.

대웅전 뒤로 조림한 편백숲이 듬직한 병풍 역할을 해주고 있다. 편백은 일본 특산종이지만, 우리 남부지방에도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잘 자란다. 현재 선운사 등 남부지방 사찰에서는 흔히 볼 수 있으나, 위도상 동학사 북쪽에서는 흔하지 않은 편백숲이다.

주변 식당서 계곡 변형시켜 물고기 사라져
'클린업타임' 운동으로 주변환경은 청정
꼬리치레도롱뇽 발견은 깨끗한 수질 입증

큰 절에서 5분가량 떨어진 실상선원 주변은 장송들이 울타리를 치고 있다. 동학사 주변의 소나무들은 활엽수의 공세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 소나무를 위협할 정도로 활엽수의 키들이 쑥쑥 자랐다. 판세는 이미 활엽수 쪽으로 기울어져서 발 밑에는 후계목도 자라지 않고 있다.

꼬리명주나비 한 마리가 대웅전 뒤 바닥에 앉아 있다. 꼬리명주나비는 양쪽 날개에 꼬리가 달려 있고, 명주처럼 날개가 투명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성질이 온순하고 날개의 움직임이 느리고 우아하다. 그만큼 천적들에게 해꼬지를 당할 확률도 높다. 아니나 다를까? 어른들을 따라 온 개구쟁이들에게 꼬리를 잡혔다가 빠져나오면서 한쪽 꼬리를 뜯겼다.

이 밖에 절 주변에서 산제비나비, 황세줄나비, 대만흰나비, 뿔나비 등이 관찰되었다.

여름철 비가 온 다음이면 가끔 경내에 꼬리치레도롱뇽이 나타난다. 이름에서 보듯이 일반 도롱뇽과 달리 꼬리가 유난히 길어서 몸 전체 길이가 어른 한 뼘 정도 된다. 황갈색 바탕에 아름다운 점 무늬가 조밀하게 흩어져 있어서 일반 도롱뇽에 비해 아름답다.

우리나라 양서류 중 가장 깨끗한 물에 사는 꼬리치레도롱뇽은 풍부한 산소와 낮은 수온을 서식조건으로 한다. 경내에 물이 항상 흐르는 작은 샘이나 바위틈 어디엔가 서식처가 있을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 특정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학사에서도 꼬리치레도룡뇽을 지표종으로 선정하여 서식지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동학사 주변은 활엽수가 많아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같은 딱정벌레들이 다양하게 관찰된다. 밤이면 불빛을 쫓아 날아들었다가 창문이나 벽에 부딪치고는 더러 기절상태에서 아침을 맞곤 한다.

사슴풍뎅이는 수컷의 돌기가 사슴의 뿔을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몸 빛깔은 검은색이나 앞가슴등판과 딱지날개는 회백색의 가루 물질로 덮여 있다. 적갈색 앞다리 발목마디가 뚜렷하게 긴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컷은 매우 공격적이라서 앞다리를 크게 벌리고 위협을 가한다.

큰 절에서 은선폭포까지는 1km가 넘는 돌길(石徑)이다. 계룡산 지역은 온대 남부와 중부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북한계 식물과 남한계 식물이 함께 자라고 있는 지역이다.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목본으로는 소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서어나무, 때죽나무, 까치박달나무 등이 분포한다.

일본잎갈나무 줄기에 시민들이 새 집을 달아놓았다. 지난 6월말 조사 때는 곤줄박이 새끼들의 이소(離巢)가 한창이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은 텅 빈 집이다.

남매탑으로 오르는 계곡의 식생도 은선폭포 계곡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등산로 주변은 거의가 활엽수들이다. 계룡산의 초본류는 몇 차례의 조사에서 860종 내외로 집계되고 있다. 어수리, 원추리, 참나리, 털중나리, 하늘말나리, 으아리, 사위질빵, 산꿩의다리, 까치수영, 산수국, 맥문동 등이 등산로 주변에서 꽃들을 피우고 있다.

계룡산의 육식 포유류로는 삵, 너구리, 오소리 등이 관찰되고 있다.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사라진 밤이면 이따금 너구리가 동학사 숲길을 어슬렁거리고, 얼마 전엔 동학사 건너편 숲에서 오소리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깨끗한 물에만 사는 꼬리치레도롱뇽.



등산로 주변에서 발견되는 원추리꽃.



사슴풍뎅이는 적갈색 앞다리 발목마디가 긴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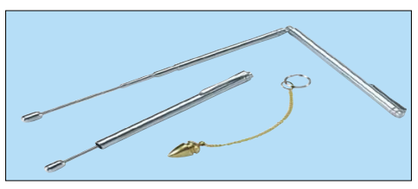


밀잠자리는 환경이 나빠지면 그곳을 뜨고 마는 지표종이다.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파 감정 개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수다. 수맥탐지 기술만 배우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것이다. 氣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입금농협053-12-102911



수맥파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맬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는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키며 차단한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77**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들어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천연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못받을 돈이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버는등. 숫한 화제를 낳는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 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불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53-12-102911

관세음 수진언 옥환의 소망

자녀가 없어 고민하는 가정의 소원성취

평생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
지혜의 자녀를 얻는 영험



관음보문품경에나오는 관세음보살 42가지 수진언은 세상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 시켜주는 영험의 손이며 법구다. 세상중생들중에 가장 큰 고민은 자손이 없는 고민으로 관세음보살께서는 인연이 되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인연의 씨앗인 후손이 꼭 있어야 하는데 전생의 업보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기 위한 것이 관세음 42수주 영험중 17번인 관세음수진언 옥환이다.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얻고자(設欲求男) 관세음보살게 공양하면 복덕과 지혜를 겸비한 아들을 낳게 되며(便生德智慧之男) 가령 딸을 얻고자 하면 (設欲求女) 단정하고 훌륭한 상호를 갖춘 딸을(便生端正有相之女) 낳을 것이니라.**(관세음보문품경에서)

관세음수진언 옥환은 지혜의 자녀뿐 아니라 이혼하지 않고 평생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샘솟게 하는 영험을 담고 있다.불경에 입각하여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불교의식을 마치고 출시한 **관세음보살 옥환**을 부부가 베게속에 각각 넣고 평생 사용할 수 있게 99% 순 銀으로 만들어 졌으며 자녀가 없어 고민하는 부부, 후손을 기다리는 가정과,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신부 및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영험의 법구다. 전화로 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축원불공과 평생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에 대한 100일 불공을 드린다. **문의(02)741-4487**